금주의 법구-〈대반열반경〉
겉모습이 그럴듯하다 해서도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해서 안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2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2호 2016년 2월 3일 수요일

"주목받는 은퇴자 특수출가 세심한 제도 설정 중요"

[기획] 기대만큼 우려, 은퇴자 출가 진단

조계종이 출가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격 추진하는 은퇴자 특수출가에 대한 불교계 일각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단 차원의 출가 진흥 대안 마련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함께 승려 노후복지에 대한 부담 증가, 기존 법계 제도와의 마찰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은퇴자 특수출가제도 입 계획 발표 후 종단 공식석상에서의 비판은 1월 27일 해남 대흥사에서 진행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나왔다.

김천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회의에서 "소년출가와 청년출가는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자 출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고령자 출가를 통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출가 연령을 수정하는 방안만으로는 출가자 감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출가자 감소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은퇴자 특수출가가 출가자 감소에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조계종의 경우 고령자에 대해 10여년 전부터 출가의 문을 넓혀왔다. 출가자 급감에 2006년 40세였던 출가연령 상한선을 50세로 올렸지만 매년 출가자 수가 100여 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원로회의 소위원회에서도 원로의원 종하 스님은 "고령 출가자들은 이미 가정을 꾸린 전력이 있고, 습의를 익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종단의 책임도 고령 출가자 증가 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령 출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은퇴자 특수출가는 기존 50세 이하 출가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의 출가자들은 행자교육원과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하고 비구·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스님이 된다. 하지만 은퇴 특수출가는 이런 교육과정이 간소화된다. 특수 출가자들의 사회에서의 전문성을 고려해 전문분야에서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서도 마찰은 예상된다. 현재 조계종은 법계 직무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 은퇴자 출가가 활성화 돼 이들이 전문 분야 소임을 맡을 경우 정상적으로 출가해 법계를 승급해 온 출가수행자와 갈등과 차별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은퇴자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대한 전형 문제도 남아있다.

출가연령 상한에도 출가자 감소
흥선 스님 "은퇴출가 해법 아냐"
복지 증가·법계 불균형 등 우려

오심 스님 "정밀한 선발 있어야"
'법사' 유사한 직책 신설 제안도

조계종 출가상담사 가섭 스님은 "얼마만큼 내실 있게 교육과정이나 수행체계를 마련하는지에 은퇴자 특수출가제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려되는 점은 출가로 인한 이혼 및 가족들의 문제 등이 있다. 조계종은 비구종단으로 정의된다. 은퇴자는 출가 후에도 가족이 있기에 부양문제 등을 명확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승려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종회의원 오심 스님은 "조계종으로 출가를 원하지만 연령제한에 걸려 태고종으로 출가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도 도입 후 문제가 생긴다면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교육과 노후복지 문제 등도 전형과정에서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조계종과는 달리 재가승 제도를 유지하는 태고종의 경우 고령자 출가에 대해 내부에서도 교육제도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고령자들이 승단에 정착을 하려면 승단의 연한만큼의 수행력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외양으로 본다면 차이가 없다"며 "아직까지 고령출가 관련 교육 등이 없어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정체성과 기존 스님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법사제도와 유사한 새로운 계급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사회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법 교화에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가신도의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홍포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은 환영할만하다"면서도 "은퇴출가 스님들이 교단의 중진 역할과 권한이 부여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기에 정식 스님보다는 법사와 비슷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과 우려에 조계종 교육원은 특별법 발의에 앞서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은퇴자 특수 출가는 출가 진흥 정책의 한 가지 대안"이라며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높지만, 종단 내부에서 조율할 부분은 산재해 있다. 향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목 각 불

목각 천불전
만불전 건립
대 공덕을
발원하시는 사찰
연락 요망
010-8617-5357



"예전 같으면 사찰서 보살폈는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27일 가톨릭이 운영하는 성가정입양원을 방문해 따뜻한 자비심을 전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입양전문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 설립에도 나설 것을 밝혔다. 성가정입양원은 낙태금지를 밝힌 가톨릭계가 낙태금지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1989년 故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국내입양전문기관이다.
자승 스님은 "종단에서도 낙태 금지를 비롯한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밝혀왔다.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뜻에서 아이들 보살피고 해외입양을 막는데 힘쓰겠다"며 "불교계도 입양원을 운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입양원 영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입양원 측에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글= 노덕현 기자 · 사진=공동취재단

네팔 꽃핀 자비나눔…"추위 두렵지 않아요"

현지 반야포교소 1월 26일
마지마을에 방한 담요 전달
本紙 기금으로 1백장 마련해



너빈 바르라챠르야 진각종 JGO네팔센터장(사진 왼쪽)은 1월 26일 반야포교소 봉사자들과 함께 신두팔촉 마지마을 주민에게 방한담요 100여 개를 전달했다. 방한담요는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해 진각종을 통해 전달한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1월 23일, 국내 못지않게 이역만리 떨어진 불교국가인 네팔에도 매서운 한파가 닥쳤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4월 국가적 재난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피해로 집을 잃은 이주민들에게 이번 추위는 혹독한 시련이었다.

한기를 느낀 너빈 바르라챠르야 진각종 JGO네팔센터장(네팔 반야포교소 대표)의 머릿속에는 언뜻 떠오르는 곳이 있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서 자동차로 약 3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신두팔촉 마지마을이다. 이곳은 험준한 산악지역중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다. 특히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네팔중에서도 교통사정이 최고로 열악한 곳이라 외지인들의 발길이 뜸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지진 피해로 40명의 사망자와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네팔 정부는 물론 봉사나 구호단체의 손길이 거의 못미쳐 마을 주민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너빈 바르라챠르야 진각종 JGO네팔센터장은 1월 26일 반야포교소 봉사자들과 함께 신두팔촉 마지마을로 달려가 방한담요 100여 개를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번에 지급된 물품들은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해 11월 서울 하월곡동 진각문화전승원서 한국불교법사대학 학장 지일 스님과 학인 일동이 네팔지진피해 돕기 구호 기금에 써달라고 본사에 기탁한 300만원을 진각종 측에 전달한 성금으로 구입한 것이다.

당시 기금을 전달받은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진각종은 지진피해 당시부터 종단차원서 네팔 현지 포교사와 함께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에 기탁 받은 성금은 현지 네팔 JGO센터에 전달해 피해 지역 구호물품 구입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메일을 통해 현지 구호활동 소식을 전한 너빈 JGO네팔센터장은 "지난해 현대불교신문사서 기탁한 300만원으로 100장의 담요를 구입해 1가구당 2개씩 50집에 나눠줬으며, 의료품도 절실해 간단한 상비약도 함께 전해줬다"며 "이 지역 500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수량이지만 그래도 현지 주민들이 너무 기뻐해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학생 포교에 역량 집중”

직무대행 송묵 스님 27일 포교원 신년 계획 밝혀

지역사찰·대학동아리 연계 포교법 전면 제개정 추진도



별원 21년째에 접어든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대학생 불자 확대를 위한 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직무대행 송묵 · 사진)은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브리핑을 열고, 불기2560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포교원은 올해 사업 기조를 ‘중앙 · 교구 균형발전 추진 및 협력’으로 정했다. 이는 제34대 총무원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포교제도 개선 및 교구중심의 지역포교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점차 약화되고 있는 대학생 포교에 지역사찰이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교원장직무대행 송묵 스님은 “현재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이 거의 붕괴된 상태다. 전국에 145개 불교동아리가 있으나 각각 많게는 20명, 적게는 4~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면서 “그 원인은 취직문제로 인한 스펙 치중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찰이 대학 불교동아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법회를 지원한다면 충분히 활성화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은 대학생 포교를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연계, 제주부터 강원까지 총 10개 지역 대학생들에게 방학마다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학생전법단을 청년대학생전법단으로 확대 · 개편, 학교 중심이 아닌 스님 및 사찰과 연계하는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불자들이 외국에서 신행생활 하며 언어공부를 하는 데 부담을 덜어주고자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등 해외사찰과의 협조도 구하고 있다. 포교원은 이 같은 대학생 포교사업을 펼쳐 청년불자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교원은 대학생 포교 외에 2000년 이후 변화가 없는 포교법을 전면 검토해 제 · 개정하고, 포교의 주체를 사찰 · 스님 · 신도회 등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교구본사와 말사 간 포교활동 체계를 공유하고, 주체적인 신도 배가 운동을 전개하도록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명상지도사 자격을 획득한 포교사들을 집중 관리해 현대사회 가족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가족법회를 장려하면서 신도 평균 연령을 점차적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단화합 특별법’ 6월로 제정 연기

종헌종법특위, 사부대중위원회 요청에 따라… “반드시 성안”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가 1994년 멸빈자 사면 등을 골자로 한 ‘종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을 6월 이후로 연기했다. 사부대중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종헌종법특위는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발의 연기를 결정했다. 특위는 당초 ‘종단화합조치 특별법’을 성안해 3월 15일 임시종회에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부대중위원회가 6월초까지 중앙종회에 관련활동 결과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 요청하며 연기됐다.

종헌종법 특위는 “특별법 제정은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부대중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종도들의 의견을 모으기에 이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위는 6월 이후 열리는 중앙종회에서는 반드시 성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종헌종법 특위는 원로회의가 중앙종회에 요구한 4개 종헌종법개정안에 대해 원로의원 임기만료시 자동적으로 명예의원으로 위촉되는 원로의원법 개정을 결의했으며 출가자 감소에 따른 출가연령 상한제 폐지에 대해 종단 집행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로의원 불징계권과 종헌 인준시 원로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한 종법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방침을 정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본말사 성보대장 정비나선다

문화부, 26일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서 밝혀

조계종이 교구성보대장 일체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교구 종무행정 이양 정책에 따라 종단 성보대장에 대한 교구 말사의 열람권도 부여된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안)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교구본사 사회국장 회의’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브리핑했다.

문화부의 올해 사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성보 문화재 관련 종책들이다. 문화부는 △본사 단위 성보 역량 강화 △불교문화유산 현안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문화재 관계 기관 네트워크 강화 등을 문화재 종책으로 추진한다.

특히 본사 단위 성보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는 본말사 성보대장의 일체 정비가 눈길을 끈다. 이는 종단의 성보대장과 교구본사, 사찰 성보대장의 일치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구본사와 말사의 성보대장을 교구 성보 담당자가 종단 성보 대장 비교 후 종단에 차이점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교구 성보대장과 미작성 사찰에 대한 성보대장 구축도 함께 진행된다. 교구 본사에서 해당 교구 말사에 대한 종단 성보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교구행정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종단성보대장 수정 후 오는 6월까지 각 교구본사에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종단·교구·사찰 성보대장 일치 위한 방안으로 추진

교구성보 열람권한 부여도

6월까지 교구별 검토 요청

또한, 문화부는 사문화된 성보보존법 전면 개정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2년 제정된 성보보존법은 2005년 성보박물관 설립 관련 내용이 신설된 후 한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성보대장을 만들어 문화재를 관리토록 했지만 이를 비치한 사찰은 많지 않다.

문화부는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해 성보 대장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가 사찰 운영에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불교문화진흥을 위해 종단 소속사찰과 불교문화단체를 대상으로 ‘2016 불교문화행사(산사문화예술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일반법회와 사중 기본행사를 제외한 사찰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행사 △지역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이웃종교와 함께 하는 문화행사이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이와 관련된 모든 행사는 자부담 50% 이상이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사업에 공모하려면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총무원 문화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초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지회 통해 비구니 역량 더욱 강화”

전국비구니회, 부산지회 구성 지회장 묘심 스님 만장일치 선출 3월까지 전국에 지회 결성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는 1월 28일 부산 해운대조선비치 셔블에서 ‘부산지역 전국비구니회 지회 구성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가 전국 지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국비구니회 제11대 집행부는 1월 28일 부산 해운대조선비치 셔블에서 ‘부산지역 전국비구니회 지회 구성회의’를 개최했다.

전국지회구성으로 지방 활동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국비구니회는 회의를 통해 부산지회 지회장에 묘심사 묘심 스님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어 임원진으로 총무 대성암 성공 스님, 교무 스님 용운사 대둔 스님, 재무 부곡암 선공 스님이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지회장은 앞으로 당연직으로 전국비구회 운영위원이 되며 중앙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참석한다.

부산지회 신임회장 묘심 스님은 “맡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소감을 짧게 밝혔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3개월 안에 전국 지회 결성 및 많은 일을 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으며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그동안 회칙에 따라 전국에 지회를 뒀지만 그 운영방법에 있어 실용성이 떨어져 지역 활동에 도움이 부족했다는 여론을 받아들였다. 지방 조직 강화를 통한 의사 소통과 지역 활동 지원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전국 각 지역 지회장을 새롭게 선출 중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월 22일 대전 비구니청림회 문화회관에서 충청권 지회구성 회의를 거쳐 대전지회 지회장으로 일권 스님과 충북지회 지회장 대우 스님, 충남 지회 지회장 정운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1월 25일 대구 서봉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경북지회 지회장 임대 스님이 뽑혔으며, 1월 26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서울지회는 지회장 혜원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세종특별자치시 지회와 대구 지회는 차후 논의에 따라 3월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동국대 정상화 위해 이사 추천 절차 생략

종회 연석회의서 추인 결의

중앙종회가 결원된 동국대 이사회의 충원을 위해 종회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3월 임시회에서 추인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특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현재 공석인 4석의 동국대 이사 추천을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에 위임키로 결의했다.

종법 상 동국대 이사직은 종관위 복수 추천 후 종회 동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이번 의장단 연석회의에서의 종회의 추인 결정은 종회 동의과정을 거칠 경우 지난해 12월 동국대 이사회에서의 사퇴결의 이행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지난해 12월 동국대 이사 스님들이 동반사퇴의 살신성인 조치를 취했는데 절차상 결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결의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추인을 통해 2월 중 충원되는 동국대 이사 4석은 임기가 만료된 월정사 삼보 스님, 통도사 명신 스님과 이사직을 사퇴한 수불 스님과 지홍 스님의 후임이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용주사 문제 미해결시 대중공의로”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이하 대중공사)가 1월 25일 동국대와 용주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중공사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동국대는 화쟁원탁회의를 구성했으나 중단됐으며, 다시 징계와 반발 등으로 근본문제를 풀지 못해 악순환이 될 우려가 높아졌다”며 “학교당국과 이사회, 비대위는 조건없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국대 갈등 장기화에는 비대위와 함께 이사회와 학교, 종단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종립학교 운영주체로서 종단의 신망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용주사 문제에 대해 “연내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특단의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인류무형문화유산

옥천범음대학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월	오후 1시 ~ 7시	30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수	오후 1시 ~ 7시	*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 ~ 7시	약간명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 ~ 7시	*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화	오후 1시 ~ 4시	30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❶ **응시자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

❷ **수료및 졸업과정**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주민등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4부
(4)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5) 최종 학력증명서

❸ **편입과정** :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6)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❹ **전형일정** :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② **2016년 1월 18일 ~ 2월 29일**

❺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❻ **특 전** :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응시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급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사회노동위, 1월 26일 '실천위원단 20인' 위촉

올해 확대 · 개편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20명의 실천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나선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사회노동위)는 1월 26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노동실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노동실천위원단은 '노동위원회'가 '사회노동위원회'로 확대 · 개편됨에 따라, 노동 · 인권 · 빈곤 등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불교계 사회활동을 펼치고자 구성됐다.

실천위원으로는 사회노동위원회 종령 9조 2항에 따라 사회노동위원장 혜용 스님, 봉은사 사회국장 혜찬 스님, 조계사 사회국장 승묵 스님 등 20인이 위촉됐다. 실천위원단은 위촉식 직후 3층 회의실서 노동 · 인권 · 빈곤 문제 관련 기본 소양 교육시간을 가졌다.

올 한해 사회노동위는 새롭게 구성된 실천위원단과 함께 장애 · 여성 · 청소년 · 성소수자 · 인권 등 사회갈등문제 해결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불교계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인권단체 및 3대종교 노동협의회 등과 함께 정기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세월호가족대책위 등 특정사안에 따른 연대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불광출판사, (주)불광미디어로 전환

불교계 대표적 출판사인 불광출판사(대표 지홍 스님)가 올 1월에 (주)불광미디어로 전환해 눈길을 끈다. 이에 불광출판사는 공공성과 책임성, 확장성이 더욱 강화된 출판미디어 전문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불광미디어는 불교 콘텐츠 전문 업체로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성해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불교계 밖과의 소통과 지식 서비스업체로서 굳히기 위해 도서출판 원더박스를 런칭해 인문 사회 경제 등 출판 영역을 넓혔다. 이 또한 (주)불광미디어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이며, 확장성 강화를 위한 모색중 일환이라고 불광출판사측은 강조했다.

한편 (주)불광미디어는 불광의 창간 정신을 계승 발전키 위해 월간 불광과 단행본 불광출판사 브랜드는 계속 사용한다. 또한 불광출판사 대표 지홍 스님은 월간 불광과 불광출판사의 발행인을, 류지호 현 주간은 (주)불광미디어의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세계명상대전 2월 25일~28일 정선서

세계적 참선명상 멘토 한자리에

아잔 간하(태국), 아잔 브람(호주), 심도 선사(대만), 혜국 스님(한국) 등 세계적인 명상 대가들이 한자리에 집결한다. 이번 대회는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감동 법문으로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이 시대의 선지식이며 명상계의 큰 스승 네 명을 초청해 펼치는 높은 수준의 명상 프로그램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즉 명실공히 명상올림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메머드급 국제 행사다.

행사명은 '세계명상대전(World Meditation Congress 2016)이다.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홀서 열린다. 현대인의 심적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행복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명상 분야 전문가 중심의 3박 4일 과정과 가족과 동호인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 1박 2일 일정 등으로 나뉘어 개최된다. 각 일정은 명상 스승들의 법문과 강연, 수행지도를 비롯해 좌선, 걷기 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초청법사인 네 선지식중 아잔간하 스님은 숲속의 은둔 수행자로 유명하다. 이번 방한은 은둔 수행 48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외국 명상지도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세계 명상계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진 아잔 차의 조카이자 직계 제자인 그는 한때 밀림 속에서 제자들과 걸식하며 유행하던 중 목숨을 위협하는 9m 길이의 거대한 맹독성 코브라의 공격을 받았으나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손길로 코브라를 쓰다듬어 주어 조용히 사라지게 한 일화로 유명하다. 이는 아직도 여전히 태국불자에게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또한 스님은 20세때 고향 담마유스 사찰서 출가해 왓농파퐁 수도원서 아잔 차에게 법과 율을 배우고 참선수행을 지도받았다. 이후 스님의 명성은 더 커져서 이제는 왓빠파띠파람을 포함한 16개 이상의 숲 속 사찰을 거느리고 있으며 수백 명의 제자들이 태국 전 지역서 수행중이다.



아잔 간하 심도 선사 혜국 스님 아잔 브람

아잔 간하 · 브람, 심도 선사, 혜국 스님 등 명상대가 초청 명상체험으로 행복찾기 체험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물리학도이자 아잔차의 수제자인 아잔 브람도 이번 대회를 위해 내한한다. 이미 수차례의 방한을 통해 초기불교의 전통 수행법을 국내 명상 수행인들에게도 전파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그는 〈성난 물소 놓아주기〉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등 자신의 베스트셀러를 통해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라. 앞을 내다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매 순간 존재하면 행복합니다"라고 말한다.

신도 50만명의 세계불교 박물관으로 유명한 대만 영취산불교 교단 선원장인 심도선사. '불법은 하나다'라며 대만서 유일하게 세계통합불교를 펼치는 대만 불교의 성자이다. 그가 매년 개최되는 수륙제 행사에는 7만명의 불자가 운집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10여년 간 고독하고 외진 곳들을 다니며 고행의 길을 걷다가 1983년 후롱산의 화후아 토굴에서 폐관정진에 들어갔고 이는 2년이 넘게 계속됐다. 이 수행도중 '모든 중생이 해탈할 때 비로소 깨달음이 완성된다'는 심오한 통찰지를 얻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충주 석종사 선원과 제주 남국선원 선원장 혜국 스님도 이번 대회에 참여한다. 혜국 스님은 13세때 해인사서 일타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한국 불교의 선 수행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승이다. 젊은 시절 해인사서 10만 배 정진 후 연비하며 견성성불의 결연한 뜻을 다지고, 태백산 도솔암서 2년 7개월 동안 솔잎과 쌀로 생식을 하면서 장좌불와로 수행 정진했다. 그 후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전국의 선방서 한국 근대 큰 스승이신 성철스님, 구산스님 등을 모시며 오로지 간화선 수행만으로 수십 안거를 지낸 국가대표급 선승이다.

이번 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장을 맡은 각산 스님은 "지난해 메르스로 연기된 점을 감안해 외형은 축소했지만 프로그램만큼은 더욱 내실화했다"며 "도박중독자들이 발생되는 카지노가 위치한 정선서 참가자들이 명상과 수행, 참선을 통해 행복 찾기를 펼치는 이번 행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명상관계자 200명을 비롯해 모두 5천여명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가문의 (02)451-0203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60년 신도조직 이끈 재가불자들 원력 모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61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신도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이순(耳順)을 맞았다. 개인이 아닌 하나의 조직이 6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데는 재가불자들의 끊임없는 정진과 굳건한 원력이 밑거름이 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거행,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포교에 매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중앙신도회는 앞서 지난해 60주년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취소한 바 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축하영상을 보내 중앙신도회의 창립기념을 축하하는 한편, 조직 발전에 헌신해온 재가불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중앙신도회는 1955년 전신인 전국신도회로 출범한 이후 불법홍포 · 불교중흥 · 중생구제 등 불교가치 확산과 재가불자 역량 강화에 힘을 쏟으며, 한국불교의 신행문화를 이끌어왔다. 1960년대부터 '한국불교 종단중흥을 위한 전국불교도대표자 결의대회'와 '불교근대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불교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행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사회 각계 분야별 신도들을 한데 모으고, 종교편향 및 사회문제에 나서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최근에는 매년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개최하며 불교문화 확산에도 매진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기념식에는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박남수 천도교 교령, 정의화 국회의장, 강창일 국회정각회장,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중앙신도회는 지난 60년 동안 조계종단의 종헌기구이자 신도대표기구로써 신도운동의 역사를 계승하며 종단을 외호하고, 종도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할 수 있도록 가행정진하고 있다"면서 "세간을 향한 불교의 사회적 책임과 회향을 앞으로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많은 사회갈등과 양극화 속에서도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자세로 진력해온 중앙신도회가 신행문화 확산을 통해 내 삶을 밝히고 사회를 더욱 향기롭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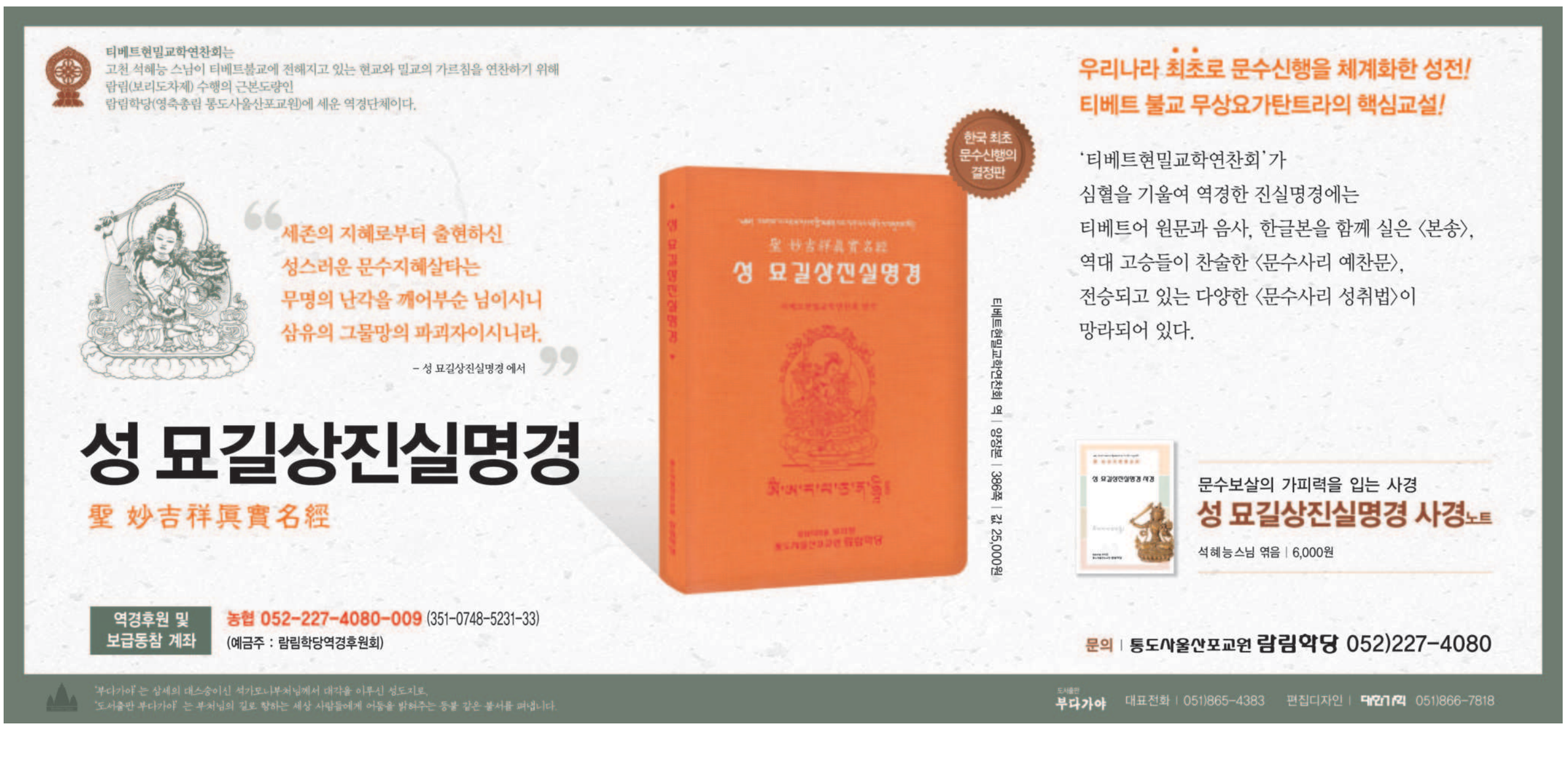
실제로 중앙신도회는 하안거 백일법문 재가논강과 동안거 돈오입도요문론 강설 수행논강 등을 진행하며 불자로서의 소양을 다지기 위한 수행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면서도 불교인재원과 봉사단 반갑다연우야를 발족, 리더십을 갖춘 불교인재 양성과 취약계층 의료봉사 등을 실시해왔다.

중앙신도회는 대회에서 조직 발전에 기여한 후원사 및 공로자 43명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 지난해 행복바라미 나눔문화캠페인으로 모연한 기금을 배분하고, 통일과나눔재단과 통일나눔펀드 협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교구신도회 및 신도단체 회원 1250명이 참여해 각각 5천원씩 총 625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창립기념식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자취

1955. 11. 전국신도회 창립법회
1963. 9. 불교재산관리법 의거 불교단체 등록
1967. 5. 전국불교도대표자결의대회
1968. 11. 교법수호 전국신도단체협의회 구성
1977. 11. 월간 전신회보 발간
1984.10. 국정교과서 시정촉구 결의대회
1990.10. 세계불교도 서울대회
1992. 8. 올림픽 불자선수단 환영법회
1993. 3. 사단법인 등록
1994. 11. 중앙신도회 관련 신도법 공포
1997. 3.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2002. 1. 중앙신도회 홈페이지 오픈
2004. 7. 종교화합 실현 위한 범불교도대회
2006. 4. 반갑다연우야 발대 · 불교인재원 설립
2007. 9. 중앙신도회관 기공식
2009. 9. 문화재환수기금마련 전시회
2010. 6.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창립대회
2013. 4. 행복바라미 알림식
2015.12. 24개 교구신도회 창립 완료



일 주 문



백남준 10주기 추모재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1월 29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故백남준 선생 10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포교사단 임원연수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1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6년 제9대 포교사단 운영위원 및 임원연수' 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보건복지부 승인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1월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의 사단법인 승인을 받았다.



제8기 명상학교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은 2월 15일 오후 2시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에서 '몸 알고 치유하기' 를 주제로 제8기 명상학교를 연다.



KBUF 대학생 템플스테이

박태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2월 19~21일 충주 석종사에서 '2016 KBUF 대학생 템플스테이' 를 개최한다.



공생회, 캄보디아에 2개 학교 건립

익명 불자 2억 원 기부로

지구촌공생회가 익명의 불자가 후원한 2억여 원으로 캄보디아에 2개 학교를 지었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캄보디아 따케오 주(州) 쁘레익따퍼 마을과 웃더민쩨이 주(州) 동통마을에 각각 '바라밀 초등학교' 와 '수다라 초등학교' 를 건립했다. 2개 초등학교는 익명의 불자가 BTN 회장 성우 스님을 통해 지구촌공생회 측에 후원한 학교건립기금 2억여 원으로 마련될 수 있었다. '바라밀' 과 '수다라' 란 학교명도 익명의 기부자가 지었다.

아울러 따케오 주와 따케오 주 교육청, 앙꼬레이군, 앙꼬레이군 교육청, 꼭틀러면, 쁘레익따퍼 초등학교 등은 바라밀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8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 및 기자재를 지원했다.

월주 스님은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완공된 학교인 만큼 바라밀초등학교 학생들은 자비심과 지혜가 넘치는 캄보디아의 동량이 될 것"이라고 기뻐했다.

이에 따라 바라밀 초등학교는 6개 교실을 갖추고, 추후 유치원 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지혜 성취로 문수보살 목표 삼길"

티베트현밀교학연찬회장 혜능 스님



〈성 묘길상진실명경〉 국내 최초 번역

달라이라마 친견, 티베트서 수행 정진

문수보살 도량에 초판 2000권 법공양

"부처님의 지혜 그 자체를 인격화 한 분이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에게 기도 하는 것보다 공부로 지혜를 성취하고 문수보살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울산 람림학당에서 티베트현밀교학연찬회를 이끌고 있는 혜능 스님〈사진〉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경전을 통한 올바른 수행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티베트현밀교학연찬회장 혜능 스님은 〈성 묘길상진실명경〉(2만5000원)을 국내 최초로 번역, 출간했다.

혜능 스님은 2005년 10월 달라이마라를 친견한 법연으로 다람살라에 있는 규또 밀교대학에서 수행하며 〈성 묘길상진실명경〉을 접했다. 이후 번역의 원을 세운 지 10년 만에 세상에 내보인 결과다.

〈성 묘길상진실명경〉은 티베트불교에서 수지 독송하는 경전 중 하나다. 달라이라마가 세계평화를 위해 관중 법회에서 자주 설하는 '칼라차크라탄트라' 와 함께 유일하게 불이탄트라 범주에 속하는 최고의 경전이다.

"문수신앙으로 인해 국내에는 수많은 문수암, 문수사가 있지만 문수보살에 대한 경전과 예경문, 성취법, 수행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소개된 것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은 예찬문뿐 아니라 성취문까지 모두 번역해 소개하고 있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명경의 게송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주석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 묘길상진실명경〉은 제1부 본송에서 티베트어 원문과 음사, 그리고 우리말 번역을 함께 싣고 있으며 담석영의 범본 한역과 석지의 한역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실어두었다. 2부는 역대 스승들이 찬술한 문수사리 예찬문을 모았으며 제3부에는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성취법을 다뤘다.

"밀교의 특징은 실제 수행을 바탕으로 의궤화를 합니다. 그래서 신구의(身口意)를 청정하게 할 수 있도록 문수보살님의 수인, 진언 독송, 문수보살님을 마음으로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신구의의 청정함과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얻도록 수행 정진하도록 합니다."

람림학당은 실제로 1월 10일 봉헌식과 함께 가행정진 입재를 시작해 성도절까지 매일 오전 4시 30분과 10시, 오후 7시 등 하루 세 차례 수행 정진해오고 있다. 앞으로 혜능 스님은 〈성 묘길상진실명경〉에 관한 구체적인 주석서를 내고, 대중과 함께 수행 정진할 계획이다.

혜능 스님은 해인사 율원장, 직지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도 다람살라 규또 사원(티베트불교 겔룩파 밀교대학)과 한국 람림의 마을 보리원, 그리고 영축총림 통도사 람림학당에서 역경과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혜능 스님은 전국의 문수보살과 관련한 도량에 초판 발행한 2000권을 모두 법공양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사찰림 보존 활용에 기여할 터"

제3대 한국사찰림연구소장 윤성이 동국대 교수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 제3대 소장에 윤성이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사찰림 연구기관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는 1월 19일 서울 흥천사 관음전에서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윤성이 동국대 교수를 3대 소장으로 임명했다.

윤성이 소장은 동국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환경공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미래인재개발원장, 농림부 기후변화협약대책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유기농업학회장, 동국대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성이 소장은 "불교계는 한국 전체 산림의 1%에 달하는 막대한 사찰림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제"라며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불교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2013년 창립한 산림청 등록 민간사찰림연구기관으로 창립 이후 사찰림과 사찰 주변 생태계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공사유림산림습원조사사업' 등 연구와 함께 사찰림탐방단 운영을 통해 사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정세균 "성역화 불사 일꾼 되겠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원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사진〉

자승 스님은 "종로지역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추진하는 지역인 만큼 성역화 불사 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사업' 에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종로는 조계사를 비롯한 12개의 전통사찰과 1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찰이 존재하는 곳이다. 앞으로도 조계사를 핵심 축으로 광화문, 북촌, 인사동 등을 엮는 역사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수 정비사업 등 임기내 성과를 설명한 정 의원은 "일꾼으로 불러주면 열심히 찾아가겠다"며 "10 · 27법난에 법안 발의 시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하수 정비사업을 진행하듯 성역화 불사에도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오등선원, 성역화 기금 1000만원

1월 27일 아름다운동행에 전달



학림사 오등선원(조실 대원, 조계종 원로의원)은 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아름다운동행 측에 성역화불사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학림사 주지 서봉 스님은 "학인이 예전에는 10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50명으로 줄었다. 미래의 불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불사에도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군산 성불사, 자비의 쌀 나눔

경암동 주민센터에 30포대



군산 성불사 주지 종명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은 1월 27일 군산 경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비의 쌀 30포대를 전달했다. 성불사는 지난 1984년 창건한 이래 매년 추석과 설을 앞두고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경로당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을 주민센터에 기탁해왔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신도들이 불전에 공양 올린 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자비의 쌀 외에 김 등 간단한 반찬거리도 함께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향력있는 CEO로 선정

홍욱헌 위덕대 총장, 27일 수상



위덕대 홍욱헌 총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TV조선, 조선일보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2016년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로 선정돼 1월 27일 서울힐튼호텔 2층 그랜드볼룸서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대학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탁월한 인재경영으로 대학 및 지역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CEO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김주일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 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 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까치까치 '설날' 고즈넉한 산사·박물관서 지친 마음 달래요

황금연휴 가볼만한 템플스테이·국립박물관



설맞이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어린이가 설빔을 입은 채 직접 만든 전통등을 양손에 들고 즐거워하며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음력 1월 1일, 민족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귀여운 손주들을 볼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고,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아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부푼 꿈에 잠긴다. 하지만 민족 대이동에 따른 교통정체로 받는 스트레스와 징검다리 근무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마음, 명절 음식 준비로 지친 몸은 달콤한 연휴의 즐거움을 반감시킨다. 분명 연휴인데 연달아 한숨만 짓게 되는 건 왜일까?

다가오는 명절 연휴, 올해만큼은 조금 색다른 시간을 보내보자. 특히 2016년 병신년 설은 5일간의 황금연휴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편이다. 이에 맞춰 전국 사찰에서도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간 정을 쌓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 또한 전국 국립박물관도 다양한 설 행사를 마련, 오랜만에 모인 가족친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각각 발표한 '설 맞이 특별 템플스테이'와 '12개 국립박물관 설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템플스테이

용인 백담사는 2월 7~9일 2박3일간 '우리 설 희망 템플스테이'를 연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단연 '맥놀이 명상'이다. 맥놀이 명상은 법고·운판·목어·대종 등 4가지 법구 중 하나를 골라 법구의 장엄한 진동을 느끼며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체험이다. 또 설에 맞춘 세배와 불교문화를 접목한 단청 만다라, 서원 탑돌이, 요가형 108배 습의 등 평소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불보종찰 **양산 통도사**는 6~10일 1박2일 또는 2박3일 단위로 '설맞이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천년고찰 통도사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간과 보궁 걷기, 단주 만들기, 예불, 108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자연명상을 통해 산내 암자를 순례하고 16만대장경에서 소원을 비는 기회도 마련된다.

산청 대원사는 6~10일 '새해맞이 몸생생 마음생생 템플스테이'를 연다. 촌각을 다투는 현대사회에 지친 이들을 위해 마련한 이 템플스테이는 자신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성격검사 △행복을 유예하지 않기 △명상의 이해 △그림 및 여행카드 등 행복을 찾아가는 체험이 다양하다. 이외에 강정 만들기와 국립공원 탐방 등도 진행된다.

전국 40여 사찰 설 템플스테이
불교문화·마음수행 등 다채
전국 12개 국립박물관서도
전통공연·민속놀이 등 운영

선무도로 유명한 **경주 골굴사**는 6~10일간 활동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물놀이 난타 페스티벌 △선무도 수련 △민속놀이 국궁 체험 △바닷가 명상수행 △아나빠나사띠 명상 △스님과의 차담 등 골굴사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경남 문수암도 6~10일 1박2일 이상 일정으로 설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불교문화프로그램인 △108배 △소원지 태우기 △만다라 팬던트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숲길명상 외에도 합동차례, 고구마 구워먹기, 요가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과 전국 12개 국립지방박물관에서도 설을 맞아 전통공연, 민속놀이 체험, 가족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중 불교적으로 눈길을 끌 만한 전시는 국립나주박물관의 테마사진전 '유리 건판 사진으로 본 남도사찰의 옛 모습'이다. 오는 2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20세기 초반 전남 지역 사찰 건축과 문화재를 조사하면서 촬영된 유리 건판 사진을 통해 남도 사찰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월 8일 열린마당에서 여성농악단 연희단팔산대의 '소문만복래'를 공연한다. 연희단팔산대는 2012년 여주엑스포 전통마당에서 공연한 이후 팔산대 열풍을 일으켰고, 그 해 10월 영국 템즈축제에 초청 받았으며 이태리 피렌체에서도 '세상 유일무이한 팀'이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전통놀이 체험과 버블쇼', 국립광주박물관은 '부적찍기 체험', 국립전주박물관이 '설-대보름맞이 작은문화 축전', 국립부여박물관이 '가훈 써주기' 프로그램을 각각 준비한다. 또한 국립공주박물관은 '사물놀이 체험', 국립진주박물관은 '십이지신 탁본 체험', 국립청주박물관은 '전통놀이 체험', 국립김해박물관은 '연하장 보내기와 참숯손난로 만들기',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떡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에게 제공한다.

신성민·윤호섭 기자

템플스테이 행사 일정 (가나다순)

지역	사찰명	프로그램	날짜	연락처
강원	백담사	스님과의 차담, 세배하기, 단청 만다라, 맥놀이 명상, 서원 탑돌이, 시심즉불, 요가형 108배 습의, 숲길 걷기명상	2월 7~9일	033-462-5565
	삼화사	범종타종, 새해발원 108배, 스님과의 차담, 명상, 추암해변 해맞이, 108염주꿰기	2월 7~8일	033-534-7676
경기	봉선사	예불, 단주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2월 8~10일	031-527-9969
	백련사(가평)	예불, 108배, 스님과 마음 나누기, 잣 숲길걷기, 성불도 놀이, 단주만들기/프로그램 자율 선택 가능	2월 7~10일	031-585-3853
경남	문수암	108배, 소원지소전, 만다라팬던트만들기, 설차례제사, 난로고구마구워먹기, 스님과 차담, 숲길명상, 요가	2월 6~10일	055-973-5820
	해인사	108배 참선, 팔만대장경 및 암자순례, 108 염주알 꿰기, 스님과의 차담, 전통 윷놀이, 마애불 참배 겸 산행 외, 예불, 자유시간	2월 6~8일	055-934-3110
	대원사(산청)	성격검사, 행복을 유예하지 않기, 명상의 이해, 그림 및 여행카드, 강정만들기, 국립공원 탐방 외	2월 6~10일	055-974-1112
	쌍계사(하동)	소원등 탑돌이, 설합동차례, 녹차밭걷기명상, 스님과의 차담, 단주만들기	2월 8~9일	010-6399-1901
	통도사	통도사문화재이야기, 보궁걷기, 단주만들기, 사물관람, 예불, 108배, 자연명상(암자순례, 십육만대장경에서 소원빌어보기)	2월 6~10일	055-384-7085
	용화사	예불, 용화사 2016년 단청 컬러링 달력 채색하기, 108배, 도솔암 포행	2월 8~10일	055-649-3060
	옥천사	합동차례, 예불	2월 7~10일	055-672-6296
경북	골굴사	사물놀이 난타 페스티벌, 선무도 수련 체험, 민속놀이 국궁, 바닷가 명상수행 및 걷기명상, 아나빠나사띠 명상 요가, 스님과의 차담	2월 6~10일	054-775-1689
	보경사	합동차례참석, 108배, 단주만들기, 스님과 새해희망 세배하기, 차담, 법고체험, 힐링걷기	2월 6~10일	054-262-1804
	심원사(성주)	사찰안내, 타종체험, 예불, 108배, 일출명상, 스님과의 대화(프로그램 자율 선택 가능)	2월 7~10일	054-931-6887
	자비선사	스님과 차담, 스님과 걷기명상, 자율수행(자비선명상)	2월 8~10일	054-931-8874
대구	동화사	스님과의 대화, 108염주 만들기, 숲속명상, 참선 외	2월 5~10일	053-980-7979
부산	홍법사	설맞이 타종하기, 설합동차례, 윷놀이, 힐링108배, 나의 소원지와 감사 명상하기, 떡국 나누기, 주지스님과의 차담 외	2월 6~9일	051-508-0345
서울	금선사	새해타종, 나를 깨우는 108배, 108염주 만들기, 소원연등 만들기, 소원 드림캐쳐 만들기	2월 6~10일	02-395-9955
	국제선센터	합동차례, 걷기명상, 내 마음의 부처님 만들기, 설 전통놀이, 스님과의 차담	2월 7~8일	02-2650-2213
	진관사	새해타종, 108배, 걷기명상, 스님과의 차담, 참선	2월 5~10일	02-388-7999
	화계사	사찰안내, 걷기명상, 예불, 참선, 해맞이, 나를 깨우는 108배, 사경, 소원적기, 스님과의 차담	2월 9~10일	02-900-4326
세종	영평사	사찰안내, 스님과 차담, 예불, 염주만들기, 떡국먹기, 소금만다라, 소원빌기	2월 5~10일	044-854-1854
인천	연등국제선원	새해 발원문 읽기, 솔숲&전나무숲길 산책, 동막 해수욕장 일출, 따뜻한 떡국 나누기, 윷놀이, 스님과의 차담	2월 7~9일	032-937-7033
전남	천은사	새해 부처님전 통알세배, 설 합동차례, 금강송 숲길&감로차밭 건강 걷기명상, 염주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2월 7~10일	061-781-4800
	미황사	예불, 합동차례, 참선, 다도, 윷놀이, 울력	2월 7~9일	061-533-3521
	화엄사	화엄사 스님들과 함께하는 윷놀이	2월 7~9일	061-782-7600
	선암사	스님과의 차담, 선체조 및 좌선, 편백숲 트래킹, 소원등 만들기, 명상 및 108배, 걷기 명상, 발우공양, 만다라 치유 명상, 108염주 만들기, 암자순례	2월 7~10일	061-754-6250
	백양사	예불과 범종 타종체험, 합동차례, 행복을 찾는 108배 속 108염주만들기, 스님과 마음나누기, 운문암 숲길포행, 연등만들기&사리팔층탑돌이, 부처님 그리기, 참선정진	2월 6~9일	061-392-0434
전북	내소사	새해타종체험, 108배, 단청그리기, 전나무숲걷기명상, 윷놀이	2월 7~9일	063-583-3035
	선운사	윷놀이, 108배와 염주만들기, 새해맞이 소원지 날리기, 차담, 만다라그리기, 도솔암 걷기명상	2월 6~10일	063-561-1375
	실상사	스님과의 차담, 스님들과 함께하는 윷놀이, 설날 새벽예불과 통알의식, 설날합동다례, 암자순례 외	2월 7~9일	063-636-3191
충남	마곡사	사찰안내, 범종체험, 스님과의 차담, 새벽예불과 108배(자율), 주지스님께 세배하고 덕담듣기, 합동차례, 차담, 단주만들기, 솔바람길포행, 합동차례(자율)	2월 5~6일	041-841-6226
	갑사	범종체험, 108여의주 만들기, 심주(주문) 만들기,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절하기, 소원등 만들기, 용문폭포 천진보탑 삼불봉 트래킹, 촛불명상, 범종루에 소원등 걸기, 군고구마 먹기, 윷놀이	2월 6~8일	041-857-8921
	지장정사	스님과의 차담, 새해명상, 염주만들기, 타종, 고구마·밤 구워먹기, 2016년 소원리본달기	2월 7~8일	041-732-5629
	서광사	사찰안내, 윷놀이, 새벽예불, 울력, 숲길명상, 스님과의 차담	2월 8~9일	041-664-2002
충북	영국사	예불, 소나무숲길 및 망탑봉 포행, 스님과의 차담, 명상, 나를 깨우는 108배, 나만의 108염주 만들기 외	2월 6~14일	043-743-8843
	석종사	설날 통알세배, 예불, 화엄공원 걷기명상, 스님과의 차담, 참선, 사찰안내	2월 7~10일	043-854-4505
	법주사	예불, 108배, 해맞이 산행, 새해명상, 스님과의 차담	2월 8~9일	043-544-5656

선수행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위빠간화선
선을 더 쉽게 배우는 길
한영판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되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필요없게 된다. 위빠간화선은 누구나 원하는 수행의 열매를 훨씬 쉽게 수확하게 해주는 촉매가 되어주는 것이다.
합본: 풀어옮긴 반야심경, 금강경

"간화선 수행은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지만, 상근기가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을 하면 할수록 화두가 성성해짐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화두를 놓쳤을 때 놓쳤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서 곧바로 되돌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현 스님

• 자매편: 『선을 배우는 길』 대현 지음/신국판/302쪽/값 15,000원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하고 화두를 챙기는
위빠간화선과 함께 하십시오.
대자유의 길이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선승의 길

* 대현 스님 지음 / 280쪽 / 값 12,000원

오직 수행으로만 일관하여
50안거를 성만하신 대현 스님의
수행기와 바른 참선법.

전강, 향곡, 경봉, 성철, 송담, 진제 스님 등 선지식을 뵙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공부 농사에 영양분을 공급 받았던 내력과 함께 간화선 수행자들이 범하기 쉬운 병통을 지적하고 십우도에 따라 기초공사를 다져 하루종일 화두와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길을 가리켜 보인다.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산청 정각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440-28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설 앞둔 불교계, 자비나눔행 뜨겁다

전국각지 소외계층 후원행사 이어져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한 불교계의 자비나눔행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서울 도심포교 중심도량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1월 31일 명절 설날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 80여명과 함께 설맞이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다문화가족들에게 사찰예절과 한국 설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이어 인절미 만들기와 전통한복입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만든 인절미는 국제선센터가 위치한 양천구 지역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날 당일인 2월 8일에는 실향민들을 위한 합동차례도 진행된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매년 설날과 봉축기간, 추석 등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전통문화 교육과 체험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소외계층을 돕는 중심도량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주지 지현)도 2월 4일 종로구 관내 양로원 56곳에 쌀 20kg을 전달하고 독거어르신 100명에게 오리털이불 100채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식은 입춘기도를 기해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계가 수탁운영하는 복지관에서도 자비나눔행은 활발히 펼쳐진다. 이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 1월 29일 종로구 독거어르신 200명과 도시락 서비스 이용 어르신 58명, 양로원 56곳에 에 총 1,300만원 가량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이번 나눔이 한파로 얼어붙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고, 밝고 건강한 새해를 맞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월 27~29일 '풍성한 설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관장 정관 스님(사진 왼쪽서 두번째)과 직원들이 종로 동숭경로당을 방문, 명절 선물 전달 모습.

또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대표 성운)이 2월 3일 독거어르신 및 실향민 합동차례 및 떡국나눔 등을 진행하며 쌀 20kg 100포대 등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했다.

이밖에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이사장 정여)는 1월 20일 설을 맞아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기금은 북녘 어린이에게 국수 등의 식량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 **용호복지관**도 설 당일인 2월 3일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총 400여세대가 참석하는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다.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도 1월 27일 군산 경암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자비의쌀 20kg 30포대를 전달했다. 또 대구지역에서는 **혜인정사**(주지 진송)가 1월 23일 라면 4000개를 칠곡 일대 소년소녀가장 등을 찾아 나눠 화제가 됐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둔 불자들의 개인적인 후원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 눈길을 끈다. 불교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연초부터 1월 27일까지 2015년 대비 개인후원자 수가 46.3%, 후원금은 53.5%가 증가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월 16일 1100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담은 선재의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기에 그만큼 주변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제선센터, 다문화가족 80명 초청
조계사, 독거어르신 이불 100채 전달
아름다운동행, 후원금 53.5%증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수암)도 2월 3일 본관 이용자 및 보호자 250명과 함께 대중공양 후 지역 소외계층에게 쌀 1700kg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스님(도선사 조실)이 2월 3일 현성정사 선우신도회와 함께 흥은동 독거 어르신과 실향민,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쌀 20kg 100포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서도 역시 자비나눔행은 활발하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1월 19일 부산 사상구청에 사상구 취약계층용으로 200만 원 상당에 난방유와 쌀을 전달했으며, 29일에도 부산 진구 일대서 12가구에 연탄 200장씩 총 2400장을 전달했다.

부산시남구불교연합회도 1월 20일 부산 남구청을 방문해 1300만원 상당의

자원봉사하며 겨울방학 보내자!

서울內 복지관, 방학 맞이 자원봉사프로그램 '다채'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되고 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수경)은 1월 19~21일 '2016 청소년 동계 자원봉사학교-나눔을 배우는 따뜻한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중·고등생 25명이 참여해 2박 3일 간 자원봉사 기초교육, 나눔교육, 나눔 키워드 보물찾기, 모금 게임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중림복지관 측은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자발적인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사명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도 18~19일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열었다. 성동구 인근 지역 청소년 34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식개선'을 주제로 쿠키만들기,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등 진행됐다.

옥수복지관 측은 "단순한 봉사활동, 시간 때우기 식의 봉사활동이 아닌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청소년들이 옥수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의젓하고 건강한 성장기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이 18~19일 개최한 청소년자원봉사학교에는 지역 청소년 34명이 참여했다.

노인 일자리 찾으러 광진노인복지관으로!

학교급식도우미사업 외 2분야 모집… 2월 12일 마감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이 실버세대를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활성화에 나선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익활동, 취업창업 등이다.

공익활동은 △사랑나눔복지도우미파견사업 △노노케어도우미파견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취업창업 분야는 학교급식도우미파견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보건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지참 후 2월 12일까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 (02)466-6242 **박아름 기자**

봉은사, '불교대학원' 신설

3월 11일 개강… 3월 7일 모집 마감

봉은사가 기존 교양대학을 업그레이드한 '봉은불교대학원'을 새롭게 개설한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2016년을 맞아 불교전문교육과정 봉은불교대학원을 신설하고, 불교학과·선학과 수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3월 11일이며, 수강생들은 불교 경전과 교리 중심 불교학을 비롯해 △선의 역사 및 사상 △선 어록 등 선학과 과정을 배우게 된다.

봉은사 측은 "교양대학 수준서 보다 진일보한 전문 불교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선도적인 불교학 및 선학 수강을 통해 인재양성과 참선교육을 선보일 것"이라 설명했다.

선학과 및 불교학과 모집정원은 각 40명으로, 3월 7일 모집 마감이다. 봉은사 신도등록자 중 종단 전문교육(불교대학)을 이수한 자만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3218-4821~2 **박아름 기자**

포교원,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재회'

1월 21~25일 클랑하이·던코 스쿨서 의료·교육봉사
한마음선원 후원으로 교실 2칸 증설도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바텀석사클랑하이스쿨(이하 클랑하이스쿨)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조계종 포교원이 "다시 오겠다"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조계종 포교원 어린이청소년위원회(위원장 송묵)는 1월 21~25일 캄보디아 씨엠립에 위치한 클랑하이스쿨 및 던코스쿨 2곳에서 교육·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단에는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이사 오심 스님,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과 사무국장 혜안 스님,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 등 53명이 함께했다. 특히 파라미타 청소년들과 포교사단, 불교여성개발원 등 재가불자 봉사자들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참여해 힘을 보탰다.

봉사단은 3박 5일 간 의료팀과 교육팀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신경과 김광기 교수, 한방신경과 구병수 교수 외 4명으로 꾸려진 의료팀은 양·한방 진료 및 약 처방을 실시하며,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살폈다.

한편에선 파라미타 학생들과 불교여성개발원이 주축이 된 교육팀이 학생들을 위한 사생대회를 열었다. 또한 한복 입고 사진 찍기, 한글이름 쓰기 등 문화체험장을 마련해 클랑하이스쿨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클링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한 '한마음 교실' 2채를 증설했다.

특히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클링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한 '한마음 교실'을 개설하며, 클랑하이스쿨과 시 교육위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한마음 교실'은 한마음선원 후원으로 클링하이스쿨에 증설된 2칸 교실이다. 이와 함께 클랑하이스쿨 및 시교육청은 포교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불교여성개발원, 동국대병원에도 감사장을 수여했다.

엠큰 클랑하이스쿨 교장은 "지난해 이어 한국 불자들이 우리 학교를 다시 찾아줘서 정말 감사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 역시 행복하다"고 고마워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해 8월 2~9일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서 2015 파라미타 국제교류협력 '캄보디아 의료 및 교육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당시 20여 명 봉사단이 씨엠립 내 클링하이스쿨과 르뷔아 마을을 방문해 의료·교육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각성큰스님
"종경록(宗鏡錄)" 고운사 특강

華嚴의 實敎로써 모든 經을 總攝하며 무궁무진한 圓宗을 모두 표현하여 萬法을 능히 총괄한다. 그는 곧 周邊하고 無礙하며 自存하고 융통하여 비로소 나의 마음을 나타내어 능히 宗鏡을 이루나니 마음으로써 宗을 삼는 것이 禪門의 正脉이니라.

■ 일 시 : 2016년 2월 29일(월) ~ 3월 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
■ 특 강 비 : 일십만원정 (₩100,000)
■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 저희 고운사에서는 해제 때마다 특강을 해오는 가운데

"승려연수교육에 관한령"에 의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을 받아
교육을 수료하시면 30점의 점수가
부여됩니다.



의상대사의 광대무변한 화엄의 세계로 가는 길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에서 아래와 같은 분들을 모십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화엄도량 고운사에서 화엄경의 광대무변한 세계로 가는 길을 바르게 안내하는

각성큰스님의 강의 그 화엄의 세계에 가시고자 하는 사부대중
화엄 사상의 체계적 틀을 세우고자 하는 사부대중
전통적인 화엄교학을 배우고자하는 사부대중
화엄을 통해 禪의 교학적 사상체계를 배우고자 하는 사부대중

禪敎가 일치된 조화로운 수행을 이루고자 하는 사부대중을 위해 화엄사상의 맥을 계승하고자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을 개원하고 화엄의 바다로 항해하고자 하는 사부대중을 초대합니다.

■ 지원자격 : ○상주형 학인(2년) : 기본교육기관 이수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비구 (2016년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청 강 생(2년) : 대한불교조계종 모든 비구·비구니, 타 종단 승려. 신심이 돈독한 재가불자
■ 모집인원 : 상주형 학인 ○○명, 청강생 ○○명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6년 3월 31일(목)까지. 상주형 학인은 구족계 수계산림 종료일까지 추가모집
■ 면 접 일 : 원서제출과 동시에 수시 면접
■ 면접장소 :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
■ 개 강 일 : 2016년 4월 18일(월)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대한불교조계종 승적증명서, 기본교육기관졸업증명서, 사진(3×4) 2매
※ 청강생, 재가자는 입학원서만 제출
■ 강 사 진 : 화엄승가대학원 강주 원조 각성스님 / 교육원장 화랑스님 / 학감 법준스님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장 화랑 · 운영위원장 고운사 주지 호성

문의처 | TEL 054)833-2324 (고운사 종무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 116번지) WWW.GOUNSA.NET (고운사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 다운로드 가능)

일상생활 속 좋은 습관이 곧 '戒'

서울 불광사 일요법회… '계율이란…'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

계율은 불자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규범이다. 계는 깨끗하고 착한 습관을 익혀 지키기를 맹세하는 결의를, 율은 교단의 규칙을 뜻한다. 하지만 불교가 탄생하고 2500여 년이 흐른 지금, 현대사회에의 적용을 두고 이견이 적잖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계율을 지켜야 할까?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은 1월 24일 서울 불광사 일요법회에서 '계율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선한 습관 길들이기'' 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새해를 맞아 하는 다짐도 하나의 계가 된다"며 생활 속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원영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하나노조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계종 교육아사리로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현재 BBS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좋은 아침 원영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대승계의 세계〉〈계율 꽃과 가시〉〈인생아, 웃어라〉〈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 등이 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2008년 중국 베이징에서 지낼 때의 일입니다. 그때 만난 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당시 저는 티베트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도와준 친구가 대학 4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티베트 라싸에서 베이징으로 유학을 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학습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그 친구와 함께 주로 빵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누군가가 자꾸 쳐다본다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자신이 라싸에서 온 학생이기 때문에 공안 감시가 붙어있어서 그렇답니다.

어느 날은 빵집에서 빵을 주문했는데 친구가 먹지 않더군요. 평소 빵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 "속이 안 좋다"고 둘러대더니 사연을 털어놓았어요.

친구에 따르면 라싸에서 베이징으로 1년에 2명씩 학교 선발을 거쳐 유학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베이징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 대학을 다니고, 라싸에 있는 집에 돈을 부쳐주면 가족이 그 돈으로 생활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아프답니다. 병원에 있대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니 암에 걸렸답니다. 거의 말기쯤 돼서 이제는 가망이 없대요. 심지어 부모님에게 말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아픈 친구가 자기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더군요. 라싸에 계시는 부모님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죽어가는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마음을 어떻게 하겠느냐면서요. 그러면서 나중에 죽으면 가족들에게 사고를 당했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어차피 수술비나 병원비도 없고 회복될 가망조차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 공부를 도와주는 친구가 아픈 친구와 빵을 먹고 나눠먹고 싶어서 안 먹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더 사줄 테니 먹으라고 했는데도 그건 싫답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것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공부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 빵을 싸서 돌아가는데 그 모습에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 기숙사에 가려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친구와 학교 입구에 들어서는데 경비아저씨가 어디 가느냐며 막아서더군요. 그래서 기숙사 간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건물을 지나가는데 다른 경비가 잡아 세웠습니다. 또 같은 설명을 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현관에서 또 막혔습니다. 그쯤 되니까 뿔이 나더군요. 근데 그 친구는 4년 동안 제가 겪었던 일을 매일같이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학생이 자기가 라싸에서 왔다는 걸 안다고 하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방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슬쩍 보니 2인 1실이더군요. 그렇게 복도 끝까지 걷자 제 친구의 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 모양새는 여지없는 창고였습니다. 정말 청소도구를 넣어놓을 법한 느낌이었죠. 근데 그런 방에 4명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수민족 출신끼리 말이죠. 2층 침대 사이로는 한 사람밖에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먹먹한 마음을 안고 들어갔는데 침대 옆 벽에 하얀 천이 하나 붙어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군요. 그래서 방문을 닫고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 방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감시 때문인 거죠. 눈치를 보다가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고 친구가 벽에 붙은 천을 걷었습니다. 천을 걷자 라싸에 있는 달라이라마 궁전인 포탈라궁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내 티베트 민요를 불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굉장히 구슬펐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도 눈물을 흘렸죠. 그러면서 침대 밑 조그만 서랍에서 손가락 두세 마디 크기밖에 안 되는 달라이라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얘기를 마치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밥을 해주고 싶어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 함께 먹었는데요. 제가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설거지를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설거지를 물 두 바가지만으로 끝낸 것이었습니다. 청결하지 않다는 느낌도 들었고, 물도 잘 나오는 곳이었기에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라싸에는 물이 부족하고, 지구 어딘가도 물이 부족한 곳이 많다고 말이죠. 이곳은 물이 콸콸 잘 나와도 우리가 모르는 지구촌 어딘가는 물이 부족해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중국서 알게 된 티베트 여학생
몸에 밴 소박한 습관에 '감동'
어떻게 의식하고 사는지가 중요
지계 · 보시 실천하는 불자 되길

제가 티베트 여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제 전공이 계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일상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쓰면서 다른 이들의 물 부족을 걱정하진 않죠. 저도 그 친구를 만난 이후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계율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계율이거든요.

보통 계와 율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지만 둘은 조금 다릅니다. 계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좋은 생활습관, 예를 들면 새해를 맞아 술 · 담배를 끊겠다든지 매일 108배를 하겠다든지와 같은 결심입니다. 어떻게 생활하겠다고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 율은 스님들이 주로 지키는 것입니다. 강제성이 있고 승가가 모여 살면서 어겼을 때 벌칙이 부여되는 것이죠.

생활에서 물을 아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의식하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싸에서 온 친구도 험한 인생을 살았을 테고, 저도 살면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죠. 또 누구나 살다보면 여러 시련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진솔한지 아닌지,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 마음가짐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계율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 어렵게 의미전달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불교를 알고 싶은데 어떤 책을 보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교리에 관한 책을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어려워서 못 읽겠다더군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영어로 된 불교개론서를 읽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인 언어를 써서 의미를 전달하는 게 불교를 알림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계율을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생활에 와 닿게 할 순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습관은 이런 겁니다. 하나, 계속 해보는 것이 부끄러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둘, 귀로 들으면 의심스럽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진실합니다. 셋,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좋은 이별도 노력해야 합니다. 넷, 타인의 기억은 인생을 복습할 기회입니다. 다섯, 남의 말보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 나보다 잘나가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세요. 일곱, 상처받은 나는 과거에 두고 오세요. 여덟, 서둔다고 빨리 배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홉, 사랑을 알면 인생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비심과 사랑, 지계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계율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흥청망청 살면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절제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셨을 얘기일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계와 보시를 행하면 생천(生天), 즉 하늘에 난다고 하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여인이 살짝 굳은 죽을 어렵게 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가섭존자를 보고 손가락으로 죽을 저어 공양 올리려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가락이 잘려 죽에 빠졌죠. 그럼에도 가섭존자는 그녀의 손가락만 건져내고 죽을 다 먹었습니다. 여인은 가섭존자의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인은 죽었고, 천상에 났습니다. 가섭존자에게 올린 죽 한 그릇의 공양 때문이었죠. 주는 이의 마음과 받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 저서에 썼던 내용 일부를 전해드리며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 이따금씩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타고 갑니다. 누군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한 인디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을까봐 잠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수행자로 살면서도 가끔은 나의 영혼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에 마음이 혹하기도 하고 때때로 되지 않는 일에 화내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상처받아 아파하기도 하고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가 영혼을 잃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의 긴 행렬과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그리고 지하철 입구에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아침에 방송하러 가는 길의 풍경입니다. 볼 때마다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은 깊은 산속 암자에 갔다가 소원지들이 곳곳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이 외딴곳까지 달려온 사람들의 성실함과 정성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자주 후회하고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고 자책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달려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삶에 대한 깨달음은 언제나 지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마치 꽃이 지고 난 다음 씨앗이 맺히듯이 말입니다. 씨앗이 이듬해 싹을 틔우듯 오늘 우리의 후회와 깨달음 또한 내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아쉬움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 위로를 배우고 강인함 속에서 부드러움을 배우며 나약함 속에서 용기를 배웁니다. 자신감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외로움 속에서 자유를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며 조금씩 나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야.

옛말에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자신의 소리를 잃지 않고,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桐千年老恒藏曲 梅一生寒不賣香(동천년로항장곡 매일생한불매향)]' 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오래오래 불교를 향한 믿음 가지고 신행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 (3개월 선납시 10% 할인)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 신 대 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사교과에서 활안큰스님 "석문의범" 특강이 있습니다.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6년 3월 2일 수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

불 교 예 술 대 학

◆ 교 수 : 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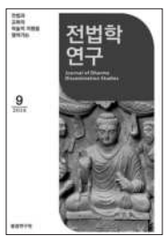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천도재의식 및 권공의식
◇원서교부 : **2016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6년 3월 3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불교 미래경영과 신행체계를 논하다

불광硏 〈전법학 연구〉 9호 발간



전법과 교화의 학술적 지평을 열고 실사구시의 불교학 정립을 위해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발간하는 학술지 〈전법학 연구〉 9호가 발간됐다.

이번 〈전법학 연구〉는 제4회 전법학술상 수상논문 3편과 '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불자의 신행론'을 주제로 한 논문 4편, '불교와 미래경영'을 주제로 한 논문이 4편 등 전법 관련 논문 11편이 수록됐다.

4회째를 맞는 전법학술상 수상 논문으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전법학 정립을 위한 연구방법론 모색'과 손석춘 건국대 교수의 '전법교화의 패러다임 전환과 제언', 김경집(진각대) 교수의 '일제하 30본산의 평양 포교' 등이다.

두 번째 특집인 '불교의 신행체계와 재가불자의 신행론'은 대승불교와 중국선종의 전통은 물론 남방불교와 티베트불교 나아가 서양불교까지 공존하는 이른바 다불교(多佛敎) 상황 속의 한국불교가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신행론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집은 '불교와 미래경영'을 다루고 있다. 이는 지난해 열린 학술연찬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록된 것으로 경영과 불교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신성민 기자

소화기함 등 방재시설 22종 디자인 개발

문화재청(나선화 청장)은 "문화재와 그 주변에 설치하는 소화기함 등 방재시설 22종의 디자인을 문화재 경관에 조화되도록 개발해 디자인 특허 출원 등록을 완료하고 일반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소화기함 · 소화전함 · 방수총함 등 22종의 현대적 방재시설이 문화재 전통경관에 어울리도록 공간성(크기), 기능성(형태), 시인성(색채), 개방성(배치), 경관성(재료) 등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했다.

특히, 디자인 출원 등록을 통해 문화재청이 디자인 재산권을 소유하고 이를 일반에 무료로 보급하여 정부3.0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신성민 기자

백용성 스님 업적 조명한 총서 발간 '눈앞'

동국대 불교학술원 · 대각회, 10월 총서 출간 예정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불교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총서가 올해 10월 발간된다. 또한 내년 8월에는 총서의 전문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근대 고승에 대한 전면적인 총서 발간과 온라인 DB화 작업은 유례가 없는 일로, 사업이 완료되면 용성 스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와 대각회는 2013년 2월부터 〈백용성 대종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에 착수했다.

근대 한국불교의 전통을 확립한 불교계 대표 고승인 백용성 스님의 사상과 유훈을 계승 · 진작하기 위해 진행된 총서 발간사업은 현재 4년째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지난해까지 자료 조사와 촬영 등은 대략 마무리됐으며, 총서 발간을 위한 출판 계약도 동국대 출판부와 마친 상황이다.

백용성 스님의 전집은 대각회에서 1991년 한 차례 발간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료를 영인(影印, 인쇄물의 원본을 사진으로 복사해 인쇄하는 일)하는 데 그쳤고, 자료의 오류도 일부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동국대와 대각회가 새로이 발간하는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스님의 저서와 사진부터 신발굴 자료까지 총망라했으며, 현대어로 해석해 활용도를 높였다.

저서 · 新발굴 자료 총망라
현대어로 해석, 20책 묶어내
2013년 시작… 4년 걸친 불사
내년 DB화 작업으로 마무리

근대 고승 총서 유례없는 일
기초 연구 자료로 가치 높아

총 20책에 달하는 총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1그룹 8책은 스님의 저서와 발굴 자료를 현대어로 해석한 것이며, 2그룹 12책은 이를 영인한 것들이다.

또한 저서를 분류해 부문별로 묶었다. 1그룹의 1책은 선사상을 주제로 〈용성선사 어록〉, 〈귀원정종〉, 〈청공원일〉, 〈수심론〉이 포함됐다. 2책은 대각사상을 주제로 〈선문촬요〉, 〈삼조만유론〉, 〈각해일륜〉, 〈임종결〉, 〈대각교 의식〉, 〈석가사〉, 〈불문입교문답〉, 〈오도의 진리〉, 〈오도는 각〉, 〈대각교중앙본부 도서목록〉이 묶였다.

3, 4책은 대승사상 Ⅰ · Ⅱ로 〈범망경 십지품 연의〉, 〈각설 범망경〉, 〈신역 대장경 금강경 강의〉, 〈신역 대장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상역과해 금강경〉, 〈수능엄경 선한연의〉, 〈조선어 능엄경〉, 〈천수경〉, 〈지장보살본원경〉 등이 담겼다. 5, 6책은 〈조선글 화엄경〉이, 7책은 신발굴자료, 8책은 총목차 및 색인으로 이뤄진다.


백용성 스님 진영. 대각사 소장본이다. 총서에는 10여 종의 진영이 모두 실린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1그룹 예정 목록

종서	주제	문헌명
1책	선사상	〈용성선사 어록〉, 〈귀원정종〉, 〈청공원일〉, 〈수심론〉
2책	대각사상	〈선문촬요〉, 〈삼조만유론〉, 〈각해일륜〉, 〈임종결〉, 〈대각교 의식〉, 〈석가사〉, 〈불문입교문답〉, 〈오도의 진리〉, 〈오도는 각〉, 〈대각교중앙본부 도서목록〉
3책	대승사상 Ⅰ	〈범망경 십지품 연의〉, 〈각설 범망경〉, 〈신역 대장경 금강경 강의〉, 〈신역 대장 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상역과해 금강경〉
4책	대승사상 Ⅱ	〈수능엄경 선한연의〉, 〈조선어 능엄경〉, 〈수능엄경 신주촬요〉, 〈금비라동자위덕경〉, 〈팔상록〉, 〈각정심관음정사 총지경〉, 〈대방광원각경〉, 〈대승기신론〉, 〈육자영감대명왕경〉, 〈천수경〉, 〈지장보살본원경〉
5책		조선글 화엄경
6책		조선글 화엄경
7책		신발굴자료
8책		총목자 및 색인

*총서 1그룹은 8책으로 원본 해석 등을 담았다. 2그룹은 12책으로 이에 대한 영인이다. 분류 주제도 동일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새롭게 발굴된 자료인 7책 신발굴자료이다. 약 400건이 새롭게 발굴됐고, 해설을 포함 100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됐다. 이중 백용성 스님의 제자 변월주 스님의 관련 문서가 흥미롭다. 백용성 스님이 친필로 작성한 1938년 해인사금강계단의 계첩인 '불계율연원'은 한국불교의 계율 전승의 전통 확립과 그 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불교선종총림 화과원, 해인사, 마하연 등에서 변월주 스님이 수행한 안거증도 근대 불교의 수행문화를 알 수 있게 하는 사료다.

이번 총서 발간 사업의 중요한 성과는 DB화를 통해 모든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는 내년 8월까지 DB화를 완료하고 '불교문화기록유산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자료로서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는 "만해 스님의 전집은 1972년에 발간됐지만 백용성 스님의 전집이나 총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중요한 근대 선지식인 용성 스님에 대한 양질의 총서가 필요했다"면서 "'용성'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모두 모았다. 이번 총서는 용성 스님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수 불교학술원 ABC사업단 DB팀장은 "이번 사업은 현 총장 보광 스님이 이끈 대각사상연구원과 근대사 연구자 김광식 교수의 학문적 인프라, 대학기구, 불교계가 서로의 역량을 최대한 협력해 이뤄낸 것"이라며 "불교학술원이 불교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보존 · 가치 확산 정책 집중"

문화재청, 1월 26일 신년 계획 발표

올해 목표 '국민공감' 설정
국외문화재 환수 추진 지속

문화재청이 올해 문화재의 적극적 보존과 선진적 문화재 정책 구현, 문화유산의 세계화 등을 통한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월 26일 발표한 올해 사업계획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 증진 및 국민공감 확산, 문화유산 전승 및 관리 강화,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참여 확대,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불교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문화유산 전승 및 관리 강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 상시점검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점 관리대상 문화재(56건)에 대한 모니터링 · 환류시스템을 강화하고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해 현장관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실적을 반영한 인센티브(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국보 등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문화재의 정기조사 법정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으며,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구축(국보 · 보물 목조문화재 27건), 문화재 재난안전 빅데이터 분석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문화재 재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침이다.

그리고 3월부터 시행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진다. 유네스코 기준에 맞추어 확대되는 무형문화재 범주(2→7개 분야)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재분류하고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3개 분과)도 새롭게 구성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개년, 2017~2021년)'에 정책방향의 큰 줄기를 담을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문화재 정책의 방향타가 될 '문화재 보존 · 관리 · 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발전역량을 다질 계획도 갖고 있다.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서는 국외문화재 환수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문화재 심층 실태조사(최대 7000여 점) 및 출처조사 확대(일본 · 미국 · 유럽), 외국경매소(220여 개소) 모니터링 강화 등 국외소재 문화재의 종합적인 조사 · 연구와 협조체계를 토대로 우호적인 문화재 환수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경주 인왕동 사지 '사적' 승격된다

문화재청 28일 지정


사적으로 승격된 경주 인왕동 사지 전경.

경북 문화재 자료였던 경주 인용사지가 국가 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북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경주 인용사지(慶州 仁容寺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240호)'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慶州 仁旺洞 寺址)'로 지정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경주 인왕동 사지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 김인문의 원찰(願刹)인 인용사(仁容寺) 터로 추정되어 1991년에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경주 인용사지'로 지정되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인왕동 사지는 중문 · 쌍탑 · 금당 · 강당 · 회랑을 기본으로 하는 신라의 전형적 가람배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른 신라 사찰과 비교되는 독특한 건축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중문 자리에는 유례가 드문 '아(亞)'자형 건물지가 있고, 쌍탑은 여느 사찰과 달리 금당의 좌우 측면 남북축선 안쪽에 위치한다.

또한, 백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와축기단(瓦築基壇, 기와를 쌓아 만든 기단)을 구축됐다.

문화재청은 "향후 경상북도, 경주시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인왕동 사지'를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 ·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출강 및 통신 2016학년도 제25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 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 25년의 법사 교육에 전통과 신뢰는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에 또 하나의 자랑과 긍지입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 불학연구원과정(5년) · 불교석학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원 보궐 선거 공고

①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
경북 1 / 전남광주 2 / 제주 1 / 대전충남 2 / 울산 1 / 전북 1 / 경북북부 1
② 교구 선거위원회 구성 ■ 2016. 2. 3 – 2016. 2. 18
교구 종무원장이 교구 선거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③ 종회의원 입후보 신고 ■ 2016. 2. 18 – 2016 .2. 26
◇ 구비서류 : 종회의원 입후보자는 종도의 각 교구소속별로 각기 5인 이상의 유권자 추천서와 승적증명이력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당해 선거위원회에 입후보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종회의원 전형(교구) ■ 2016. 2. 26 – 2016. 3. 3
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로의 전형결과 보고
각 교구선거 위원장은 선거결과를 각기 본인에게 통보하고 다음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본인이력서, 주민 등록 등본(반명함판 사진첨부)
◇ 본인의 취임 승락서
◇ 전형 조서 ■ 2016. 3. 7 까지
⑥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적부 판정 ■ 2016. 3. 12
⑦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당선확정 공고 ■ 2016. 3. 14

대한불교 원효종 선거 관리 위원장 석 불
선거관리위원 : 춘명 정운 현수 무공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서라벌 대로 322-10 전화 054)743-0700 / 팩스 054)741-9002

35년 역량 모아 청년 불교 중심으로 '우뚝'

대우불청, 1월 28일 창립기념법회 봉행

경남 청년 포교의 기둥 역할을 담당해 온 (사)대한불청 대우불교청년회(회장 이정덕 · 이하 대우불청)가 35주년을 맞았다.

대우불청은 3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청년 포교와 수행 그리고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재발심의 한해로 나아 갈 것을 다짐했다.

1월 28일 거제불교회관 설법전에서 진행된 35주년 창립기념법회에는 직장을 마치고 들어온 재가 불자들로 가득 찼다. 매주 수요일마다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우불청의 정기법회 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별히 창립을 기념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청년 불자들의 발걸음은 늦은 시간에도 끝없이 이어졌다.

1부 기념식 및 법회는 청년회 최은화 부회장의 발원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청정한 마음, 깨어 있는 청년이 될 것을 발원하는 낭독에 이어 대우불청은 공로상 및 표창장 시상과 장학금 전달식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그간의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은 최은화, 변영희 씨와 공로상은 이복순 씨가 각각 받았다. 이어 장학생을 선발해 매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대불청은 창립을 기념하는 특별장학금을 마련해 해성고등학교 이로운 학생에게 전달했다.

이정덕 대우불청 회장은 "청년회 35년의 역사는 법우님들의 도움과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의 헌신, 지역 대덕 스님과 지역불자들의 후원으로 가능했다"며 "지금에 안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하고 재 발심의 원력으로 나아가며 봉사활동과 수행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수행 · 화합의 공동체 발원
청년회원 300여 명 참석
무료급식 등 봉사 이어가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 중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불교 포교를 위한 여러 과제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만성 거제재가불자연합회장도 "경남 불심을 지켜온 대우불교청년들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남 대표 재가불자 청년회인 대우불교청년회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1월 28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마가 스님의 특별법석이 이어졌다. '내 마음 바로 보기'란 주제로 법문한 마가 스님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불법승 삼보를 의지처로 삼아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과 사랑으로 복을 지어 더욱 행복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대우불청은 경남 재가 불자의 중심지로 활동 해왔다. 경남 봉축 행사를 주관해 모든 장엄물을 직접 제작하고 봉축의 기쁨을 알렸다. 또한 장학금 전달, 무료급식, 헌혈 운동, 지역민을 위한 경로 잔치, 농촌 돕기 봉사활동, 염주 달아주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포교에 앞장섰다.

매주 수요일 스님을 초청해 정기 법회을 진행하고 경전 공부와 시민들을 위한 법회도 봉행했다. 어린이 법회, 군부대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가운데 출가를 한 스님이 13명에 이를 정도로 불심이 깊은 경남 대표 청년회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 법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제불교회관은 1982년 불교회관건립기금 마련으로 시작해 1996년 공사를 마무리 했다.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정성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정덕 회장은 "거제불교회관을 경전공부와 지역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나눔 · 화합으로 함께하는 경상 불교계

부산 · 경북 · 대구 불교계 단체 신년하례 잇달아

2016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으로 한해를 열고 나눔으로 출발을 장식하는 뜻 깊은 자리들이 잇달아 개최됐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만초)는 1월 27일 롯데호텔에서 울산 발전과 시민 안녕을 기원하는 '울산불교신년하례'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문 월파 · 대원 · 금봉 스님, 자문 경봉 · 덕진 스님 및 종단연합회 회장 만초 스님, 통도사 총무 도문 스님, 김복광 울산불교신도회장, 김기현 울산시장, 정갑윤 국회부의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2016년 신년하례에서 사부대중은 원로 스님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부산 실업인들도 모여 2016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는 1월 22일 부산불교실업인회 묘광선원에서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100여명의 불자 실업인회가 모인 가운데 BBS '부자양성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하는 우승택 에스티생테크 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와 금강자비회(이사장 홍고불심)는 신년을 맞아 나눔으로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울산불교연합회 회원들이 1월 27일 신년하례에서 원로 스님에게 세배를 올리고 있다.

2월 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창원불교연합이 개최한 '제26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모범청소년 고교생,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무의탁 독거노인 및 시각 장애인까지 100여명을 초청해 성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

대구 지역 종교인들도 신년하례를 열고 종교간 화합을 다짐했다. 대구종교인평화회의는 1월 26일 대구 YMCA 3층에서 종교인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천주교 대구대교구 등 6개 종교지도자들이 새해를 맞아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23일 대구교육청 강단서

연등장학재단 제11회 장학금 전달식이 1월 23일 대구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렸다.

조계종 팔공산 제2석굴암(주지 법등)에서 주관한 대구경북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에는 대중스님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자는 경주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선호스님 외 대학생 14명(스님 6명)에게 각 1백만원과 고등학생 25명에게 50만원씩으로 이날 3200만원이 전달됐다. 그간 수혜자는 총 504명으로 3억9485만원이 지급됐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법등 스님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작불사"라면서 "장학생들은 세상다운 세상을 만들어 훗날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자비의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불교 복지, 직영 체제 확대해야"

윤기혁 사무총장, 28일 시민문화 발전 심포지엄서

부산불교 복지관 75% '위탁'
지역 편중도 심해 분배 필요
지역 불교 복지계 연대해야

"최근 불교계에서 운영하던 진주 장애인 위탁 시설이 타 종교 기관에 넘어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찰 내 유휴토지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직영 복지시설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직영으로 운영하면 재위탁 여부에 대한 부담도 감소하며 복지를 통한 포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부산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대부분 위탁 형식이며, 불교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직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종교사회학회와 동양사회사상학회, 지속가능공동체포럼은 1월 28~29일 부산 동명대에서 '종교시민단체와 한국적 시민문화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8일 발제자로 나선 윤기혁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은 복지 시설 직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의 '부산불교계 복지시설의 현황과 실태' 주제 발표에 따르면 부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 시설 101개 가운데 74개소(75.6%)가 위탁이며 24개소(24.5%)만 직영 시설이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불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사상을 담은 사업을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영 시설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불교계의 복지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실제 1999년 부산불교사회복지관협회의 출범으로 15개소에 불과했던 복지 시설이 10년 동안 57개소로 4배로 증가했으며, 15년 뒤에는 7배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부산이 한국 불교의 중심이라고 한다. 현재 2015년 12월 기준으로 부산에는 26개의 종단과 2000여개의 사찰이 있지만 복지 시설은 그에 비해 참여도가 저조하다"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복지 연합으로 활동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역적으로 편중 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고루 분배 할 것과 가족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과제로 꼽았다.

심포지엄은 '종교와 사회복지와의 만남', '종교와 시민사회복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민사회와 종교', '다종교사회의 특수성과 한국 시민 문화(현장답사 및 토론)' 다양한 주제로 이어졌다.

발표는 윤기혁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정승안 교수(동명대 자율전공학부), 김미경 교수(광주대), 이명호 교수(한양대) 등 여러 전문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성미 기자

"중생 보듬는 수행자가 되세요"

청암사, 23일 승가대학 · 율학대학원 졸업식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 청암사는 승가대학과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식을 1월 23일 경내 자양전에서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청암사승가대학장 지형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천해사 주지 성준 스님, 서정하 김천시 자치행정국장, 이명기 시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8명과 승가대학 7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졸업식에서는 율학승가대학원 명성 스님과 승가대학 졸업생 능혜 스님이 조계종 교육원장상을, 성효 스님이 학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학장 지형 스님은 "불교의 깨달음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과 해탈 열반에만 멈춰져 있지않고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 더 나아가 그들의 해탈 열반을 향해있다"며 "수행과 포교를 위해 신심 전력하고 중생 향한 자비심을 발현해 진정한 이 시대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주지 상덕 스님도 "청암사승가대학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수행과 전법교화에 전력하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암사는 승가대학과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식을 1월 23일 경내 자양전에서 개최했다.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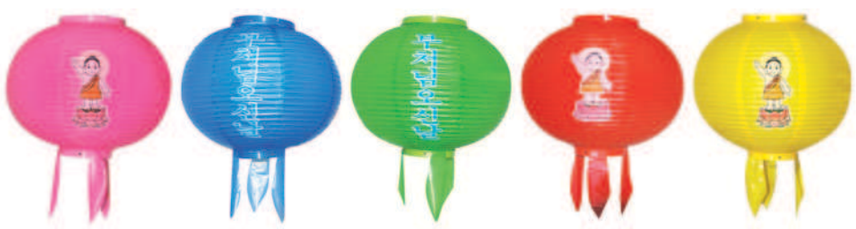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고창 선운사는 1월 28일 지장보궁에서 불기2560년 교구종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재정투명화로 수행공동체 만들 것”

선운사 교구종회 및 운기 스님 추모제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28일 지장보궁에서 불기2560년 교구종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종무보고 및 종무계획, 선운사 불사계획과 사업계획 등의 안을 결의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본말사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포교에 대한 뚜렷한 비전 공유를 통해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승려복지사업의 확대, 불교회관 건립 재정확보, 승가교육 · 포교 · 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사업 진행, 승가 다비장 시설 건립 등 기타 교구발전 사업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종무행정 우수사찰에는 좋은절(주지 법경), 포교우수사찰 정읍 성불암(주지 상운), 불사 우수사찰 임실 상이암(주지 성효)이 선정됐다.

한편 선운사는 교구종회에 앞서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성원당 운기 스님의 25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제에는 내장사 대우 스님을 비롯한 운기 스님 문도들과 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석전 영호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과 호남 불교중흥에 이바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탑사 신비의 ‘역 고드름’

기도객 정한수에 10~20cm 크기로

최근 전북지방에 폭설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 곳곳에 수정같이 맑은 역 고드름이 모습을 드러내 화제다.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에 따르면 역 고드름은 1월 23일경부터 정한수 2곳에서 10cm와 20cm 크기의 역 고드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통 역 고드름은 폐광이나 동굴 천장에서 녹아내린 물이 바닥에 얼어붙으면서 생기지만 이곳 마이산 탑사의 역 고드름은 기도객들이 떠 놓은 물그릇에서 생겨 신비감 더하고 있다.

탑사의 역 고드름은 그릇 안의 가장자리부터 얼면서 물의 부피가 커져 덜 얼어붙은 가운데 부분으로 물이 밀려나와 위로 솟는 현상이다. 얼음이 아직 얼지 못한 중앙의 작은 구멍 수면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수증기 입자들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수증기들이 얼음 가장자리에 달라붙어서 얼음기둥을 키워가게 된다. 보통은


탑사 정한수에 생긴 역 고드름.

10~20cm정도지만 큰 것은 30cm에 이르기도 한다.

마이산 탑사에는 때마침 내린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마이산의 설경과 역 고드름을 보려는 탐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젠 좌복보다 의자가 법회 보기 편해요”

전북 신행문화 입식 변화 ‘눈길’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불자들의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찰이 많은 농촌은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사찰이 우리나라 전통생활방식인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전환을 모색, 신도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고 있다.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와 군산 은적사(주지 석초)는 최근 법당에 좌복을 대신해 입식의자를 설치, 좌식에 익숙한 불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

이들 사찰은 여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고 책이나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달려있는 일명 ‘예배의자’를 설치했다. 보통 관절염 등으로 다리가 많이 불편한 노인불자들을 위해 법당에 의자를 몇 개 가져다 놓는 일은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법당에 입식의자를 설치한 경우은 드물다.

김제 청운사는 지난해 가을부터 무량광전에 입식생활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예배용 의자 30여개를 들여놓았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고령의 불자들이 장시간 바닥에 무릎을 접고 앉아야 하는 환경이 부담스러울 거란 생각에서다.

주지 도원 스님은 “젊은이들은 이미 의자와 침대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법당에 앉아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한다”며 “젊은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절에 다닌 노보살님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등을 기댈 수 있고 다

법당에 의자 설치해 편의 확대
청년 · 노인불자 배려 돋보여
신도들 긍정적 반응 나타내
재의식 · 수행공간 별도 마련

리도 편한 의자에 앉아 법회를 보고 참배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신도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주에 사는 태기준 불자는 “불교에는 획기적인 일이다. 법회에 참석해서 좌식으로 앉아있다 보면 다리도 저리고 많이 불편했는데 의자에 앉아 법회를 보니 그런 불편한 점이 없어졌다”며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획기적인 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제 청운사 무량광전 내부전경. 흔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입식의자들이 설치돼 신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청운사는 불자들의 대표적인 수행방법인 절 수행을 위해 별도의 수행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도원 스님은 “절을 하는 불자들과 재의식을 봉행하는 전각은 별도로 마련돼 있다”며 “개신교회도 처음에는 마루에서 출발했지만 의자를 놓음으로 신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다. 이제는 불교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힌편 군산 은적사는 극락전을 신축하면서 마룻바닥을 없애고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줬다. 불자들의 참배나 절 수행은 주 전각인 대웅전을 이용하고 강의나 법문은 극락전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극락전은 강의실, 법회, 합창 연습 등 일반적으로 신도 신행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고 신도의 입장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전북 사찰들의 작은 배려가 전북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 난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백지화 상태

광주 무등산 원효사 주변 상가 등 집단시설지구 이전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로운 후보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으로 한차례 무산된 데다 광주호 주변 개발과 연계해 새롭게 추진되면서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1월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4년 7월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시 · 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북구 충효동 취가정(醉歌亭) 일원으로 확정했다.

새 이주단지(4만7000㎡)에는 가구당 330㎡ 규모를 기준으로 상업시설 1만2540㎡, 주차장 등 공공시설 1만3155㎡, 녹지 2만1305㎡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는 이주민 보상비와 단지 조성비, 철거 및 복원비 등 23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새 이주 예정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백지화됐다.

무등산 원효사 지구는 시민들이 무등산을 찾을 때 증심사 지구와 함께 대표

시민들 많이 찾는 산행명소
낡은 상가에 경관 훼손 지적
TF 운영 거쳐 이전 사업 추진

적으로 산행을 하는 명소이다. 앞서 증심사 지구는 지난 2008년 집단시설 이주와 정비사업이 완료됐다.

광주시는 최근 무등산에 위치한 광주호 주변 생태타운 조성사업 전담팀(TF)를 구성하고 이주단지를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광주호 주변의 역사, 자연환경을 살려 이주단지 말고도 한옥마을 조성, 생태탐방체험관 등과 연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발 370m 지점에 위치한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는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 계곡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전부터 형성돼 오면서 낡은 상가 39가구의 식당이 밀집해 있어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TF 운영을 거쳐 이전후보지 등이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는 등 집단시설 지구 이전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등산은 광주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처로 증심사, 원효사, 약사암 등 전통사찰을 비롯해 100여 개의 사찰이 운집한 광주 불교계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거사 바라밀봉사단 미얀마 고아원 후원

광주 성거사 바라밀봉사단(대표 혜공)은 최근 빛고을나눔나무와 공동으로 미얀마 양곤 외곽의 아유디가 사원 고아원 초등학교에 교육기자재(4000달러 상당)를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혜공 스님, 아리야 오운따 스님(아유디가 사원 내 초등학교장), 광주 성거사 · 영천 죽림사 · 제주 동곡선원 신도로 구성된 봉사단원 등 13명이 동참한 협약식에서 양측은 1대1 양부모 맺어주기 및 지원사업, 학교시설 및 어린이들의 건강과 학습에 도움되는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상호교류 년 1회 이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바라밀봉사단은 2013년부터 3년째 미얀마 학교를 방문해 도서관 건립, 학용품 지원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등속지 백색 1묶음
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


한지 칼라등지
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



PVC등표(100매)
내지 12,000원
접게부착 20,000원
• 크기 : 8.5cm×21cm


봉축연꽃리본(100개)
일 반 18,000원
고 급 27,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3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 바림·공단등(6cm)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90,000원 (1개이상)
• 황 금 등(6cm) @2,700원 (60개이상)
• 황 금 등(8cm) @3,300원 (30개이상)
• 황 금 등(10.5cm) @6,500원 (16개이상)
• 황 금 등(13cm)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비단접등(10.5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 종류 :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中 선택.
• 하단부분은 생 ·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 : 356-0976-5320-43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앎과 분별이 근본진리 탐구에는 장애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㉞ 불교와 도교의 일맥상통 – 오장관의 일화에서



그림 · 최주현

앞에서 이야기한 오장관의 진원대선과 인삼과는 도교적인 바탕 위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진원대선(鎭元大仙)의 정체부터 벗겨보기로 하죠.

진원대선이라는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근본, 시원을 누른다는 뜻이네요. 단순히 누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안정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 같군요. 그러니까 근원을 흔들림 없게 안정시키는 큰 신선이란 뜻을 가진 신선이지요. 그리고 그 분의 전공분야가 아주 독특합니다. 하늘 세계에 가서 혼원도과(混元道果)를 강의한다네요,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근원'의 도에 대해서 강의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공분야가 시원, 근본에 관한 이야기인거죠. 그리고 그 근본은 사물들이 또렷하게 나눠지기 이전의 존재이고, 그래서 뒤섞이고 흐릿한 것으로 묘사되네요. 도교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노자의 사상을 살펴보면 분명 도는 모든 것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통나무와 같은 것으로 묘사되지요. 또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잡으려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또렷하게 아는 것이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도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통나무가 쪼개져서 여러 가지의 그릇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근원에서 벗어나고 어그러진 상태에 있으면서 본래의 전체성을 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냐구요?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전체를 잊고 부분에 매달려 이것이 옳으네, 저것이 좋네... 하며 털끝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냐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근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참된 생명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은 잘 사는 길을 찾는다고 애를 쓰는 것이 점차로 참된 생명의 진실한 모습을 등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노자는 "도를 하면 나날이 (앎이) 줄어들고, 학문을 하면 나날이 (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순히 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성을 해침으로써 생명의 근원과도 멀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핀잔하시듯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너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참, 저의 어머니는 정말 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식의 박학함을 그리도 잘 알아주신 우리 어머니! 갑자기 그립습니다.

이크~ 또 이야기가 딴 데로 헤맸군요. 원래 이야기는 아는 것이 많으면 분별이 많고, 그렇게 되면 욕구도 다양해지고 세분화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맛을 분별하는 것도 원래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명의 요구를 반영하던 것이었는데, 점차로 맛의 추구가 하나의 독립된 영역이 되고 말면 생명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나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극단적인 예가 인공 조미료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 조미료, 영문 약자로 MSG라 하던가요? MSG라 하면 펄쩍 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인체에 큰 해를 끼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MSG 자체의 해로움보다는 그것이 주는 맛감각의 혼란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치면 다 맛이 비슷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맛감각과 생명의 욕구 사이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입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찾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맛 자체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여, 결국 자연성에서 멀어지고, 본래적인 생명의 욕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만들어 낸 대표적 예정 가격 바로 이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적인 예로 인공 조미료를 들어 보았습니다만, 우리 현실을 잘 살펴보면 그러한 예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생명을 위하여 필요하던 것이 결국 우리 생명을 해치는 것들이 된 예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자연성을 벗어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이 본래의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노자로부터 시작하는 도가(道家)의 사상은 도교(道敎)로 이어지고, 본래적인 자연성을 회복하자는 가르침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다보면 본래적인 근원으로의 회귀라는 경향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본래적인 근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신격화하거나 상징화하게 됩니다. 도교의 최고 신이라 할 수 있는 원시천존(元始天尊)도 그러한 예가운데 하나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진원대선과 혼원의 도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근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물들이 나누어져 나오기 이전의, 모든 것이 뒤섞인 근본을 지키는 도를 수행하여 신선이 된 분이 바로 진원대선이겠죠. 참된 근본, 모든 것이 뒤섞여 또렷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근본이야 말로 참된 생명이라 할 수 있거든요. 노자의 후배 격이라 할 수 있는 장자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남쪽 바다의 임금을 숙( )이라 하고, 북쪽 바다의 임금을 홀(忽)이라 하고, 그 중앙의 임금을 혼돈(混沌)이라 하였답니다. 숙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은 그 때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덕을 갚을 길이 없을까 의논했습니다.

"사람에겐 모두 일곱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오직 혼돈에게만 이런 구멍이 없으니 구멍을 뚫어 줍시다" 했습니다. 하루 한 구멍씩 뚫어 주었는데, 이레가 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답니다.

전체를 잊고 부분에 매달리는 중생
노자 '도를 하면 앎 줄어든다' 표현
가벼운일을 잘 참아내는 수양부터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짐작 가시지요? 혼돈이야말로 근원적인 생명에 해당할 것 같지요? 그것에 감각과 분별이 생기게 만들어주니 오히려 그것이 죽고 말았다. 바로 앎과 분별이 근본적인 생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화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원대선이라는 신선은 그러한 근본적인 생명, 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지켜나가는 신선이고, 그분이 주인으로 있는 오장관은 참 생명의 힘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겠습니다. 그 참 생명과 연결된 신비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삼과이겠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참된 생명의 힘이 응축된 인삼과 하나를 먹으면 무려 4만 7천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그것의 힘이 맺힌 정수가 바로 인삼과 아닙니까! 냄새만 맡아도 360년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장관 아니면 없어요!

그런데 이 인삼과, 절세의 영약이라 할 수 있는 인삼과의 모양이 또한 비범합니다. 사흘도 안된 어린아이 모습이라네요. 좀 너무 비범해서 보통 사람은 좀 먹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전혀 그럴 일 없을 것 같지만요. 한국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냐구요? 딴 건 몰라도 몇가지 측면에선 분명 정상이나 보통에서 벗어납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거 먹는 데서는, 좀 더 세분해서 말하자면 남자분들 정력에 좋다는 거 찾아 먹는 데는, 여자 분들 이뻐진다는 거 찾아 먹는 데서는 절대 보통 내지 정상이 아닙니다요! 사흘도 안 된 어린아이 모습에 걸리기보다는 제가 말한 대로 비범하다 생각하여 오히려 더 미칠 듯 달려들으시는 분들 많은 것 같네요. 특히 아까부터 침 흘리는 것 참지 못하고 계신 나칠계씨 같은 분은!

현장법사는 지극히 보통이고 정상적인 분입니다. 어찌 보면 참된 보물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손님 대접으로 내어 놓은 인삼과에 펄쩍 뛰지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보물은 도관을 지키던 청풍, 명월 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네요. 물각유주(物各有主)라, 물건마다 각각 주인이 따로 있다던가요? 그런데 먹을 거에는 귀가 밝은 저팔계가 이 사실을 알아 버리고, 여차저차하여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이야기, 앞에서 이미 말했지요? 정말 조그만 일로 말미암아 대형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중간 이야기를 보면 훔쳐 먹은 거 발각되고, 청풍 명월 두 도사가 말을 좀 심하게 하고, 처음에 잘못 따서 흙 속으로 들어간 인삼과까지 합해서 네가 도둑질 했다고 몰아붙이고, 세 개만 먹었는데 덤터기 씌운다고 성내고, 이렇게 말이 오가다 더더욱 감정을 상하고, 그래서 손오공이 술법을 써서 인삼과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이야기 전개지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전개가 거의 모든 대형 사건의 배경에 깔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든지 하는 끔찍한 사건을 살펴보면 대개는 '너'니 '내'니 하면서, "왜 반말하냐?" 어쩌구 하는 하찮은 일에서 맘을 상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그만 것을 더 참기 힘들고, 그것이 증폭되어 큰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을 참기는 쉽고, 가려움을 참기는 힘들다"는 말도 있습니다. 가려움과 같은 가벼운 일을 잘 참아내는 수양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참을 인(忍)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때 참아야 하는 것이 꼭 큰일인 경우보다 작은 일인 경우가 많지요. 자그만 일에 발끈하는 것을 참는 수양, 그것이 참는 수양의 출발점입니다.

서유기의 저자 오승은은 여기서 가벼운 파자풀이의 여흥을 보여주고 있네요, 마음 위의 칼을 갖지 못하고, 마디 옆에 그리고를 기억하지 못하여 큰 사고를 낸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마음 위의 칼이라는 것은 바로 참을 인(忍)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자가 아래는 마음 심(心)이고 위는 칼날 인(刃)자 이지요. 그러니까 참을 인(忍)자는 刃 + 心입니다. 그것을 파자(破字; 글자를 분석해서 봄)해서 풀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마디 옆에 그리고'라는 것은 바로 참을 내(耐)자를 파자한 것입니다. 참을 내(耐)자는 이(而) + 촌(寸) 이지요? 그리고 이(而)자는 접속사로써 '그리고'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촌(寸)자가 '마디'라는 뜻을 가진 것은 다 아는 사실. 그러니까 오승은 은 사람들이 인내(忍耐)라는 두 글자를 몰라서 엄청난 사건을 만든다는 것을 파자풀이라는 장난스런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에 콕 박히기는 하겠지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도 콕!

그러나 저러나 큰 일 났네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그 귀한 나무를 뿌리째 뽑아 버렸으니, 이일을 장차 어찌할거나!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보기로 하지요.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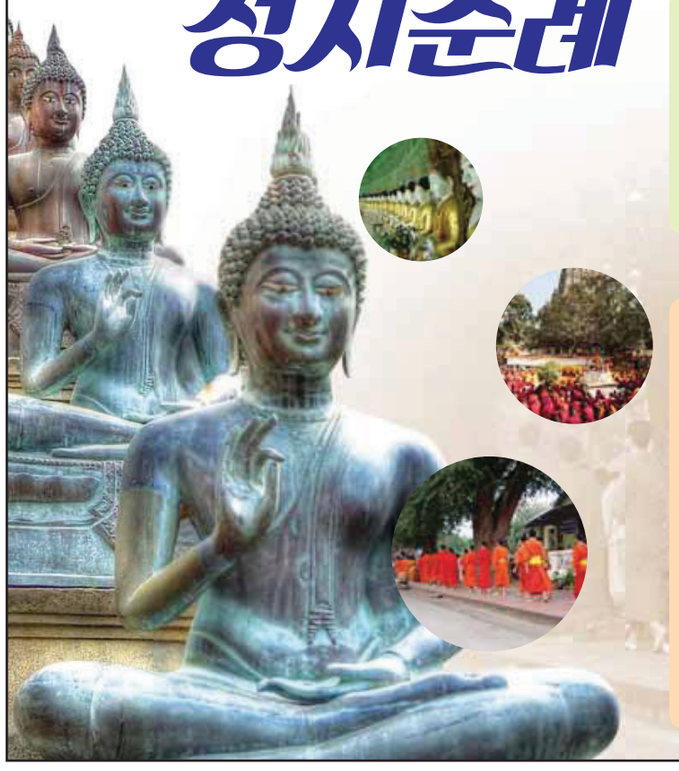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출발 확정 상품

인 도	11일	요금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8일	요금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금문의
미 얀 마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요금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Myanmar

선물 선탑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볼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隨處作主의 전나무, 늘 푸른 심검

〈수처작주〉

그 절집의 빛

③ 진안 천황사 전나무와 현산스님

진안고원의 천연기념물 전나무

천황사(天皇寺)는 진안고원에 있다. 예로부터 무주, 진안, 장수를 일러 산 첩첩 물 겹겹의 '무진장'으로 불렀다.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과 서쪽으로 뻗어내리는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진안은 고원지대다. 진안고원은 해발고도 300~500m로 전북지역의 지붕 역할을 한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이니 금강, 섬진강, 만경강 등이 여기에서 물길을 열어 삶과 인문의 강물을 펼친다.

천황사는 꽃잎 속 암술처럼 진안고원의 첩첩산산 속에 깃들어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천황사의 상징적 빛은 전나무의 변함없는 푸르름이다. 우리나라 전나무 중에서 2008년 6월에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나무가 천황사에 있다. 전나무는 소나무과 늘푸른 바늘잎나무다. 일직선으로 곧게 자라 수직의 삼엄함을 갖춘 나무다. 백두산을 비롯한 고산지대에서 원시림을 이루던 우리나라 토종이다. 가지에 상처가 났을 때 흰 유액이 나온다고 하여 '젖나무'로도 부른다.

그런데 전나무는 천근성(淺根性) 수종이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태풍이나 강풍에 취약하다는 말이다.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키 큰 나무의 지향에는 결정적인 자기한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천근성의 편백나무나 측백, 전나무 등은 같은 수종끼리 식수해서 더불어 숲을 이뤄 자연환경을 이겨내도록 숲을 조성한다.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로 회자되는 오대산 월정사, 능가산 내소사, 남양주 광릉수목원 전나무 숲길도 그에 비롯된 백 년 안목의 산물이다. 반면에 독립적으로 수 백년동안 자라온 전나무는 흔하지 않다. 특히 태풍의 길목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독립수로 수 백년 된 전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경이로운 사태에 가깝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나무는 세 그루다. 함양 금대암 전나무와 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그리고 진안 천황사 남암(南庵)의 전나무다. 금대암 전나무와 천황사 남암의 전나무는 '누가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되었는가'를 두고 쌍벽을 겨룬다. 그 세 그루 외에 화순 만연사 전나무, 태백 조탄동 전나무, 김천 대야리 전나무, 순천 선암사 삼인당 전나무 등도 생명 문화재급의 위용을 갖추고 있다.

오래된 전나무 숲을 살펴보면 하나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전통사찰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수직으로 곧게 자라는 전나무의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인다. 즉 사찰 불전건물을 중수하거나 새로 지을 때 기둥이나 도리 등으로 사용할 목재 수급용에 일차적 목표가 엿보인다. 내소사, 월정사, 청도 운문사, 금산 보석사 등의 전나무 숲길에서 그 뜻이 읽혀진다.

사찰수호 천왕목으로서의 전나무

하지만 천황사 남암을 비롯해서 천황사 일대의 전나무는 다른 뜻으로 다가온다. 우선 남암이 단출한 오두막 같은 오막살이 수행처에 지나지 않아 기둥 개념의 목재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식수된 자리도 금대암의 전나무가 지리산 천왕봉을 마주보고 있듯이, 구봉산 능선을 아우르는 대단한 조망권을 가진 자리다. 천황사 일대에서 띄엄띄엄 눈에 확 들어오는 전나무들을 보면 그 뜻이 보인다. 중창주 부도에, 사찰 입구에, 대웅전 뜨락 담장가에, 그리고 허름한 남암의 비탈에 한 두 그루씩 서있다. 다름아닌 사찰의 수호목으로, 천왕목으로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것이다. 서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세상의 중심이 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의 나무다. 수령 400년, 높이 32m, 가슴높이 둘레 4.9m에 이르는 당당한 위용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흐른다. 수직의 기둥이 직립한 사천왕처럼 확고부동하고 삼엄하다. 수처작주로 번뇌의 근원을 자르는 반야의 심검을 벼리는 듯한 기세다. 수 백 년 동안 침묵 속에서 흔들림 없이 벼려 온 구도의 외길이 천 길 낭떠러지다. 천황사가 지닌 늘 푸른 심검의 빛이다.



태풍에 우듬지가 부러진 대웅전 뜨락 담장가의 전나무. 온전하다면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전나무일 것이다.

산 첩첩 물 겹겹의 진안고원의 고찰
구봉산 능선 아우르는 조망권의 전나무
아미타경에 나오는 정토세계 따로 없어
따뜻한 밥 한 끼 공양올리는 좋은 사람



현산 스님(왼쪽)과 법운 스님(오른쪽). 현산 스님은 사찰음식의 숨은 실력자이다. 법운 스님은 행자승으로 서울서 함께 내려와 지난해 사미니계를 받았다.

천황사에는 천연기념물급의 전나무가 한 그루 더 있다. 대웅전 뜨락의 담장가에 바투 붙어있는 전나무가 그 나무다. 표지석의 설명문에는 수령 800년, 높이 35m, 가슴높이 둘레 5.1m로 기록하고 있어 남암의 전나무보다도 오히려 더 큰 위용을 갖췄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 나무 상층 우듬지 부분은 부러져 나가고 지금은 밑동인 둥치만 남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부러진 상처 그대로의 몸으로 살아있는 화석이 되었다. 천황사 모퉁이에서 고전처럼 빛나는 생명문화재이다.

현산스님과 화목한 수행공동체

천황사의 전나무는 확고부동한 심검의 빛이다. 그런데 천황사엔 오직 한 길을 가는 부드러운 빛이 있다. 그 빛은 한 비구니의 빛이고, 동시에 스님과 보살들이 일궈온 화목한 수행공동체의 빛이다. 그 중심엔 현산스님이 계신다. 언제 찾아가도 도량엔 웃음이 넘치고 자상함과 화목함이 강물처럼 흐른다.

현산스님과 보살님들의 인연은 비구니계를 대표하는 어른이셨던 광우스님의 그늘에서 맺어졌다. 현산스님은 서울 정각사에서 20년동안 광우스님을 모셨다. 서울에서 진안으로 함께 내려온 보살들은 그 때 경전공부와 마음수련을 함께 하던 불탑회 회원들이다. 법운 스님은 입산하여 행자승으로 이 곳에 동행했다. 그 때가 2014년 3월이다. 그 전에는 비구스님 한 분이 이 도량을 지키고 계셨다고 한다. 비구니 스님과 보살들이 내려온 후, 절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모양이다. 우선 절 입구 조포마을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분위기가 활발해지면서 절집에 생기를 갖췄다. 지금도 틈틈이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재배한 식재료며 양념들을 갖다 준다. 현산스님은 말끝마다 '이 청정도량 덕분에'라는 수식을 다신다. 손님 응대의 90퍼센트는 도량의 자연이 한다며 이 곳 자연에 대한 예찬이 대단하시다.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가 따로 없어요. 전나무, 은행나무 등 아름드리 보배수 나무가 수호목처럼 둘러쳐져 있고, 철따라 온갖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요. 우리는 바구니에 그 꽃을 필요한만큼 거둬서 부처님전에 올리지요. 온갖 산새들은 또 아침 저녁으로 저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해요. 숲에서 내려오는 안개는 스스로 환상적인 공연을 매일같이 펼쳐 주지요. 산으로 첩첩 둘러싸인 까닭에 우리절 마당은 원형극장이예요. 로마의 원형극장처럼 공명효과가 나타나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죠. 비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저 산 마루에 내리는 비소리죠. 옆에 있던 법운 사미니승도 덩달아 거든다. 어떤 땐 대웅전 마당에는 비가 내리는데, 여기 요사채에는 비가 안와요. 그럼 내가 비보다 빨리 달려가서 빨래를 거둬 오죠, 헤헤. 저는 도시에만 살았어요. 사계절의 변화조차 몰랐어요. 이 곳에 와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계절이 있음을 알았어요. 또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발에 밟힐 정도로 많던 벌레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 사라져요. 그 벌레들이 나비가 된 거예요. 또 일주일 지나면 그들도 사라져요. 모두가 인과 연의 연기법에 따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관념이나 법문이 아니라 생활에서 연기법을 만나요. 청정도량 예찬이 끝없이 이어진다.

노스님 20년 공양한 사찰음식의 실력자

화제를 돌려 현산스님의 사찰음식에 얽힌 사연을 청했다. 현산스님은 요리를 어디서 배우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그 숨은 실력이 세상에 퍼졌다. 365일 삼시세끼를 20년동안 노스님께 봉양하면서 스스로 몸에 익힌, 일종의 구도행의 산물이다. 음식 만드는 것으로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셨다. 저희와 같이 여기에 내려온 보살님은 5~6명이예요. 우리의 공통분모에는 노스님 공양과 경전공부를 함께해온 세월이 있어요. 그 세월 속에는 갈등도 있겠지요. 물건 하나 집을 때마다 노스님께서 그랬어요. 왜 물건을 집는데 마음을 깃들이지 않느냐? 왜 그리 물건을 놓느냐? 정신차리고 했느냐?고 물어셨지요. 그런 노스님의 가르침이 저도 모르게 몸에 뱄어요, 훈습처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의식주가 행해지는 일상으로 내렸어요. 일체중생을 부처님처럼 여기되, 참선, 염불, 진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의식주가 행해지는 공양간에서 정성을 다해 따뜻한 밥 한 끼 드리는 거지요. 스님으로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참 따뜻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바래요. 수행자의 길은 이 곳 저 곳의 길이 아니라 봐요. 곧고 좁은 길이예요. 오랫동안 이어 온 선명한 길이예요. 제 길은 노스님의 등을 보고 걷는 길이예요. 노스님의 길은 또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지요. 현산스님의 말씀에 자연과 중생과 스님과 부처님의 조화로움과 화목이 빛난다. 말씀 속에 자애로움이 뚝뚝 묻어난다. 그리고는 스님께서 '유마의 방'으로 부르는 공양간으로 들어가셔서 먼 길을 돌아가야하는 필자를 위해 20분만에 떡국 한 그릇을 마련해 오셨다. 아, 결국 밥 이야기다. 김 오르는 떡국 한 그릇에 한 수행자의 길이 있었고, 가슴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 절집 문을 나서는데 진안고원의 동쪽 하늘에 교교한 보름달이 만공산이다. 그 절집의 빛이 월인천강의 달빛이다.



진안고원 천황사 남암의 천연기념물 전나무.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 ~ 70시간



실외 양초 공양집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4GB불경SD카드+1200AM베터리+USB충전케이블+충전아답터+불경목록+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마음 본체 해석에 유불 공통 관심

27. 유불 교류와 심성의 교차

성리학이 정치와 사상, 사회와 문화를 주도한 조선시대에도 유학자와 고승 사이의 인적 · 지적 교류는 지속되었다. 유교사회에서 유불의 접점을 찾기 위한 불교 측의 노력도 계속되어 일심을 매개로 한 유불도 삼교의 합일이 주장되었고, 유교의 '성즉리(性卽理)'에 대비되는 '심즉리(心卽理)'의 심성 이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조선후기에는 일반 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승려들의 문집이 대거 간행되었고, 각 문파에서 고위 관료와 유명 문사들에게 비문을 의뢰하여 고승의 비가 다수 세워졌다.

조선시대 학승들은 대개 유학에 대한 기본소양을 가지고 있었고 명사들과 시문을 주고받거나 사상적 교류를 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청허 휴정도 출가 전에 성균관에서 유학을 공부하였고 유불도의 요체를 정리한 〈삼가귀감〉을 남겼다. 휴정은 당대의 명유였던 남명 조식, 고봉 기대승 등과 시문을 교류하였고, 이후 그의 비문과 문집 서문을 한문 4대가로 유명한 이정구, 이식, 장유 등이 지었다. 휴정의 제자 사명 유정도 삼정승을 역임한 노수신에게 노자와 장자, 시를 배웠다. 유정이 임진왜란 후 일본과의 전후 처리 및 국교 재개를 위해 사신으로 갈 때는 당시의 고위관료들이 송별시를 쓰기도 했다. 조선후기에는 더욱 많은 승려들이 유학자와 인적 교류를 하였고 승려의 비문과 문집 서문 및 발문을 사대부와 고관들이 지어 주었다.

유학자 중에서도 불교사상에 정통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았고, 승려와 친분을 맺으면서 시문 등을 교류한 명망가도 적지 않았다. 퇴계 이황과 함께 조선시대 유학을 대표하는 학자인 율곡 이이는 10대 후반에 모친 신사임당의 상을 치르고 금강산에 입산하여 1년간 불교를 공부하였다. 그는 "불교의 묘처가 유교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교를 버리고 불교에서 구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산을 내려왔지만, 저술인 〈성학집요〉에서 윤회 등의 허무맹랑한 설은 문제라고 하면서도 불교의 심성론 자체는 정치하다고 평가하였다.

사명 유정과 절친한 관계였고 법통설을 제기하는 등 친불적인 유학자 관료였던 허균도 "위로는 유학을 높여 사대부의 습속을 맑게 하고, 아래로는 부처의 인과와 화복으로 인심을 깨우치게 되면 고르게 다스려질 것이다'는 유불 병행론을 주장하였다. 실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이수광은 불교의 '즉심견성(卽心見性)'과 유교의 '존심명리(存心明理)'는 마음의 작용이 같지 않고 근원 또한 같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의 주저인 〈지봉유설〉에서는 "이단은 유학의 도에 해가 되지만 한편 이익도 있다. 불교의 견심은 마음을 놓는 자의 경계가 되고 살생을 금하는 것은 죽이기 좋아하는 자의 경계가 된다"고 하여 윤리적 측면에서 불교의 효용가치를 인정하였다.

한편 17세기 중반 팔도도총섭을 지낸 백곡 처능이 올린 장문의 상소문인 '간폐석교소'처럼 불교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반박한 호불론도 제기되었다. 처능은 불교에 대한 당시의 비판 내용에 대해 중국과 인도의 공간적 차이, 중국 삼대의 전성시대 이후 불교가 생겨나 들어왔다는 시간적 차이, 인과응보와 윤회설의 허망함, 경제적 해악, 정교의 손상 등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불교의 역할과 효용성을 강조하였다. 18세기 후반의 연담 유일은 조선유학의 대의명분론과 중화주의 사조를 수용하는 한편 당시 유학자의 불교 인식에 대해 재비판하였다. 그는 중국의 저명한 유학자들은 불교를 깊이 탐구하여 유불이 근본에서 같음을 알았고 승려들과 이치와 자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리학을 만든 주자도 선승의 영향으로 심법의 요체를 깨닫고 불교에서 얻은 바가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는 조선의 유학자들은 불교를 단지 허무하다는 이유로 비판하지만 당시 과거시험에만 전념하는 유자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나무랐다. 유일은 불교 심성론과 수행의 우수성을 강조하였고 윤회나 인과설에 대해서도 마음의 본성과 작용의 관계를 들어 해명하였다.

한편 17세기 중반에는 〈석문상의초〉, 〈석문가례초〉, 〈승가예의문〉과 같은 불교 의례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들의 서문에는 "조선에는 불가의 상례에 대한 근본이 없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규범에 맞지 않는다. 〈선원청규〉 등 불교 상례의에 의거하고 있지만 중국의 법이 조선의 예와 맞지 않으므로 그 요점만 간추린다"고 되어있고, 또 "세속의 예인 〈주자가례〉를 취해 〈선원청규〉 등에 빠진 내용을 보충하고 그 절요를 간추린다"며 간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불교 의례집에서는 〈주자가례〉에 의거해 상복을 입는 기간인 오복제를 도입하여 세속의 친족과 같이 승려 사제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촌수로 규정해 놓고 있다. 17세기에는 불교계의 문파가 형성되고 법맥을 이은 사제 간의 결속과 제사 등 상제례의 비중이 커졌다. 또한 승려의 사유 전답을 제자와 친족에게 상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사제 간의 인적 관계망이 상례 위주의 의례집에 반영된 것이다.





조선시대 고승들은 유학자들과 끊임없이 사상적 교류를 했다. 임진왜란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명대사(사진 왼쪽)와 절친했던 친불적 성향의 유학자 허균(사진 오른쪽)은 유불병행론을 주장했다.

학승-유학자, 사상적 교감
심성 논쟁 두고 설왕설래
불교 옹호론 유학계 등장해
西學 대비한 새 가치 모색



17세기 중반 간행된 불교의례집 〈석문가례초〉, 〈석문상의초〉, 〈승가예의문〉.

이와 함께 조선후기에는 불교 심성에 관한 논의도 심화되었다. 17세기에 운봉대지가 쓴 〈심성론〉은 불교의 전통적 심성 이해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서는 '일심=여래장=불성'을 전제로 '심=성'의 관점에서 진심과 자성이 곧 부처이며 법이라는 '진심즉성(眞心卽性)'을 강조하였다. 대지는 "사람들 각각의 법신은 결국 하나"라는 당시의 주장을 비판하며 "사람들 각각은 원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18세기에는 대둔사 편양파 종장 연담 유일과 송광사 부휴계의 적전 묵암 최눌 사이에 심성 논쟁이 펼쳐졌다.

양자의 논쟁을 담은 〈심성론〉 3권은 저자인 최눌의 문도들이 불태웠지만, 유일이 쓴 서문이 남아있어 그 요체를 파악할 수 있다. 유일은 "부처와 중생의 마음은 각각 따로 원만하게 있지만 본래는 하나이다"는 입장을 개진하였고, 최눌은 "부처와 중생의 마음은 각각 따로 원만하며 원래부터 하나가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자는 일심이 현상의 각 개체에 현현하여 각기 원만하다는 것이고, 후자는 부처와 중생의 마음이 각각 그 자체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여 각 개체의 본성 자체를 중시한 것이었다. 이는 이치와 현상의 '체용불이(體用不二)'적 관점의 성기(性起)와 현상 및 개체의 상대적 관계를 중시하는 연기(緣起)의 입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 화엄의 법계관(法界觀)을 통해 이해하면, 전자는 리(理)의 본래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는 사(事)의 독립성을 중시한 것으로 이사무애와 사사무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심성에 관한 논의는 18세기 사상계를 풍미하였던 호락논쟁과 같은 이기심성 논변과 공통점을 가진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 성인과 범인의 일원성과 다원성에 대한 관계 규정은 호락논쟁에서 인성과 물성, 성심과 범심이 같은지 다른지의 논의와 대비된다. 즉 천리의 궁극성과 이와 기의 관계성에 따른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에 관한 입장 차이와 관련이 있다. 마음의 본체, 원리와 현상에 대한 해석은 불교와 성리학 모두의 공통 관심사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심학과 이학의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성리학에서는 본성에 내재된 리의 절대성을 근거로 불교의 심 이해에 대해 상대주의 또는 허무주의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비해 일심의 본원성을 내세운 '심즉리'의 구도 하에서 일원적 절대성과 다원적 상대성을 논한 것은, '성즉리'를 전제로 한 본연지성의 절대성과 기질지성의 차별성 논의에 대응되는 불교적 논리의 개진이었다. 나아가 이는 불교의 일심과 유교의 천리의 접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19세기에는 청으로부터 들어온 고증학 및 서양 학문의 영향으로 사상계의 분위기가 다변화되는 한편, 조선의 사상전통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었다. 고증학의 영향으로 주석과 해석을 담은 백과전서 형태의 책들이 다수 편찬되었고, 실학의 거두인 다산 정약용의 훈도에 의해 불교계에서도 사찰의 역사서인 사지가 사료 고증을 거쳐 편술되었다. 유학자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도 심화되어 청의 최신 학풍을 전해온 추사 김정희의 경우 불교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다. 그는 선 논쟁에 직접 참여하여 선의 폐해를 지적하고 교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정희는 초의 의순, 백파 긍선 등과 많은 서신을 왕래하고 교류하면서 선사상과 불교 교리에 대해 논변하였다. 대둔사의 초의 의순은 김정희의 학예일치적 학풍에서 영향을 받아 다도와 서화 등 다방면에 걸쳐 정통하였다. 또 백파 긍선이 선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결사를 조직할 때 쓴 글에는 명문가 출신의 고관과 노사 기정진과 같은 저명 성리학자가 직접 서문을 지었다. 이처럼 19세기에는 유교와 불교를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는 새로 유입된 서양 학문에 대비되는 조선적 전통의 정수로서 특정한 사상적 의미를 찾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모색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윤리와 예제, 친족관계와 상속의 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적인 유교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는 조선후기에 불교가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왕실은 물론 일반민의 신앙으로써 불교의 종교적 위상과 비중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은 16세기 후반 이후 17세기로 접어들면서 정치적으로는 성리학에 정통한 사림세력이 지방사회와 중앙 정계를 장악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유교적 종법과 부계 중심의 혈연인식이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유교식 상례와 제례가 일반민에까지 보급되면서 유교적 질서가 기층까지 확산되었다. 이는 불교적 내세관과 의례가 가져왔던 전통적 지분을 상당부분 잠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의 기원과 추복이라는 불교의 종교적 효용성은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유교만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었다.

또한 사상적 측면에서도 성리학이 주류질서를 장악한 조선후기에 유교의 이기심성론에 대응되는 불교사상으로서 심성론이 제기되고 화엄교학이 주목되었다. 성리학은 선종이 마음의 작용을 절대시하고 심을 성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맞서 심성에 대한 불교의 철학적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 화엄의 이와 사의 법계, 성기와 연기, 불성과 중생심의 '일즉다 다즉일'과 같은 이론적, 개념적 무기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에 불교 측에서 〈심성론〉과 같은 책이 나오고 심성과 관련된 논쟁이 일어난 것, 화엄교학이 성행한 것은 유불교류의 진화된 모습과 양자의 접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무료보시 안내!!
주지스님 전용마이크 구입시 → 고성능 다이나믹마이크 보시!
앰프설치 사전 예약만 해도 → 고급 무선마이크 1셋 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구입 및 앰프설치 예약 사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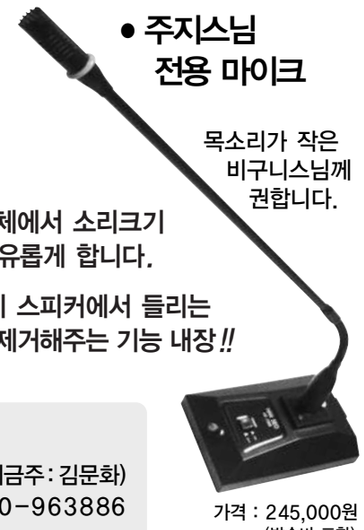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니까야서 길을 묻다 4. 계율 정신의 근원①

내 지계로 남 무시 말라

〈持戒〉

불교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공부거리' [삼학(三學)]에서 첫 번째가 계율이기 때문에 계율이 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의 내용 중에서 의문점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제기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계율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솔직하고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순간, 개인의 사생활에서 감추어 덮어 두고 싶은 행위들을 모조리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불살생(不殺生)을 지키려면 모기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되나요?"

"적당히 술 마셔도 불음주(不飮酒) 계(戒)를 어긴 것일까요?"

이러한 유형의 의문문은 불교계 안팎을 막론하고 한 번쯤은 질문 받거나 생각하게 되는 문제이다. 사생활이라는 은밀함의 측면에 더하여, 실제로 지키기 어려움을 전제로 하는 현실적 인정이 계율 실천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면모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 양경수

이를테면 그것이 불살생 계(戒)라면, '나의 생존 추구'와 '남의 생존 추구'가 맞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계율지킴'의 엄격함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지점이 생겨날 것이다. 끊임없이 과도한 광고를 내어 물건을 팔고 있는 어느 회사원이라면 당장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불망어(不妄語)'의 계(戒)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회사의 상사가 시켜서 했다거나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아무리 늘어놓더라도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였다는 본질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터.

그저 예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이 은밀함을 드러내야 하는 솔직함과 현실에 쉽게 타협했다는 자책을 애써 무시하거나 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성숙을 위한 그 어떤 노력에 힘을 기울일 수 있을까? 현실을 인정하자는 입장에 서서 타협과 회피를 반복할 경우, 계율은 골치만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 그 의의는 크게 상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글자 그대로' 혹은 '곧이곧대로' 무조건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 이처럼 계율지킴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이나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조금의 어긋남도 허용하지 않고 계율을 지키는 자세에서 불교인으로서의 굳건한 의지와 실천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불교적 삶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감히 평가조차 내리기 어려운 종교적 숭고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찬사 가득한 긍정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엄격한 태도 이면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폐쇄성을 비판하는 관점이다. '순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는 좀 더 수준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열정만큼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순수'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른 존재를 낮춰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다. 즉, 엄격한 그들이 '순수'를 강조하면 할수록 그들의 이상과 부합되지 않는 것들의 존재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끝내는 소통조차 하지 않으려는 '폐쇄적' 태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교계에서 근본주의자들은 '순수', '엄격' 등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관점이나 태도를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생각이나 신념을 달리하는 이들에 대한 적개심을 내비치는 장면도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계율은 자신의 끊임없는 성숙을 지향하는 수행의 밑천이지 오만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버림받은 아이들 보살핌 30년…

그대는 자비보살

김옥숙 (부산 지체장애인복지협의회장)



김옥숙 회장은… 1968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때부터 평화의집, 성광원, 무궁애학원 등에서 봉사하며 나눔 활동을 펼쳤다. 부산여대 사회복지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김해 보현행원 요양원 및 다양한 복지단체에서 근무했다. 현재 지체장애인복지협의회 회장을 맡아 장애인을 위해 후원활동을 펼치며 방송통신대 불교동아리 하심회회장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 시원재단에서 수여하는 우수사회복지사를 수상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 이런 생채기는 더 이상 사회를 믿지 못하게끔 한다. 추운 겨울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따뜻하게 녹이는 이가 있다. 부산지역 소외아동들의 '대모'로 불리는 이, 바로 김옥순(48 · 법운행) 부산지체장애인복지협의회장이다.

희망과 꿈의 수호자 되다

김 회장은 현재 그룹홈(옛 고아원)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김 회장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꿈'과 '희망'이다. 국가지원사항을 알려주며 노력하고 고생하면 학업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국가 지원으로 대학등록금이 나오는데도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알면서도 진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사회생활에서 학력이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가 바로 김 회장의 막내딸 사연이었다. 2013년 새벽 무렵이었다. 김 회장은 부산 화명동의 PC방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였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미희(가명 · 21) 양이 불교기관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가톨릭계 고아원으로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기관에서 이탈한 것이었다. 반복되는 가출과 방황 속에서 김 양이 유일하게 연락을 취했던 이가 김옥숙 회장이다.

"미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 기장의 한 사찰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 후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찰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자신의 바람과는 반대로 기독교 시설로 들어가게 되며 방황하게 됩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버스에 그냥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가족들과 의논했다. 김 양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일반 가정집에서 사는 것이었기에 직접 키우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동의했다. 남은 과제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친딸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결국 남편이 딸을 설득했다.

"막내 딸이 들어오며 우리 가족은 4명이 됐습니다. 딸들이 너무나 사이 좋게 지내고 있어요."

김 회장은 입양한 딸을 키우는데 성심껏 노력했다. 김 양의 꿈이 디자인 전문가였기에 예술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켰다. 학원도 보내야 했다. 실습재료비 외에 학원비만 월 70만원에 달했다. 입시철 비용만 500만원이 넘는 등 예술계 특성상 실습 등에 많은 비용이 소모됐지만 문제는 아니었다.

"남편이 조선소에서 큰 배의 녹을 벗겨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고된 수고에도 감당하기 벅차긴 했지만 한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빚을 내 교육을 시켰습니다. 결국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막내딸을 보면 참 잘했다 싶습니다."

고아친구 인연이 보살핌으로

이러한 김 회장의 활동은 학창시절 맺어진 작은 인연으로부터 시작됐다. 구포여중 1학년 때였다. 같은 반의 한 친구가 김 회장에게 '우표를 사달라'는 부탁을 자주 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그 친구가 당시 고아원 '평화의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한다.

"우표를 사달라는 것이 같은 고아원에 살던 언니가 서울로 가 연락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우표를 살 돈이 없어 친구들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그 친구와 친해진 김 회장은 매주 주말마다 용돈을 모아 군것질거리를 사 평화의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김 회장은 그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다.

당시 김 회장의 가정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중학교 때부터 방학철이면 부산의 신발공장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스스로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한 마음은 식지 않았다.

김 회장은 중학교를 마치고 어렵게 구포여상 야간학교를 진학했다. 여기서 학교 친구들과 지인들을 모아 1985년 봉사 동아리 '동그라미'를 창단했다.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이 모임을 통해 김 회장은 더욱 활발하게 봉사 활동을 펼쳤다. 김 회장은 동그라미 회원들을 이끌고 '평화의 집'을 방문하고 체육대회 등을 개최했다.

"당시 평화의 집 근처에 의경들 숙소가 있었어요. 무턱대고 찾아가 체육대회를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당돌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 그만큼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김 회장은 또 다른 고아원인 '성광원'도 매주 방문하는가 하면 장애인 시설인 '무궁애학원'도 빠짐없이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 회장은 청소뿐 아니라 식사 보조 등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나들이, 합동결혼식 등 다양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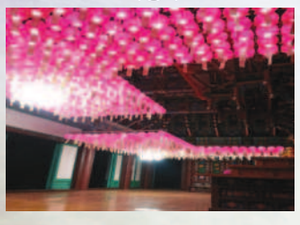
사찰고급연등 · 자동승하강시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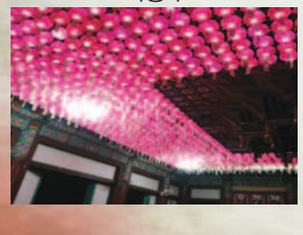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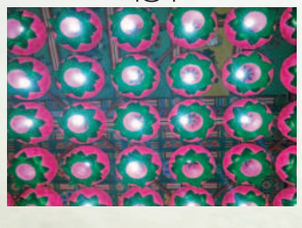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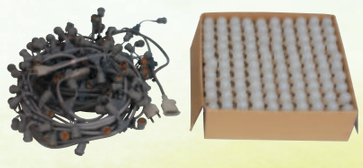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비닐만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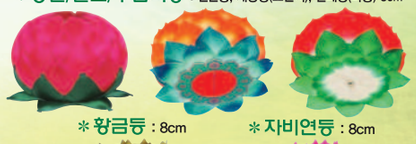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불교고아원 건립 평생의 꿈”

을 펼쳤다.

“당시 그곳에서 만난 농아 아동과 소통하기 위해 수화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토대가 돼 부산수화통역자회에서도 활동했어요. 소외계층의 이들과는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 때 친인척이 없으니 주변인이 함께 뭉쳐 도와주는 등의 마음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송통신대학 하심회로 포교활동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환경에 김 회장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방송통신대학 중문과에 입학하고 불교동아리 하심회에 들어갔다.

“학업을 쉬지 않았어요. 부산여대 사회복지과,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까지 저의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봉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문성도 갖춰야 합니다. 봉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처음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해 입학했던 곳이 방통대였어요. 방통대는 불교 활동을 통해 많은 도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 줬습니다.”

침체됐던 하심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그녀는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성을 늘렸으며 경전 공부를 강화했다. 산행과 정기 법회, 경전공부, 신입을 위한 기초교리, 참선 수행, 수계법회까지 진행했다. 다양한 활동으로 회원은 늘어갔다.

“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의 목적이 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재미와 흥미에 맞게 그들을 이끌고 나중에는 최종 목표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도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장애인 위한 손발 되다

이어 1989년 김 회장은 지체장애인복지협의회(이하 지복회)에 들어갔다. 그 때 당시 지복회는 수많은 민간 봉사 단체와 협력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여기서 김 회장은 자녀들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알게하는데 노력했다.

“지복회 투(Two)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나이가 많아졌지만 자녀들은 저희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모임을 만들고 자신들의 역할을 찾고 있어요 돈이 많아야지만 부자는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 마음이 부자여야 부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훌륭한 가르침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김 회장은 1993년 어린이집을 직접 차렸다. 보통의 어린이집이 아니었다. 20여 아동 중 장애아동이 5명이었다.

물론 일반가정의 학부모들은 반대가 심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장애아동을 꾸준히 선발했다.

“어떤 부모님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아이를 장애아동과 똑같이 취급하냐’ 구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어린이집을 나가셔도 좋다고 합니다. 일반아동은 나가도 다른 어린이집이 있지만 장애아동은 없잖아요.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 그 부모가 일을 하지 못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게 뻔하죠. 이런 절박한 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반가정의 학부모들도 받아들였다.

중1 당시 고아친구 만나며 발심
평화의집 · 성광원 등 고아원 봉사
장애아동 위한 어린이집도 운영
“꿈과 희망 잃지 않게 도와줘야”

“나중에는 먼저 고맙다고도 합니다. 자녀들이 장애인을 보고 거부감 없이 평등하게 대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에 놀란 것이죠. 저절로 심성교육이 되니 평이 좋았습니다.”

신심어린 기도가 나눔활동 근원

김 회장은 이런 다양한 나눔활동의 원동력을 신심에서 찾고 있다. 18세 때부터 불자가 된 김 회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삼광사 청년회 활동을 시작하며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 직장생활 중에도 새벽기도를 빼먹지 않았다.

“1993년에는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간에 암도 있으셨고 폐도 제 기능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범어사 청련암 양익 스님을 찾아가 스님이 일러주는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때 알았죠. 남을 위한 기도가 오히려 나를 가볍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요.”

김 회장은 이런 편안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라고 설명했다. 사망선고를 기다리던 김 회장의 아버님도 김 회장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점차 기운을 차렸다. 그렇게 10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다.

“결국 작은 마음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이끕니다. 직장을 다녀와 기도하면서 직장생활도 순탄해졌어요.”

3번의 수술, 아픔도 꺾지 못한 나눔

김 회장은 2010년 큰 수술을 했다. 부인병이 생긴 것이다. 자궁에 3번의 수술을 했지만 2015년 재발했다. 골반까지 복수가 차고 근종도 발견됐다. 심장에도 구멍이 나는 ‘선천성심방중격결손’도 발견됐다. 게다가 2013년에는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왼쪽 팔과 다리의 거동이 힘들어졌다.

“건강이 악화돼 지난해에는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도반과 고아원 활동 당시 만났던 친구, 그리고 아이들 소식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들을 위한 후원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아동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 할머니 집이 화재로 탔을 때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모금했다. 지금도 쌀을 전달하며 그들을 후원 중이라 했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그룹홈을 만들 것입니다. 현재 경남에 30여개의 그룹홈이 있지만 불교에서 운영하는 그룹홈은 고작 2개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러 갈 때 당시 교수님이 저를 향해 기독교를 믿느냐고 하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라더군요. 그래야 취업이 된다고요. 복지를 위해 불교는 더욱 뛰어야 합니다.”

그녀는 현재 고아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혼으로 인한 결손 가정은 고아가 아닌 고아로 버려진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진실함과 따뜻함이 넘치는 가정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추운 겨울을 집을 향해 뛰어가는 아이들이 보인다. 부족함 그대로 그들을 안아주는 진실한 사랑이 기다리는 집은 보금자리가 되어 그들을 품는다. 버림 받은 상처까지 기꺼이 품어줄 김옥숙 회장의 넓은 품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는 훈훈함으로 널리 퍼지길 발원한다.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방송통신대 하심회 신입생 모집에 나섰던 김옥순 회장.


평화의 집 원우들과 체육대회를 하는 모습.


김옥순 회장의 가족사진. 30년 넘은 봉사에는 가족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

전법일기

스님,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20년 전 여주에서 사찰음식을 강의할 때 한 내과의사가 찾아왔다. 젊고 유능한 의사가 서울에서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환자들이 식단만 바꿔도 병세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직접 요리법을 배워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진찰과 약 처방으로 이미 의사의 본분을 다한 것인데, 나는 환자 편에서 생각하는 그가 미덥고 고마웠다. 그가 말했다.

“스님 강의를 듣고 나니 요리법보다 음식의 중요성을 환자들에게 일러줘야겠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몸을 지키도록 돕는 게 의사인 제가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스스로 몸을 지킨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박혔다. 스스로 아는 것, 바로 ‘자각(自覺)’이다. 자각이 없다면 그 무엇도 바꾸지 못한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그림 · 박구원

사찰음식의 궁극적 목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진리를 깨우치도록 돕는 데 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물도 공기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물과 공기, 흙의 기운으로 만들어졌으니, 그것들이 병들면 나도 아프다. 사람들은 처음에 몸의 건강을 위해 사찰음식을 배우지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을 깨닫게 되면서 차츰 건강한 마음을 갖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자기 삶이 바뀌고 가족과 이웃, 주위 사람들까지 변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자각이 세상을 바꾸는 이치는 얼마나 아름다운 연기인가.

어느 해 한 가족이 나를 찾아왔다. 담도암에 걸린 젊은 여인과 시어머니, 남편과 어린 두 딸이었다. 어머니는 “스님, 제 며늘아기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부터 쏟았다. 두 아이는 풀죽은 얼굴로 엄마의 팔을 연신 주물러댔다. 나는 남편 어깨에 힘없이 기대어 앉아 있는 아이엄마에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자식노릇, 엄마노릇 잠시 접어두세요. 내가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스스로 공부하고 요리해서 드세요. 나에게 맞는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병이 찾아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 그 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가족은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가족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아이 엄마의 얼굴에 한결 화색이 돌았다. 남편도 여유가 있어 보였다. 지난번엔 묻는 말에 겨우 대답만 하던 아이 엄마가 먼저 말했다.

“스님 말씀대로 힘들지만, 제가 먹어야 할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입맛도 돌아오고 힘이 났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신이 나서 까불더군요. 그 아이들을 보니 살아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스님,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병원에서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장 죽을 듯했는데, 생각을 고쳐먹으니 어마어마한 삶의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엄마아빠가 밝아지자 아이들도 달라졌다.

“암을 밀어내지 마세요. 병도 인연입니다. 하루아침에 병이 싹 낫기를 바라지 말고 이 정도로 유지하겠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찾아온 병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과 더없는 행복을 알게 된 만큼, 지금 삶을 사랑하도록 하세요.”

부부는 물기어린 눈빛으로 마주보았다. 내가 해준 것은 말 몇 마디뿐이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아내고 움직여야 한다. 자각이 없다면 부처님, 하느님 말씀도 한낱 종잇장에 불과하다.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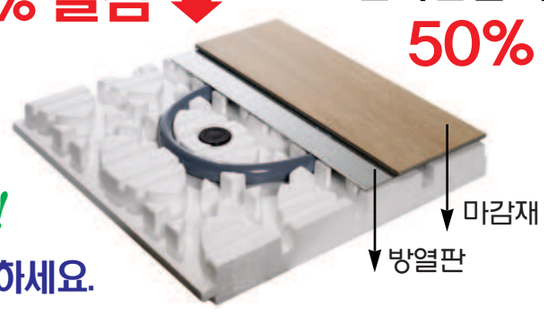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화성 : 010-3168-9250 대구 : 010-3259-3520
부평 : 010-2310-0404 기흥 : 010-8378-3375 울산 : 010-4597-5577
의정부 : 010-5759-8804 용인 : 010-9807-4862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광주 : 010-6890-0365 양산 : 010-6294-6126
광명 : 010-7526-3300 여수 : 010-3612-7784 통영 : 010-3592-2447
안산 : 010-2487-3393 익산 : 010-6610-2337 고성 : 010-4578-0961
오산 : 010-2043-4336 김천 : 010-9091-4583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진여가 움직이면 '阿黎耶識'이 된다

〈아려야식〉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생멸'이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 생멸인데 이 생멸이 진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여래장(如來藏)에 의하여 있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흔히 비유를 드는 바와 같이 물에 의해 파도가 일어나는 경우와 같다는 것이다. 여래장이란 여래의 태(胎)라는 뜻으로 모태와 태아 모두를 말한다. 이는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 여래장이 진여의 본체인데 여기서 생멸이 생긴다. 고요한 수면이 바람에 의해 파도가 일어나면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이는 상태로 달라져 동정(動靜) 차별이 있게 된다. 물과 파도가 고요하고 움직이는 상태는 다르지만 물과 파도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를 기신론에서는 비일비이(非一非異)라 하여 '아려야식'을 정의내리는 말로 쓰고 있다. 아려야는 아뢰야(阿賴耶) 혹은 아리야(阿梨耶)로 음사 되는데 범어 'alaya'가 어원이다. 의역(意譯)을 할 때 기신론 번역자 진제(眞諦)는 무몰식(無沒識)으로, 현장(玄)은 장식(藏識)으로 번역했다. 이는 'alaya'의 첫 음인 'a'를 장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뜻이 각각 달라지는 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a'가 장음으로 읽힐 때는 '집, 주처, 창고'라는 뜻이 되고, 단음으로 읽힐 때는 '없어지지 않는, 다하지 않는'이란 뜻이 된다.

물·파도 상태 다르면서 같아
이것이 非一非異 '아려야식'
법계가 전일적인 하나의 모습

그러니까 무몰식이란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취하여 번역한 것이고 장식이란 저장하는 식이란 뜻이다. '장(藏)'에는 포함과 출생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아뢰야식이 일체 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장이라 하며 동시에 일체 법이 아뢰야식에서 나오므로 장식이 되는 것이다. 기신론 본문의 아뢰야식 설명은 이렇다.

"이 식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법을 거두어들이고 모든 법을 생기게 한다. 두 가지 뜻은 하나는 '깨달음(覺)의 뜻'이고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함(不覺)의 뜻'이다. 깨달음의 뜻이란 마음의 본체는 망념을 여읜 것을 말한다. 망념을 여읜 모습은 허공계와 같아서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이 모든 존재의 세계 곧 법계가 그대로 전일적인 하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여래의 평등법신이니 이를 두고 본각(本覺)이라 한다."

각이란 불생불멸하는 진여가 각이며, 생멸하는 망념이 불각이다. 이를 거울에 비유하여 말하면 거울에 먼지가 끼지 않고 깨끗하여 물체를 비춰주는 것은 각이요, 먼지가 끼여 어두워져 물체를 밝게 비춰주지 못하는 것이 불각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하면 하늘이 본래 청명한 것은 각이요, 구름이 끼여 흐린 것은 불각인 것이다. 그러나 각이 불각인 상태로 되어도 진여 자체는 청정하여 한결같은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으므로 본래의 깨달음이란 뜻으로 본각(本覺)이라고 한다.

인간의 마음에 비록 그릇된 생각, 망념이 일어나나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곧 진여의 본모습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 또 마음의 본체인 각이 허공계와 같아서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바가 없고(無所不) 차별적인 현상이 야기되지 않는 평등한 하나의 모습이다.(法界一相) 이것이 바로 여래의 알맹이로 법신(法身)이라 한다.

본각과 상대되는 말이 시각(始覺)이다. 시각이란 수행해서 얻는 깨달음으로 본각을 회복한 상태로 나아가는 노력이다. 본각과 시각도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 광석 속에 들어있는 금의 성분을 본각이라 한다면 시각은 용광로에 광석을 녹여 순금을 추출해 내는 제련의 과정을 겪는 것이 시각이다. 금의 성분을 놓고 말할 때는 광석 속의 금이나 순금으로 제련된 금이나 둘 다 똑같은 것이다. 다만 본각이 시각으로 드러나지 않게 방해하는 요소가 불각이다. 본래 있는 진여의 본체가 본각이지만 이것을 수행의 공을 들여 계발할 때에는 시각이라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각은 후천적인 수행이 시작되기 이전의 본래의 각이므로 경험이전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기신론을 영역한 일본의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은 본각을 '선험적(先驗的)인 각(enlightenment of a priori)'으로 시각을 '경험적(經驗的)인 각(enlightenment of a posteriori)'으로 번역하였다.

보시마저 無心해야 '보살'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⑤ 보살의 보시란

菩薩行施時 大地皆震動
(보살행시시 대지개진동)
巨海涌?寶 慧雲雨妙花
(거해용중보 혜운우묘화)
無心猶如是 況有情識者
(무심유여시 황유정식자)
菩薩施廣大 猶如虛空界
(보살시광대 유여허공계)
假使五通仙 充滿十方幷
(가사오통선 충만시방찰)
聽聞猶?難 況復分別說
(청문유상난 황부분별설)
無有地方所 而不以求施
(무유지방소 이불이구시)
淨水浸大地 無有不遍處
(정수침대지 무유불변처)

번역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대지가 다 진동하며, 큰 바다는 뭇 보물들을 용출하며, 지혜의 구름에서 오묘한 꽃이 비처럼 내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도 오히려 무심(無心)해야 하거늘 하물며 중생이라는 것을 의식하겠는지요. 보살의 보시는 광대하기가 오히려 허공계(虛空界)와 같아야 합니다.

가령, 오신통(五神通)의 신선이거나 신통력이 시방세계에 가득할지라도 듣는 것도 오히려 더욱 어렵거늘, 하물며 다시 분별하여 해설하는 것이겠는지요.

땅에 동서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듯 구하는 바를 다 베풀지 못하지만, 깨끗한 물이 대지를 적시듯 두루 적시지 못할 곳도 없습니다.

해설

제바보살은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대지가 다 진동하며, 큰 바다는 뭇 보물들을 용출하며, 지혜의 구름에서 오묘한 꽃이 비처럼 내린다'고 말한다. 보살의 보시는 광대하기가 오히려 허공계(虛空界)와 같아야 하며, 중생이라는 의식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를 베풀 수는 없을지라도 깨끗한 물이 대지를 적시듯 보시하면, 두루 적시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보시는 발보리심과 맞닿아 있다. 발보리심이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리라는 서원이다. 또한 실천행으로 보살행이 시발점이며, 보살행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피안으로 건너는 여섯 가지 보살의 실천행이라는 말이다. 그 육바라밀 가운데 첫째 되는 실천행이 바로 보시다. 보시란 '나'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삶이다. 현실에서 더불어 극락의 삶을 추구하는 부처님의 실천적 행위이다. 그러고 보면 경·율·논의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 중생들로 하여금 발보리심을 드러내게 하는 목적이 있다. 만속장경에 수록된 지각연수 선사가 쓴 〈보살수계법병서(受菩薩戒法秉序)〉에서도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보살계를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제바보살은 이 게송에서 보시를 중심으로 한 발보리심이야 말로 〈영락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대장부의 무진계행(大丈夫名無盡戒行)'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보시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보리행경〉에 이르기를, '중생에게 가장 수승한 보배는 드물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길까. 가지가지로 남을 위한 마음을 내어 자신의 이익만 바라지 않는 데 있다네. 기쁨을 세상에 씨 뿌리고 수행 정진하여 세상의 약이 된다면, 마음이 보배로워지고 더불어 복이 있게 되리니,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리오.'라고 하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하사와 할머니

군복무 시절 나의 계급은 하사였다. 장기하사가 아닌 단기하사였다.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 있는 제1하사관 학교에서 28주간 훈련과 교육을 마치면 하사계급장을 달게 된다.

이기자 부대의 수색중대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 사단장의 지시로 사단의 법당인 사창리의 대성사에서 일요법회를 맡는 군법사 대행을 했다. 그때부터 군복이 아닌 승복으로 스포츠머리가 아닌 삭발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옷차림이나 삭발 등은 자유였으나 하사 계급장을 달고 사단의 보충교육대에서 신참 소위 등을 모아놓고 종교 강연하는 게 약간은 부담스러웠고 군복보다 승복이 더 자연스럽고 자유로웠기 때문이었다.

군법당 대성사는 원래 할머니 한분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절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사단사령부에서 기와집으로 법당과 종각을 짓고 첫 군법사로

제사만 지내고 요구하는 것은 '巫堂'
바른 불교는 바른 신앙을 자라게 해

육군하사 이용주를 발령하게 된 것이다. 이용주는 호적에 담긴 향봉 스님의 본명이다. 그런데 그 대성사에는 창건주 할머니 한분이 주지처럼 조실처럼 위세를 부리며 군종병 스님들의 시어머니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찰경제를 쥐고 군법사 역할을 담당하는 육군하사 이용주를 쥐락펴락하고 싶었던 것이다. 군법당 대성사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있을 것은 뻔한 일이요 정해진 이치이다. 무당불교 쪽이 창건주 할머니의 체질이라면, 경전 중심이 육군하사 이용주의 고집이었으니까. 지인이라면 예견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용주의 경전 고집이 할머니의 무당체질을 이기고야 만다.

하여 시어머니격인 창건주 할머니가 며느리격인 육군하사 이용주의 눈치를 살필 지경에 이르고 만다. 주객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 일요일 법회의 호응도가 점점 배가되었고, 사병중심에서 위관장교, 영관장교 부부동반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창건주 할머니에겐 끊임없이 무당 귀신이 따라다니는지 영관장교를 만나면 5대조 귀신타령을 내눈치 살피며 요령껏 팔자로 풀어대는 것이었다. 예를 들자면, 먹이가 될 만한 영관 장교를 만나면 '5대조 할아버지가 출셋길을 꽉 막고 있구먼! 거나하게 제사 한번 차려주면 진급은 물론 가족 건강도 좋고 앞길이 술술 풀릴 터인데.'

말끝을 흐리는 창건주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대는 연기도 잊지 않는다. 이쯤 되면 진급에 목말라 있는 당사자들은 순간 이성을 잃고 창건주 할머니한테 매달리며 거나하게 차리는 제사상 흥정을 벌이게 된다.

나는 겨우 할아버지 이름까지만 기억한다. 그런데 5대조 할아버지를 끌어들이며 앞길을 막고 있다니, 5대조 할아버지라면 산소위치도 성함도 왜 죽게 됐는지도 아무도 모를 터. 무당은 아이큐가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라더니, 대계는 할머니의 끌끌 혀 차는 소리에 기가 죽고 5대조 할아버지 타령으로 큰돈을 부담하며 흥정을 마무리 짓게 되어있다.

육군하사 이용주는 '참기름 바른 입'으로 부처님 경전중심으로 등불을 삼는 편이면, 창건주 할머니는 '양심에 털 난 허풍으로 거짓을 진실인 양 못된 혀의 노동'으로 남의 재산을 뺏어오는 사기극을 즐겼던 셈이다. 배고픈 5대조 할아버지에게 차리는 제사상이 거나해 질 것은 정해진 이치이다. 글쎄, 귀신이 되면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胃)도 덩달아 커지거나 수십 개가 생기는 것인지 과일에 떡에 부침개에 거기다가 배고픈 5대조 할아버지는 용돈도 필요한 것인지 현찰 든 봉투까지 놓이게 된다.

자. 이쯤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되짚어 살펴보자. 무늬와 무게만 다를 뿐이지, 창건주 할머니와 같은 엇비슷한 행위가 부처님 도량에서 전통사찰에서 법당에서 크고 작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냉철한 반성과 자기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터이다.

바른 불교는 바른 신앙을 자라게 한다. 바른 신앙은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어 우리네 생활공간으로 되돌아온다. 사찰 경제를 앞세우며 흔들리는 모습. 이제는 멈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뚝 서야 한다. 밝은 불교의 내일을 위해.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영남범음범패 제5기
학 인 모 집

- 초 급 : 목탁기본습의,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향수해례, 삼보통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 중 급 : 사물다루는법, 요잡, 시다림, 점안식, 일백사위, 삼십구위의식, 관음시식, 전시식, 상용영반
- 고 급 : 천도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일년과정)
- 모집대상 : 승려, 법사
- 강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고왕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63번기 17-27
  (강주 : 상일스님)

수강비와 강의책은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법 바르게 전하시길 빕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052-262-6857 / 010-9709-8850

제9기 송강범음범패 전승회
수강생 모집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목 : 49재 의식(평염불) 천수바라, 도량게 작법무, 사물 다루는 법
- 장 소 : 안성시 영평사 중앙불교대학원
- 시 간 : 오전 9시 ~ 오후 3시(1년과정)
- 비 용 : 입회비 이십만원, 수강료 무료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1일 오전 9시

특강 | 홍고(새벽에 치는 큰 북) - 문곡스님
성명학 - 삼규스님
태평소 - 시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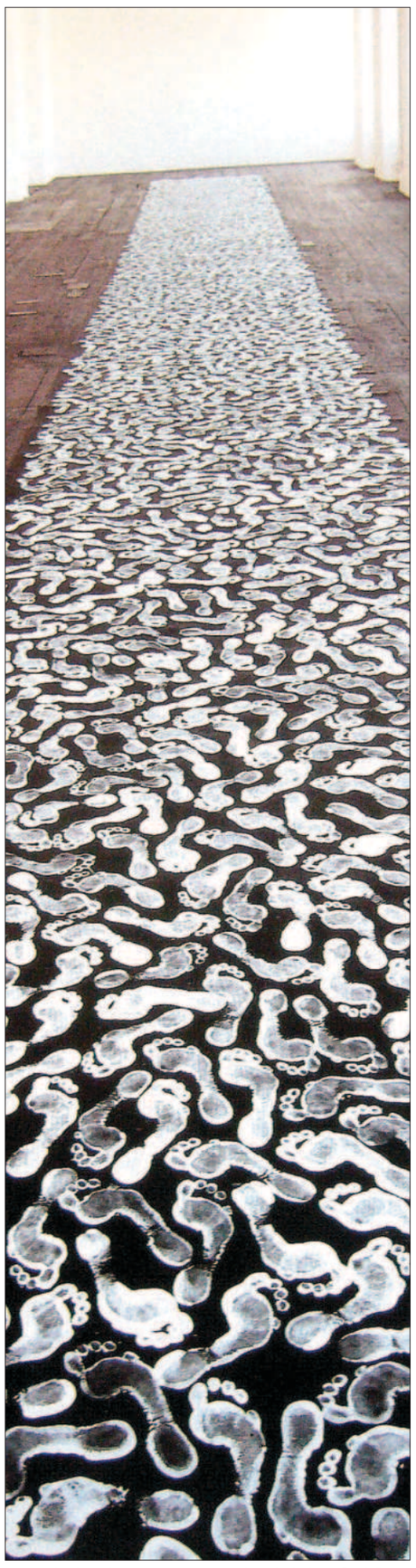
- 연 락 처 : 회장(관희) 010-8290-6623
  강주(문곡) 010-3727-0870
  총무(진효) 010-5306-0856

내면의 본래 길을 찾다

〈道〉

禪과 현대미술

② Richard Long



1989년 작품 〈FOOTPRINT LINE〉. 걸어가는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의 교감을 도출하고 있다. 이처럼 리처드 롱의 작품들은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거나 고정화하지 않는다.

정원에 피어오르는 자그마한 꽃을 무참히 밟아가며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며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평범해 보이는 이러한 행위가 예술이 된다.

리처드 롱(Richard Long, 1945~, 영국)은 22세 때 정원에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예술가가 된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인식한 도(道)는 곧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젊은 리처드 롱은 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가는데 그가 주로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 않은 곳에 가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만든 길은 그 외에 누구도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막 등 인간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그 길의 흔적들은 사라진다. 사라진 길은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본래의 자연으로 회귀한다. 이처럼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을 새롭게 정립하는 그의 행위는 그칠 줄을 모른다.

그가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놓고 행하여지는 그의 예술행위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저 하나의 일상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예술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과거 지식이나 경험들을 모두 버리고 현재 존재하는 장소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방식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떠한 의도나 목적을 두지 않는다. 시간성과 공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를 수용하며 자신의 인식을 적응해가는 것이다.

예술은 언제나 고귀하며 일정한 카테고리를 형성하며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화된 방식인데 리처드 롱은 이러한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패러다임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수행자와 유사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이다.

그가 처음 선을 접하고 보행선을 배우면서 많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보행하는 동안 무아(無我)와 일심(一心)의 관점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자주 표현하는 원형은 순환과 윤회를 상징한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원형을 걸어가는 수행방식은 반복성과 순환의 의미를 통하여 변화하는 새로운 가치 즉, 새로운 의식이 깨어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시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시간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의 행위는 정지한 것처럼 무의미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림길에서 그가 추구하는 것은 시간성을 초월하는 것은 아닐까?

〈RED SLATE CIRCLE〉은 시간이 정지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각각 다른 모양의 돌들이 원형을 만들며 공간 속에 놓여 짐으로써 자연 속에서 느껴지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원래 있던 장소에서 이동하여 새로운 공간에서 서로 다른 돌과 함께 새로운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돌이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변화한다. 이는 시간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간성이 약화되고 공간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즉, 공간은 변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공간의 변화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며 존재성에 가치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처럼 삶의 방식에서 공간성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떠한 공간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와 평가를 받는 것이다.



리처드 롱의 1989년 作 〈BONRGOGNE CIRCLE〉. 돌이 시간이 흘러 진흙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의 요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변화하는 것에서 우리는 연기를 느낄 수 있다.

행선 배우며 선사상 심취
순환의 질서 작품에 담아
발걸음 통해 시 · 공간 표현
금강경 '이상적멸분' 연상돼

공간성은 문화, 철학, 종교, 예술, 건축, 음악 등 다양한 특성을 만들어 낸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특성들은 고착화 되며 그 전통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공간성에 시간성이 더하여지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시 ·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리처드 롱의 작품 속에서 느껴진다.

존재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에 무관하게 존재하며 그 가치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돌은 돌이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대로의 존재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인위적인 움직임에 의하여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 많은 혼동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본래의 의미와 가치는 변한 바가 없다. 그가 보여주는 돌의 작품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들이다.

리처드 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식의 변화를 감지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돌의 작품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인 변화에 속지 않고 본래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모습이 엿보이는 작품들이다.

〈BOURGOGNE CIRCLE〉은 돌이 시간이 흘러 진흙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바닥에 놓여 있는 돌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루가 되고 가루가 모여 진흙이 된 것을 물감처럼 벽면에 순간의 행위를 통하여 회화적인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돌, 가루, 흙, 물, 바람, 해 등 다양한 모습의 요소들이 하나 둘 조화를 이루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윤회의 인드라망을 연상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무유정법(無有定法)의 내용처럼 모든 것은 변화한다. 단지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간을 인지한다는 것이 모두 그 이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현재 조차도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변화의 과정을 인지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시간성 속에서 잠깐 온전한 상태(一心)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간성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고 현재를 감지하는 능력이 향상되며 나아가서 깨어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리처드 롱의 진흙을 이용한 작품들에서 느낄 수 있는 특성들이다. 걸어가는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의 교감을 도출하고 있다. 실내의 전시공간에서 행하여지는 걷기 명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걸어가는 흔적들만 남은 공간속에서 그 흔적들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그러한 행위를 한 시간은 이미 지나가버린 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성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공간성은 어떠한가? 공간은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난 후까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전혀 이질적인 돌과 진흙의 재료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며 공간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진행이 되었으나 그 공간에 들어오는 관람객은 전혀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의 인식범주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다.

새로운 질서는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그것을 인지하는 관객은 자신의 인지하는 관점에 따라서 각각의 모습으로 인지할 것이다. 이처럼 리처드 롱의 작품들은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거나 고정화하지 않는다. 시간성과 공간성이 멈추어진 것 같은 전시공간 속에서 그가 행한 행위의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다. 시간성 속에 나타나는 그가 걸어간 거리는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멈추어진다. 걸어가는 거리는 곧 시간이며 시간은 다시 공간성 속으로 사라진다. 〈금강경〉에 나오는 '이상적멸분(離相寂滅分, 모양을 떠나면 고요하게 사라진다)' 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의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변화에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작품의 주된 내용들이다. 자연은 순환하지만 반복되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며 변화한다. 그 변화의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은 아주 작은 것이다. 그 작은 감각들이 확대되며 자연의 변화를 이해하며 그 존재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리처드 롱의 작품에서 초기부터 줄곧 보여주는 공통적인 화두는 '순환' 이다. 순환하는 이치를 찾아 자연 속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한 것이다. 자연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형상의 변화를 인지시켜주며 그 곳에서 가치를 드러낸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나선 예술가는 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래의 길(道)을 찾아 가고 있다. 그 길은 만들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식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유럽에 선사상이 확산되며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만의 어법으로 새로운 조형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시대정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리처드 롱은 시 · 공간성의 경계에서 수행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인들이 이해한 선(禪)은 현재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는데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리챠드 롱의 작품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시간, 거리, 공간 등의 존재를 결정짓는 요소들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존재가치를 추구하는 리처드 롱의 작품들을 보면서 마치 깨달음을 찾아 떠나는 수행자의 걸어가는 모습이 겹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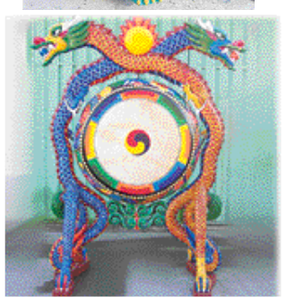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 바 위 불 교 교 육 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불교TV 설맞이 프로그램 '풍성'

'금오대선사 다큐멘터리' '봉은사 365일' 등

올해 설날은 최소 5일 이상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병신년 설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으로는 금오선사의 수행관과 사상을 알아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와 강남불교 1번지 봉은사의 1년을 담은 〈봉은사 365일〉 등이다.

금오선사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다큐멘터리 '한국불교 비상의 큰날개 금오대선사'는 2월 7일 오전 8시 50분에 시청자를 찾아간다. 또한 2월 8일 오후 12시 20분, 2월 10일 오후 4시 50분에도 만나볼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발심한 순간이 궁극적 깨달음'이라는 선사의 가르침과 한국불교사의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의 생애, 수행관, 계율관 등을 통해 납자들이 가야할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봉은사 365일'은 도심 빌딩 숲에 고즈넉한 멋스러움을 지키는 천년고찰 봉은사의 1년을 화면을 통해 전한다. 봉은사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다큐멘터리는 2월 8일 오전 11시 20분, 2월 11 오후 3시 50분, 2월 14일 오후 6시 50분에 방영된다.

2013년 5월 방한해 '힐링 · 상생 · 행복'을 주제로 대중과 만났던 세계적 명상지도자 틱낫한 스님을 다시 만나 볼 수 있는 법문 프로그램 '틱낫한 스님 방한특집 월정사 명상수행 법문 1~4부'도 마련된다. BTN은 2월 7일 저녁 9시 50분, 10시 50분에 1, 2부를 2월 8, 9일 저녁 9시에 3, 4부를 잇달아 방영한다.


BTN불교TV 설 프로그램 다큐 '봉은사 365일'의 한 장면.

이밖에도 교종 수사찰 운악산 봉선사의 새해맞이 타종식의 현장 녹화 중계인 '운악산 봉선사 새해맞이 타종식(2월 7일 오전 8시 50분, 2월 9일 오후 7시 30분, 2월 10일 오후 1시 20분)'을 비롯해 고려불화 대전 준비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아, 고려불화(2월 9일 오후 10시, 2월 14일 오후 8시 50분)', 구글 엔지니어이자 명상가인 채드맹탄과 힐링 멘토 혜민 스님의 만남을 다룬 '혜민 스님, 차드맹탄과 떠나는 내면검색 여행(2월 8일 오후 4시 50분, 2월 12일 오전 7시 30분)' 등이 설 연휴 동안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博, 2월 '큐레이터 대화'

새 단장 고려실 집중 소개 예정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2월 동안 전시설명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2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016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단장한 고려실에 대한 부분이다.

보존처리를 마친 대형 철불과 새로이 발굴된 소형 불상, 역사 자료 등 200여점 이상의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고려실에서 '새롭게 개편한 고려실'(고려2실, 2/3), '고려의 지방 세력과 거대 석불'(고려1실, 2/17)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획특별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2/3, 2/17), 테마전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2/17) 등의 특별전에 대한 해설도 운영된다.

이밖에도 '소장품의 안전한 포장과 보관'(역사의 길, 2/3), '누금 세공 기술의 이해'(신라실, 2/17) 등 소장품 관리와 보존과학 분야 전문가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회사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반출 문화재 만나GO~ 손오공과 놀GO~

강원 불교계 주목 전시 2곳

월정사 성보박물관
3월까지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전'
나우회 작가 참여… 20여 작품 전시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5월 15일까지 '붉은열정-손오공展'
韓中日 손오공 판화 70여점 '눈길'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서유기 특별전을 통해 처음 일반에 공개되는 '채색 서유기 육필 년화.' 가로 220cm, 세로 90cm의 대형 작품 안에는 손오공과 홍매아의 대결 내용이 담겨 있다.

2016년을 맞아 강원 지역 불교 박물관을 중심으로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주제도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부터 손오공까지 다양하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 산하 나우회 회원작가들과 함께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전'을 연다.

6번째 전통문화의 둘레길 만들기 기획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불교 전승 작가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나우회 작가는 11명으로 총 2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이연욱 씨의 지장시왕도(미국 LA카운티박물관 소장), 이문희 씨의 청허당대사(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봉석 씨의 당사자상(호놀룰루박물관 소장), 노정용 씨의 목조동자상(LA카운티박물관 소장), 박명옥 씨의 수월관음도(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주광관 씨의 '회(回)'(LA카운티박물관 소장 철조여래좌상), 김형진 씨의 'REMEMBER'(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가섭존자와 국외로 유출된 문화재 숫자 형상화)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현재 외국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소장된 유물은 그 취득 경위의 위법성을 밝히기 전까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도난 유물은 환수되고는 있지만 성과는 미비하다"면서 "나우회에서는 당장 환수가 어려운 유물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전승 작가들이 재현하여 국민들에게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033)339-6633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을 조명하는 전시회도 열린다.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2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붉은 열정 손오공 특별전'을 2016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서유기〉는 돌원숭이 손오공이 현장 법사를 도와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려는 구법행을 그리고 있다. 특히 〈서유기〉는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의 습합돼 동양 판타지 문학의 전범이기도 하다.

서유기 특별전은 '아시아에서 원숭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다. 인도와 태국의 하누만 석판화와 탁본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의 서유기 목판본과 목판 년화, 우키요에 등 70여 점의 작품이 한 자리에 전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시 유물 중에는 고판화박물관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희귀 육필 년화도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가로 220cm, 세로 90cm의 천에 그려진 채색 서유기 육필 년화는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서유기 고사도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 사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육필 년화의 내용은 40~42회의 내용으로 요괴 홍매아의 삼매진화(불을 내뿜는 공격) 공격에 진 손오공이 관음보살의 역경을 극복하는 것으로 오른편에는 홍매아는 불법에 귀의해 선재동자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또한 일본 근현대 시기 우키노에에 담긴 손오공과 중국 목판 중 '피마온(避馬瘟)'이란 용어가 들어있는 부적 년화도 눈여겨 볼만 하다.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민족에게 원숭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불교적으로는 열정과 헌신의 동물이기도 하다"면서 "손오공의 열정과 희망의 정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회 기간 동안 고판화박물관은 손오공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전통판화교육과 2월 4~5일에는 원주 시청 로비에서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원숭이 판화 인출체험행사를 무료로 연다. (033)761-7885


월정사성보박물관이 개최하는 미국 유출 문화재 재현전에 출품된 나우회 작가 박명옥 씨의 수월관음도.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된 작품을 새롭게 해석했다.


미국 LA카운티박물관 소장된 지장시왕도를 재현한 이연욱 씨의 작품.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새단장 '눈길'

2월 한 달간 응모권 추첨도

2009년 개점 이래 사찰음식 대중화에 일익을 담당해온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이 3개월여의 단장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는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이 리뉴얼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한다"고 1월 25일 밝혔다. 발우공양은 간장과 된장을 기본으로 제철 식재료를 사용, 계절마다 다른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발우공양의 모든 메뉴는 코스로 구성되며 선식(禪食), 원식(願食), 염식(念食), 희식(喜食) 중 선택할 수 있다. 2월까지 제공되는 겨울메뉴는 좁쌀죽 · 고구마묵(강화도 호박고구마) · 사과고추장을 곁들인 연근파래전 · 호두만두 · 더덕잣즙무침 등이다. 또한 한상차림으로 제공되는 식사에는 연잎밥과 연자잡곡밥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찰간장으로 담근 장아찌와 오신채를 넣지 않은 사찰김치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과일과 표고버섯만으로 맛을 낸 매콤한 사찰 냉면과 7년 숙성된 감식초, 파주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찰간장에 숙성시킨 두부장 등 사찰에서만 맛볼 수 있던 특색 있는 사찰음식을 선보인다. 계절후식으로는 유자화채와 홍시구름, 도라지 정과가 제공된다. 영업시간은 점심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저녁 오후 6~10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성효 스님은 "사찰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모든 과정을 수행으로 여긴다. 발우공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정직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바쁜 생활에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발우공양은 이번 재오픈을 기념해 2월 한 달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응모권 추첨을 한다. 상품은 템플스테이 체험권(1인 2매 14만원 상당), 사찰음식 레시피북, 원숭이해 기념 노트 및 필통 세트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발우공양 공식 홈페이지(www. balwo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섭 기자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포함)
- 나 한 도 족 자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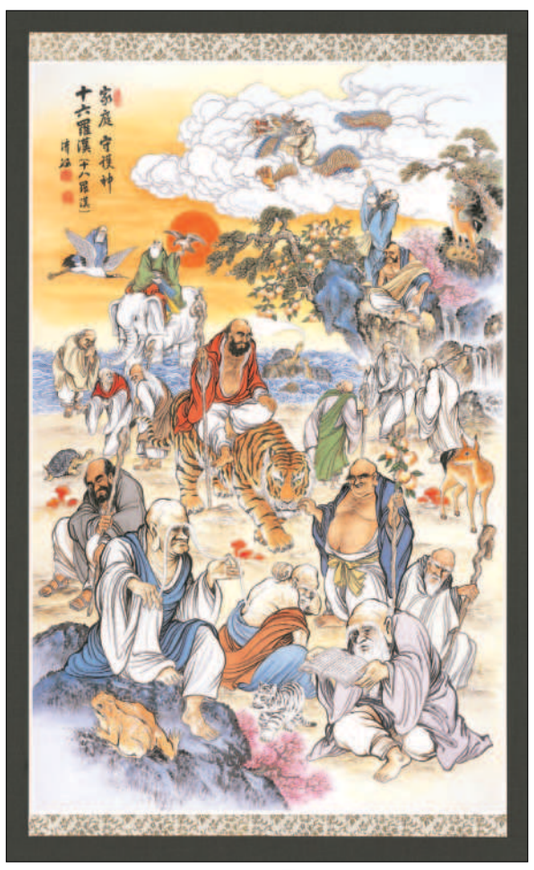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나한도 족자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1.20~2015.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2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틴텐최된	불광출판사
3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4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5	숨-죽음을 통해서 더 환한 삶에이르는 이야기	능행	마음의숲
6	지금이라도알아서다행인것들	원영	불광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8	야단법석-법륜스님의 지구촌 즉문즉설	법륜지음	정토
9	가피-제2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편집부엮음	모과나무
10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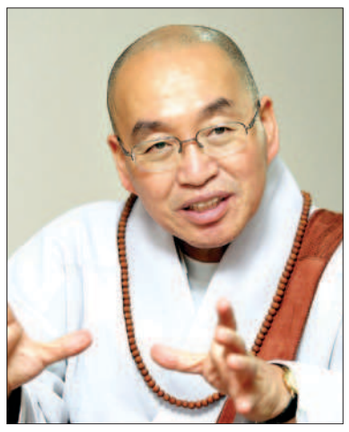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타인 불행 위에 내 행복 쌓지는 말자"

법륜스님의 행복

법륜 스님 지음 | 나무의 마음 펴냄 | 1만 4천원





온전한 행복원인 분석해 집중 조명
"사물의 전모 보는 통찰력을 키워라"
정곡찌르는 저자의 직설적 화법 특징

현대인들의 공허함과 인간성 상실이 일탈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그동안 '즉문즉설(則問則說)'을 통해 대안적 삶을 제시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사진〉.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의미를 지닌 법명 '법륜(法輪)'처럼, 스님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운동가이자, 제3세계 지원 활동가이며, 사상가이자, 깨어 있는 수행자이다.

법륜 스님이 또 한권의 책을 내놓았다. 제목은 〈법륜 스님의 행복〉이다. 이 책은 제목처럼 삶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고, 부조리한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연애' '결혼' '직장생활' '사회갈등' 등 그 간절한 물음에 대한 응답이다. 또한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115개 도시의 강연장과 길 위에서 청중들이 저자에게 던진 질문과 그 답변 중 가장 호응을 얻은 내용을 엄선한 스님의 행복 안내서이다. 즉 한마디로 행복에 대해 우리가 인지해야 할 총체(總體)이자 지혜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저자가 세상에 내놓은 책들이 주로 즉문즉설을 통해 질문자들과 나눈 인생 상담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했다면, 이 책은 온전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행차원서 개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주로 강조했다면 이 책에서는 행복의 수레를 끄는 또다른 바퀴인 사회문제도 함께 다룬다. 결국 개인의 마음과 사회적 조건을 함께 가꿔야 온전히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저자의 행복론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무의식속에 잠재된 인간의 심리와 욕구, 관계 맺기에서 오는 갈등과 같은 개인적 문제를, 그리고 후반부는 사는 게 바쁘다거나 직면한 현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까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을 들려준다.

책을 살펴보면 현실생활과 동떨어진 공허하고 허황된 이야기는 모두 걷어내고 오직 삶의 현장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보니 달콤하고 친절한 말로 건네는 위안과 위로를 기대한 이들에게 에둘러 표현하지 않고 정곡을 찌르는 저자의 화법이 너무 냉정하거나 직설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른다. 특히 종교가 다르고, 질문자와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외면하기 쉽다. 그러나 저자는 어떤 질문이든 질문자의 처지를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 남 탓, 환경 탓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비하와 자기학대를 거듭하며 고통을 확대재생산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더는 괴로움 속에서 헤매지 않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과 해법을 담았다. 그래서 각각의 질문은 남의 이야기지만 결국 나의 이야기이며, 저자의 답변은 우리 모두를 위한 조언이다.

수많은 상담 사례와 저자의 경험담을 통해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다만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아서는 안 된다."

냉정하지만 따뜻하고 단순하지만 명쾌한 법륜스님의 행복론을 읽다보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수많은 불합리한 신념과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나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나름의 행복을 위해 바쁘게 산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정작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저마다 개인적인 고민과 상처, 관계 맺기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들의 신음이 줄을 잇는다.

이상과 현실서 방황하는 젊은이의 하소연서부터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 억울하다는 토로, 회사생활이 너무 괴롭다는 신입사원의 울먹임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과 테러와 분쟁에 대한 구글 직원의 질문까지 행복에 목마른 사람들의 수만 가지 질문에 스님은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을까?

"제가 많은 분들의 질문에 해답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앞면만 보는 사람에게 '뒷면은 어때요?' 라고 묻고, 이쪽만 보는 사람에게 '저쪽 면은 어때요?' 라고 묻고, 윗면만 보는 사람에게 '아랫면은 어때요?' 하고 묻는 것뿐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며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음으로써 자기가 문제 삼던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물의 전모를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기면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고뇌들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책서 저자는 우리가 괴로움서 벗어나 온전히 행복해지려면 사물의 전모를 보는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나'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고집스럽게 붙잡던 고정관념과 전제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제안한다.

평면에서는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딱 하나밖에 그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자 공리다. 하지만 둥근 지구본을 놓고 보면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가는 최단거리는 수없이 많다. 평면이라는 전제가 사라지면 최단거리는 무수히 많아진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여서 행복의 전제조건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춰 행복하려고 애쓰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보지만 이 전제를 내려놓는 순간 행복으로 가는 수많은 길이 열린다. 이 책에서 저자는 행복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며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과 가치관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문제해결의 길도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행복해지겠다고 달려가는데 정작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연기맵', 세상 진실에 다가가는 수행법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닫는다

백창우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 3천원



실용 방편인 '연기맵 그리기' 설명
연기법 수행자 경험담과 질문 소개

하수상하지만 중요한 시절이다. 과학의 끝없는 발전과 인간의 욕망으로 우리는 영생할 것인가 혹은 멸종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는 목불인견의 세태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잠깐 길을 잘못 들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불황의 늪도 깊다.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와 무너지는 삶의 가치로 우리는 길을 잃은 채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인지' 존재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간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참선, 염불, 요가 등 여러 수행법을 통해 영원한 자유인 깨달음의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혼돈의 시대가 곧 영성의 시대인 것이다. 하지만 마음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그 문턱은 여전히 높고 어려운 게 사실이다.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그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막연하기만 하다.

이 책의 저자인 백창우 선생은 스스로 깨달음의 과정서 얻은 것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나는 연기법에 관한 글을 읽다가 홀연히 깨어났다. 그리하여, 연기법을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연기법을 통해 공부인들이 깨어나도록 하고 싶은 간절함이 생겨났고, 바로 그 간절함이 이 글을 쓰도록 했다." 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그 간절한 염원은 〈명쾌한 깨달음〉(2011년), 〈이것이 깨달음이다〉(2014년) 등 두 권의 책으로 세상에 소개됐다. 이 두 책들이 깨달음이 무엇이고, 깨달음을 향한 연기법 수행이 어떤 것인지 소개한다면, 〈연기맵이면 누구나 깨닫는다〉는 연기법 수행의 실용적인 방편인 '연기맵 그리기'에 대해 소개한다. 연기법이란, 이것과 저것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상호의존이기에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 결과라는 인과법과는 다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인과 결과가 같다는 '인과동시(因果同時)' 관점이다."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연기맵을 직접 그려보며 몸과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기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연기맵을 그리는 과정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바라보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연기맵을 그리며 깨달음의 세계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들뜬 마음이 가라앉고 평화로운 마음, 행복한 삶이 가까이 다가온다.

우선 생겨나는 과정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과일 같은 것이다. 1단계로 사과로 연기맵을 그려보고, 2단계로 사람의 손길이 포함된 먹을거리, 3단계로 순간순간 변화하는 물리적 현상, 4단계로 딱딱한 인공물, 5단계로 나와 같은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연기법을 발전시킨다.

저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 연기맵 그리기 수행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떠올려서 그려나가면 된다. 너무나 쉽고 당연해서 '이렇게 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기맵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묘하게도 사고방식이 연기법적 사고방식으로 전환된다." 고 조언한다.

수행의 길에는 걸림돌이 있게 마련이다. 열심히 연기맵 수행을 하다가도 불현듯 게으른 마음이, 복잡한 의구심이 올라온다. 그것은 수행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앞서 이 수행을 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 사람들은 이 수행의 길에서 어떤 물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책서 저자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네이버 대적광 카페(cafe.naver.com/tchut)에서 연기맵 수행을 한 사람들의 경험담과 질문들을 소개한다. 이 경험담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독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공부가 지금 어느 선에 와 있는지 알 수 있고, 수행 중 해태심이 생길 때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깨달음은 다리를 꼬고 장좌불와를 하는 고행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다. 마음을 내어 시작하는 것이 이미 반이다. 마음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발심을 내었다면 연기법 사유수행으로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작은 변화도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하면 나와 세상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큰 울림이 된다.

김주일 기자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108 선지식 구도순례】

도반 여러분 !
금생에 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무량 복덕을 짓는 자량資糧입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였듯이 국내외 선지식을 찾는
108선지식 구도순례여행에 같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격월에 한번씩 국내외 선지식과
수행처를 탐방하여 1박 2일 철야정진하는 구도순례 프로그램으로
18년동안 진행되어 2033년 12월에 회향할 예정입니다.

2차 선지식탐방 구도순례

◆일 정 : 2016년 1월 30일(토) ~ 31(일)
◆장 소 : 용문산 상원사 용문선원
◆소참법문 : 선원장 의정스님(조계종 선원수좌복지회 대표)
◆출발장소 :
❶ 1월 30일 오후 2시 30분 3호선 안국역 5번출구 수운회관 앞
❷ 1월 30일 오후 3시 3호선 양재역 11번출구 주차빌딩 앞
◆108 선지식 구도순례 및 기도법회 동참문의 :
대 표 도 반 덕상 정은용 010-6894-2007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 010-5217-2878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正見과 혜안慧眼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수행과 자비행이 여일如一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을 더 내고자 기획한 수행 프로그램이다.
•구도순례에는 국내외 출재가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장인으로써 수행과 예술을 겸비한 분들까지 망라하여 탐방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으로 11월 21일(토)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을 찾아 철야정진을 하고, 조실인 학산 대원스님으로부터 소참법문을 들었다!
•「정법빠리사-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는 그동안 제방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신심을 고취해 왔던 재가자들이 모여 수행과 교육, 자비나눔 활동을 펴고자 2015년(불기 2559년) 10월 18일(일) 보광정사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갖고 결성된 바 있으며, 지계를 바탕으로 수행이 뛰어난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 국내외 자비나눔 활동, 정법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보광정사(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7층)에서 108배 참회, 아비라 기도, 참선, 능엄경 등 경전 공부와 기도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2시 법회에는 다양한 주제로 법사를 모시고 일요 기도정진법회를 진행.
•2개월에 한번씩 수행기운이 좋은 수행도량을 찾아 무박 2일 철야정진 진행.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 대 표 도 반 덕상 정 은 용 두손모음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틱낫한 스님, 파리기후협약의 '숨은 영웅'

피게레스 사무총장, "스님 철학 덕분에 성공적 협상 이끌어"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단 평가를 받고 있는 크리스티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 · 사진). 그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인터넷언론 '허핑턴포스트'와 인터뷰서 "틱낫한 스님 가르침 덕분에 이번 협약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틱낫한 스님은 파리기후협약의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말했다.

피게레스는 전례 없는 196개국의 지지 속에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2주' '화석시대의 점진적 종언 합의'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는 "피게레스 사무총장이 당사국총회 개최와 합의문 도출에 5년 동안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피게레스는 자신의 지혜와 힘, 그리고 연민심을 기르는데 틱낫한 스님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스님과 인연을 들려줬다.

"3년 전 저는 개인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수천 명의 추종자를 두고 있는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접하고는 '아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게레스는 틱낫한 스님의 불교철학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기후변화협상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크리스티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사무총장은 그가 성공적인 협상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 스승인 틱낫한 스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진출처=businessgreen

힘든 시절 틱낫한 사찰 방문
지혜 갖추며 본업 집중케 해
5년 간 '마라톤협상' 의지처로
세계 시니어리더들 지지 받아와

"기후변화 협상의 핵심 문제는 전 세계 인구수가 70억 명에서 90억 명 혹은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5년간의 긴 마라톤협상을 하는 동안 제게 휴식이라곤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지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만약 틱낫한 스님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긍정적인 생각을 못했을 뿐 아니라 제 임무에 헌신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피게레스는 독일 발드브롤(Waldbrol)에 있는 틱낫한 스님의 사원을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발드브롤 수도원은 원래 700명의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던 공간으로, 2차 대전 당시 나치부대가 그곳의 환자들을 몰살 시키고 히틀러 청소년 부대를 위한 장소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틱낫한 스님은 그 장소에 사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사랑으로, 희생자는 승리자로, 증오는 사랑과 용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 장소에서 일어난 비인간적이고도 잔인한 일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틱낫한 스님이 사원을 세우고 처음 한 일은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이 낭독하게 한 것이다.

"우리 승가 공동체는 이곳에서 부당한 일들로 고통 받았던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 또한 고통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스스로도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승가공동체를 지지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고통 받는 장소를 치유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게레스는 "이 일화는 내게 굉장한 충격이었다. 기후협약도 마찬가지로 서로 비난하는 것에서 협력으로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이라며 "틱낫한 스님의 일화는 속수무책의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한편, 틱낫한 스님은 서구에서 마음챙김 명상을 이끄는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모든 불교는 삶에 참여한다"는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운동을 주창하며, 민중의 고통을 덜어 주는 실천적 사회운동을 펼쳤다.

베트남전쟁 때는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사회청년봉사학교를 열어 계속 봉사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받았으나, 불교 평화 활동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했다.

이어 1975년 파리 근교에 '스위트 포테이토'를, 1982년 보르도에 '플럼 빌리지(Plum village)'를 각각 세우고 명상공동체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의 비구 · 비구니들과 평화 및 참여불교 운동을 전개했다. 1990년에는 미국 버몬트주(州)에 승원(僧院) '단풍림'과 수행원 '그린 마운틴'을 설립하고, 이후 프랑스 ·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오가며 계속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훼불로 징역 뉴질랜드男 '대통령 사면'

2015년 '불교 모욕죄'로 2년 6개월 형 선고
공범 2명 함께 풀려나… 뉴질랜드 이송 예정


일명 '불교 모욕죄'로 지난해 구속됐던 뉴질랜드 남성 필 블랙우드(33 · 사진)와 공범들이 지난 1월 22일 대통령 특사로 사면됐다.
사진출처=ASIAN Correspondent

미얀마에서 일명 '불교 모욕죄'로 구속됐던 뉴질랜드 남성과 공범들이 사면(赦免)으로 풀려났다.

아시아 소식지 'ASIAN Correspondent'는 1월 22일 "미얀마 내에서도 악명 높은 양곤(Yangon) 지역 인세인(Insien) 교도소에서 101명이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가운데, 필 블랙우드(Phil Blackwood)와 그 일행들이 있었다"며 "블랙우드는 즉시 양곤 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필 블랙우드(33 · 뉴질랜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헤드셋을 착용한 채 환각상태에 빠진 모습의 부처님 그림을 게재하며, 불교 모욕죄 혐의로 2015년 3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술집 매니저로 일하던 블랙우드는 공범이자 매장 동료인 툰 터레인(Tun Thurein), 흐툿 코코 뤼(Htut Ko Ko Lwin)과 함께 그림을 매장 홍보용으로 사용했다.

현재 미얀마 내에선 블랙우드의 사면을 두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블랙우드와 공범들 행위는 미얀마 불교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몰지각한 태도서 비롯된 것으로 사면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애초 징역 선고 자체가 지나쳤다는 반론이 있다.

이와 관련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조 레인(Jo Lane)은 "이번 사건은 '종교모욕법' 집행이 드물 뿐 아니라, 구형 강도가 심했기 때문에 더욱 큰 이목을 끌었다"면서 "더구나 외국인에 의해 자행된 훼불이기 때문에 대부분 불교도인 미얀마 국민들의 '법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박아름 기자

"우주와 불교 배우고 싶으면 우리 절 오세요"

일본 스님, 사찰에 '플라네타륨' 설치해 포교

독특한 방식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사찰이 일본에 있어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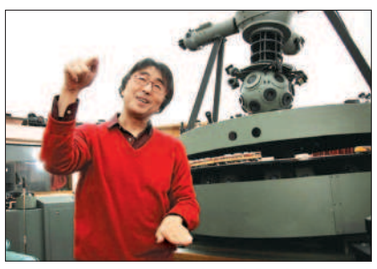
온라인 매체 '마더보드(Motherboard)'는 1월 21일 "사찰에서 우주와 별에 대해 강의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승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도쿄 인근에 있는 쇼간지사 주지인 료 카즈가 스님이다. 그는 승복대신 청바지와 붉은 점퍼를 입고 사찰 경내에 플라네타륨(천체투영관; 천문 영상이나 천체를 반구형 스크린에 투영하는 돔형 극장)을 설치,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천문학 및 불교를 가르친다.

"일본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적습니다. 향후 10년 내로 그들의 관심이 크게 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즈가 스님은 우주와 불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그는 "실제로 우주와 불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플라네타륨은 불교에 관심 없는 이들에게 관심을 끌어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사찰에 '그냥' 오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찰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유년시절 카즈가 스님은 천문학자가 되길 원했다. 하지만 승려인 아버지 영향으로 그는 4살 때부터 불교교육을 받아 꿈을 포기해야 했다.


쇼간지사 주지 료 카즈가 스님은 경내에 플라네타륨(천체투영관을 설치하고,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천문학과 불교를 가르친다.
사진출처=마더보드

일본 불교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겼던 그는 이탈리아로 떠나 음악을 공부했다.

"저는 불교가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본의 스님과 사찰은 시줏돈에만 관심 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학중 그는 부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귀국하게 됐다. 그가 일본에 오자마자 부친이 사망하면서 그는 쇼간지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꼈다.

그는 "신도들 시줏돈으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막연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며 "그래서 불교 가르치는 법을 개혁하게 해달란 조건을 내걸고 쇼간지사를 책임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밀수입에 희생된 거대 코끼리… 극락왕생 발원

스리랑카가 3년 전 포획한 코끼리 상아를 1월 26일 행정수도 콜롬보(Colombo) 갈레 페이스 그린(Galle Face Green) 해변에서 공개적으로 분쇄 · 폐기하고, 스님들은 도살된 코끼리를 위한 천도의식을 거행했다.

도살된 코끼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탄자니아로부터 케냐, 두바이를 거쳐 스리랑카로 넘어와 콜롬보 항구에서 포획됐다. 총 중량은 1,529kg으로, 359개 상아를 지녔다. 스리랑카 코약 2,500만 달러(한화 약 301억 원) 가치다.

한편, 이번 코끼리 상아 폐기는 1989년 이후 세계 대부분 국가서 금지된 '코끼리 상아 밀수입' 문제에 대한 경고 차원서 결정됐다. 코끼리 상아는 약용 및 장신구 용도로 수요가 높아, 아시아 지역서 밀거래 사건이 빈번히 적발되고 있다. 사진출처=NEWSMAX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4권의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대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값 15,000원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각권 12,000원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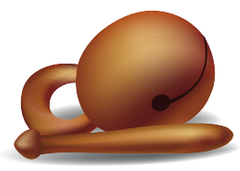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언제나 깨어 있어 잘 깨닫는 그는 부처님의 제자다.
낮이나 밤이나 자비를 생각하고 한마음으로 자비를 즐긴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건강태극권수련
출장지도가능
20년수련
사주, 풍수
031-591-9023
보현수련원

수강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원장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 대구 길상사 주지
주소 : 대구 중구 대봉2동 744-21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 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황토와 편백나무로 지어진 집
암환자나 난치병 환자를 받습니다.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풍광, 항상 산소가
녹아있는 1급수 약수터,
주위 숲속 산책로, 서울에서
가까운 용인에 위치.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31-333-5014.010-7105-5013
수정산 수정사

요양원 매매 임대차
입소상담 요양자 취업
요양시설 설립예정자
포교원 운영할
참신한 스님 초빙
010-5381-1419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학마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암자 처사(기사)님 모십니다
(50세 이상, 경기 성남)
숙식 필수
010-5264-8312

비구니 기도 스님 모십니다
(50–60세)
공부하시면서 기도하실 분
010-9340-39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인천 지역)
010-8961-549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대중반 – 50대 초반)
모든 것 전수해 드리고
절까지도 인도해 드립니다.
010-6674-1356

주지 원함
스님이 없는 가난한
절을 도와드립니다.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법납 40세 비구스님
010-7629-134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종교부지 환영합니다
경기지역 3000평이상
종교부지 소유자 환영
(불사동참) 하겠습니다.
010-8961-5498
소승 합장

기치료,기마사지
전국 수도자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
정진 중 생긴 몸의 이상 변
화나 기혈의 막힘. 갖가지
질병 등을 치유해 드립니다.
010-8227-3627
(경북 성주군 수륜면 위치)

신통력을 전수
스님에게만 은밀하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지극한 신심으로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5121-334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10-2627-8574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삼방동 신어산 동림사)
055-337-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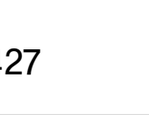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재 철학관 수강생 모집
암기없이 바로 적용하는 '필살기'
네이버,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중국 귀장술, 일본 도궁술 단기 완성
문의전화 010-8558-2345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010-3499-372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①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②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③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한국불교전체 종단 · 단체 법인연대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 연합회



● 종단법인 설립
사암등록 안내
● 민법 · 문화광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문의
● 종무행정
010-2500-0111 / 011-356-3427

사찰홍보동영상제작방송
연 합 불 교 방 송
010-2500-0111,010-5334-9008

이것이 정통 풍수다!!

※ 산승이 수십년간 산야를 섭렵궁구해오다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짚어내며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태극혈맥지리에 달통 전수코자 합니다

방술회원 모집

◆모집자격 : 위 원리를 꼭 달통코자 할 분만 덕숭산 방술(평생)회원으로 접수 합니다.
◆강 습 장 : 절로암 참설당과 덕숭산내 간산실습장
◆강습일정 : 3월초부터 강습예정 (혈맥이론 실습 병행)
수시강습(1:1 집중강습) 정기강습 및 간산 (월1~2회)
◆회원가입비 : 일정의 시주금(천년마애삼존불사)
◆교구재 무료제공 : 부교재, 패철, 혈맥기봉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1(광천리 866)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 천 공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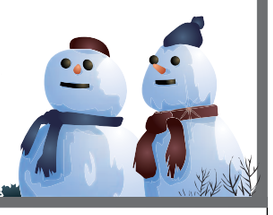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넓은 터전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삼량진
- 총부지 : 33,000평
- 건물 : 목조법당(10평), 암벽위 목조 산신각, 요사채(5동), 계곡물 철철 흐름
- 가액 : 6억 6천

051-863-6622/010-3560-8522

▶바닷가 부근 토굴◀
- 위치 : 통영 (통영 중앙시장 3분거리)
- 총부지 : 약 100평 **(2종주거지역)**, 주차가능
- 건물 : 법당 20여평, 요사채, 기타
- 양도가 : 1억 2천

010-3560-8522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보유 사찰 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계사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제천시 추천사찰안내 (www.이박사.com)

- 법당 45㎡ 한옥요사채 80㎡
- 토지 250㎡
- 제천시장부근, 유동인구 많음
- 포교사찰로 적당함
- 가액 : 1억 6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위치: 경기
◎ 대지: 60평 ◎ 대지: 220평
◎ 법당: 30평 ◎ 법당: 40평
◎ 요사: 60평 ◎ 요사: 60평
◎ 양도: 10억 5천 ◎ 양도: 7억2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 요사채: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불국역 부근
- 대지 200평, 건평 25평 (대웅전), 산신각
- 요사채 12평, 대웅전 및 방3개 주방
- 가액 : 2억 9천(조절가능)
- 최고 입지적 조건 갖춘 암자임

010-5427-3699

사찰(급)안내

- 위치 : 단양 토굴 양도
- 토지 4,500㎡, 검루 75㎡
- 전망좋음
- 노천불, 광수원 수입 있음
- 뒷편산이며 교통편리함
- 가액 : 2억 8천만원(융자가능)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3억 3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KTX 울산역 10분거리
- 대지 3,300㎡ 국유지 660㎡
- 대웅전: 목조칠보삼존불, 나한전, 삼성각, 공양간, 요사채 2동 그외 다수 각종 조경수와 연못 산세좋고 깨끗한 계곡물
- 가액 : 23억(융자 5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010-5346-4138

암 자 안 내

- 위치: 경주시 충효동 981-3번지
- 구미산(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땅값만 주세요
- 가액 : 6천5백만원(조정가능)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지역 문막 IC에서 5분거리
- 평수 280평, 대지200평
- 법당:목조로된 황토 건물 임법당 30평 요사채 15평
- 특징: 마을 끝 산 밑에 위치함 (전원 주택가능)
- 가액 : 3억 2천 (원주시내 10분거리)

010-9070-9380

사 찰 안 내

도심속 현대식 건물 사찰

관심 있으신분

전화주세요

- 가액 : 13억

010-3860-1228

도심속의 작고 아담한 포교원

- 위치: 대구 서문시장 부근
- 철학이나 영으로 포교하실분
- 관세음보살, 호신불, 신중
- 방2개, 주방, 욕실, 창고
- 총 13평
- 가액 : 6,500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439-1231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김해
- 평수 248평
- 법당23평.요사채.방가루
- 마당잔디.조경전망좋음
- 시청, 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5억7천5백만원
-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현재 법회중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산중 불사중)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 부산 사하구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로 사용공간 약 20-30평 공간있음
-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 가액 : 2억 5천 전세 8천만원에 월 100만원

010-4519-7780

대형 포교원

- 위치: 대구 시지 지하철 신매역 1번 출구 1분거리
- 8층 건물 5층 120평,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10만원, 관리비 50만원
- 남향이라 환하고 겨울 따뜻, 법당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
- 큰법당 +큰방+종무실+종무실방+주지실+기도실+탈의실2+주방 (전체 강화마루+보일러+방음벽+이중창 시공으로 조용)
- 불교대학, 선방, 명상요가수련원으로 적합
- 주말 주변 주차 대량 가능
- 주변에 상가, 학원, 병원, 학교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
- 인테리어 1억 이상 완벽한 시설 일체 보시 (청도에 대형 템플스테이 불사 완료한 복 많은 포교원임)

문의 : 010-3487-003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5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소재
- KTX 역세권, 조용한 산사
- 교통편리, 주차장완비
- 대 197평, 법당 30평
- 요사 1동(방3), 산신각1동 5평
- 양도가 : 3억 5천만(절충가)

010-6658-1681

포교원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역 5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 욕실, 주방, 방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에어컨, 큰 냉장고
- 금장큰연등 30개, 가족연등 210개, 영가연등 156개, 인등 150개
- 주차 2대가능, 종교인은 누구나 가능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2층 전체 도시가스 보일러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10만원, 시설비 3500만원(조정가능)

010-4646-3638

건 물 안 내

- 위치: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93
- 정남향집(급) 단층 슬라브
- 대지 41동, 건평 19평
- 방큰방 1, 작은방 3개
- 가액: 은행 3천만원 안고 6천 800만원
- 비구니 스님에게 좋은집

주인직 : 051-852-1810
010-3598-5470

사찰 및 요양원 안내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요양지. 건강상 급양도

– 사 찰 –
- 위치: 경남 밀양
- 2층: 법당 3존불(25평) 1층: 칠보관음궁전 천불상(30평)
- 요사채 45평, 큰방 3개 황토방 1개

– 명당 터 –
- 1층 90평, 2층 90평
- 입소정원 25명, 현원 24명

※ 요양원만 분리 양도 가능

- 총 대지면적 약 900평 / • 총가액: 19억

010-9567-0813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2개, 화장실
- 총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포교원(급) 사찰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대지 75평 (만불사 인근 2차선도로)
- 가옥건물 건평 15평 (마당 활용가능)
- 포교당 및 사찰용도로 적합함
- 최근 리모딩 했음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 가액: 1억 5천만원

010-5277-0259

시골집 (급) 안내

- 위치: 경북 영덕과 영양관내 외딴 곳
- 농가주택 여러동 보유
- 가액 : 1,500만원부터 8,500만원대
- 희망하는분 전화 하세요

010-7621-7621
010-8899-8899

불심깊은도시 경북 영주

포교원을 양도 합니다
- 3층 건물 2층(3층 주인 살림)
- 55평(방 2, 요사, 공양실, 화장실 2)
- 법당(단청, 운각,6지장보살 봉안)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보시고 판단)

010-6472-562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구서동 전철 2분거리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5평, 방3, 주방, 화장실, 도시가스 • 삼존불, 지장
- 가액 : 2,000만원 60만원 또는 3,000만원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1750-4040

사찰 전세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전리 1221-1, 1221-2
- 법당 30평, 요사채 35평, 산신각 5평
- 종무소 컴퓨터 및 모든 집기류 일체
- 사찰로서 모든 것 구비

010-2204-23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거제(앞바다, 뒷산)
- 대지 252평(터밭 50평)
- 2층건물 1층 큰방 2칸, 상담실, 샤워장, 화장실, 2층법당 23평, 삼존불
- 요사채:창고 10평, 방2칸, 공양간 심야보일러, 남 녀 화장실
- 해수관음, 다보탑
- 가액 : 4억 7천(대출 1억 안고) 3억 7천(절충가능)

010-5121-334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 3천 (가격절충)

010-2384-032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면
- 3층 건물 중 3층
- 법당 27평,삼존불,집무실,방
- 주차 20대가능
- 몸 만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3502-261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남로 버스정류장 대로변
- 상가 2층. 50평이상 방 2, 화장실2, 주방, 각시설완비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3700-3628

포교원 안내

- 위치 : 창원시 중앙동 요지
- 실평수 40평 3층, 방 2
- 욕실, 공양간, 도시가스설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337-7766
053-325-04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120-1
- 대지 : 104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허가유 2층 법당, 신당 무허
- 법당 : 2층 약 30평 법당 삼존불 모심 20평, 신당 10평
- 요사채: 1층 약 35평
- 가액 : 약 4억

010-2575-3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바닷가 5분 거리
- 대지 : 183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방 4개 주차시설 완벽
- 가액 : 4억 1천

010-4155-272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돌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문막 IC에서 5분거리
- 대지 183평, 요사채 60평 (큰방4, 큰거실2, 화장실2)
- 인법당 2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9330-586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다용도 토지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별장
- 가액 : 4억 8천(융자포함) 전세가능

010-4234-253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 대지 약 42, 건평20
- 법당(상단, 신중, 산신 용왕 등)
- 방2 공양간 욕실 실내외 화장실
- 도심밀집,뒷산, 동남향,기도처
- 절앞 차량 진입
- 집기일체 시설포함(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몽땅 7천백만원

연락처 010-8503-60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16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8기 수강생 모집 안내

그동안 **제1기에서 제7기**까지 전국에서 **9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배우신 모든 스님께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심>

강의 특징

7개월 동안의 교육기간중 5개월은 초보부터 고급, 비법까지 완벽하게 전수 2개월은 사주팔자를 뽑아 놓고, 운세나 운명을 정확하게 직접 통변 할 수 있는 통변술(추명술)을 가르쳐 드림.

명리학을 배우시고 통변을 못하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통변이 자신 없으신 스님들께서도 이 기회에 신청하셔서 배워보십시오.

대상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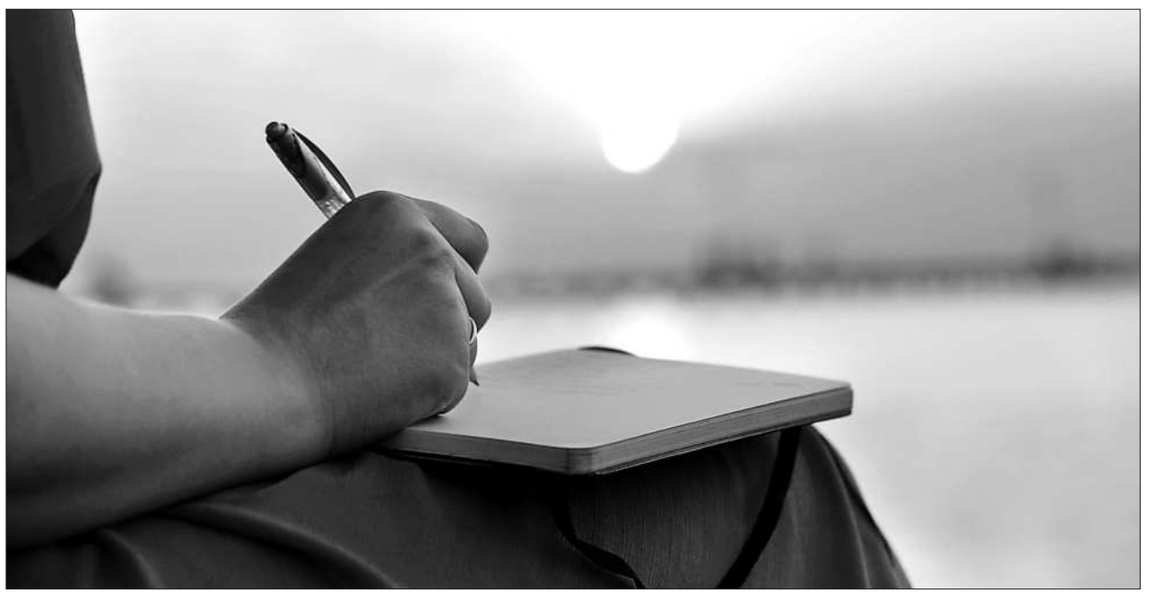
◆ 교육기간 : 2016년 3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
◆ 수 강 료 : 7개월 교육전기간 강의료 무료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책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 대금 20만원)

상담문의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기적의 명상치료

〈9〉 응급용 도구 상자 만들기

“초심자 마음에는 온갖 가능성 가득”



1달 후 나에게 편지 쓰기
초심 일깨우기 위한 목적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
때에 맞춰 창조·유연해져야

응급용 도구상자 만들기

“일전에 우체국에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봉투를 보자마자 누가 보낸 것인지 알겠더군요. 조용한 장소를 찾아 혼자만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 안에 적힌 말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로티는 최근에 마음챙김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편지 안에 담겨있을 이야기에 대비해 자신을 정신적으로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편지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기까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층 화장실로 갔어요. 거기가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거든요. 어떤 여자들은 자기만의 안방이 있지만, 제게는 화장실이 그런 안방이에요. 나는 화장실에 앉아 눈에 익은 필체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담긴 진심어리고 중요한, 그리고 사려 깊은 충고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편지는 내가 나에게 쓴 편지예요. 걱정 마세요. 나는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정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니니까요. 이 편지는 내가 참가했던 마음챙김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시험으로 썼던 편지예요. 그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이 편지는 8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 쓴 것이었어요. 마음챙김이 왜 중요하고, 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쓴 편지죠.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한 다음 강사 선생님에게 건넸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선생님은 이 편지를 집으로 부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여기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로티에게

작은 일들로 걱정만 하고 살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고 소중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매 순간을 느끼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해. 만약 통증이 있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거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행해지는 기분이 들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너 자신의 반응을 바꿔봐. 너는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에게 연민과 공감을 느낄 줄 알고, 타인을 다정하게 대할 줄도 알지. 이제 그 연민과 다정함을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줄 때가 되었어. 괴로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봐. 그런 감정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매일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해 봐. 5분이어도 좋고 40분이어도 좋아. 명상은 너의 건강과 안녕에 무척 중요하고, 삶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할당받을 자격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호흡을 하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해 봐. 너는 건강, 행복 사랑, 기쁨, 그리고 네가 꿈꾸어 왔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진정으로 풍요로움과 기쁨을 바라보고 거기에 감사할 줄만 안다면 그것이 너를 감싸게 될 거야.

- 사랑이 담긴 친절함으로 로티가

로티가 자신에게 쓴 편지는 마음챙김에서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혜택을 아름답게 전달하고 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도 이와 비슷한 편지를 자기 자신에게 적어 봉투를 봉한 다음 친구에게 한 달 후 자기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하라고 권할 예정이다. 이 편지는 당신이 마음챙김 수련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주는 8주간의 건강을 위한 마음챙김 프로그램 중 마지막 주지만, 이후로 이어질 나머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8주차는 하나의 이정표나 다름없다. 이 장에서는 지난 주까지 배워 온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고 당신이 수련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원한다면 보다 심도 깊은 마음챙김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3가지 마음챙김 기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당신은 세 가지 핵심적인 마음챙김 기술을 배웠다.

집중된 의식- 차분한 안정감을 키우기 위해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열린 관찰- 자신의 마음을 넓게 탁 트인 의식의 장 안에 두고 인생의 경험들이 매 순간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좀 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삶을 좀 더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 친절, 연민-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비슷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스트레스와 반사적 행동이 해소되어 삶이 다시 한 번 따듯하고 건강해지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조, 각 프로그램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본다.

1주차에는 의식을 호흡과 몸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중력에 저항하느라 긴장을 만들어내지 않고 체중을 완전히 중력에 내맡기는 법을 배웠다. 수련이 깊어지다 보면 괴로움의 두 가지 유형이 천천히 분리되며 그 실체를 드러낸다. 바로 1차 괴로움과 2차 괴로움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1차 괴로움은 피할 길이 없지만, 2차 괴로움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실제로 느끼는 통증과 괴로움의 대부분은 2차 괴로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괴로움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초기 프로그램에서는 마음의 행동 모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하며 세상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행동 모드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지만 이 모드가 자신이 해낼 수 없는 일까지 하겠다고 나설 때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이를테면 감정이나 복잡한 마음상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려 들거나, 만성 통증이나 질병을 없애 보겠다고 달려들 때다. 이것은 2차 괴로움을 유발하고,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탈진 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행동 모드를 존재 모드로 바꿔 주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몇 주에 걸쳐 당신은 존재 모드가 모든 생각과 감정의 구름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순수한 의식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존재 모드는 당신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생각과 그것의 변덕스러운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 준다. 당신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의식하면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당신은 생각 안에 갇혀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물러나 생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님을 배우게 되었다. 일부 생각이 아무리 자기가 사실이라 우기더라도 말이다.

다음으로 마음챙김 동작 운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호흡을 몸의 더 큰 동작으로 확장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마음챙김을 일상의 크고 작은 모든 움직임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어서 페이스 조절을 통해 자기만의 ‘마음챙김 리듬’을 발견하고, 과열과 파열의 주기로 빠져들지 않게 피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가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을 배웠다.

몇 주가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을 향한 받아들임과 연민의 감각을 키움으로써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판적으로 변하는 성향에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 더불어 불편을 친절함과 다정함으로 대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부분(1차 괴로움)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부분(2차 괴로움)은 바꾸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즐거움에 감사하는 마음의 문을 다시 한 번 열어 주었다. 일상생활의 즐거운 측면들과 다시금 이어지는 것은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다.

다음으로 마치 사진기의 광각렌즈처럼 의식을 넓혀 경험을 담는 큰 그릇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당신에게 즐거움과 통증을 동시에 느끼는 능력을 부여해서 늘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따듯함과 연민의 감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듯함과 연민이 당신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바꾸어 주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이라 말하기 충분하지 않았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당신은 연민의 범위를 좀 더 넓혀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의식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서 타인으로 확장하는 법을 배웠다.

지속가능한 명상법 찾기

자신이 수련을 지속해야 할 가장 심오한 이유와 바람이 무엇인지 조사해보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위에 정리해 놓은 이유 중 한두 가지로도 충분할 테지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이유를 파고들고 싶어질 것이다.

수련을 지속할 이유로 무엇을 발견하든 간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명상이 무엇인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은 돌에 새겨진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하루가 지나 달라질 수도 있고, 해가 지나 달라질 수도 있다. 어떤 때는 그저 호흡과 몸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바디 스캔 명상이나 호흡의 닻 명상을 해야겠다 싶은 날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날은 고립된 느낌이 들어서 유대감 명상을 통해 삶과 다시 이어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만약 통증과 스트레스가 재발한 경우라면 연민 어린 받아들임 명상이 특히나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면, 이런 수련들을 어떤 방식으로 엮어도 상관없다.

어떤 명상을 선택하든 창조적이고 유연해지자. 수련에 들어갈 때마다 신선하고 경이로운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보자. 여기 신선하고 순수한 의식에 딱 맞는 기분 좋은 문구가 있다. 바로 ‘초심자의 마음’이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겸손과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스즈키 순류 선사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초심자의 마음에는 온갖 가능성이 가득하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

만성 통증, 질병,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삶은 정말 견디기 힘들어질 수 있다. 세상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같고, 마치 세상 자체가 애초부터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시련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만 같다. 하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내면의 자신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자신에게 약간의 친절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욱 위대한 의식과 연민으로 흘러가는 작은 물살을 내면에 만들어낼 수 있다. 시냇물은 작은 개울로 자라나 마침내 강을 이룬다. 그리고 그 흐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해져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한 따듯함과 연민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내면에 자리 잡는다. 이 따듯함이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녹여 진정한 행복의 느낌을 남기게 될 것이다. 〈끝〉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기적의 명상치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2기 보경사 염불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각단 불교의식 및 기초교리 6개월 과정

보경사 염불대학원에서는 각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교육과정 –

초급과정(불교의식) 6개월 과정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 39 위작법, 관음시식(불교기초교리)
- 사 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 강주스님 : 일관

* 6개월 수련 후 법사자격증 부여, 숙식 제공가능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 개강일시 : 2016. 3.1(화) 오후 2시
→ 수 업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
→ 문 의 : 보경사 종무소 054-262-1117
강 주 스 님 010-9361-5566
→ 주 소 : 경북 포항시 송라면 보경로 523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보경사 선원장 철산 합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설법



눈이 내린다.

세상의 모든 길이 길 밖으로 나와 눈을 맞고 거대한 문명은 모든 결행을 멈추었다. 특별한 시간이다.

빛의 속도로 사라지던 시간의 간격은 어느새 백색의 속도에 발을 맞추어, 쫓기듯 살던 골목도 모처럼 느긋한 저녁을 맞는다. 마음마다 없던 마음이 일고, 생각마다엔 예전에 볼 수 없던 모양들이 보인다.

마음이 한 칸씩 늘고 집들은 벽을 허무는 시간. 근심도 아픔도 유예된 시간. 눈이 오는 날은 그렇게 세상이 달라진다.

저 깊숙이 산사의 마당에도 눈이 내린다. 대중은 비 한 자루로 길을 내고, 칠백 년 대웅전이 눈을 감는다. 비 한 자루에 길이 생기고, 소리도 없는 눈송이에 대웅전이 눈을 감았으니 설법이 따로 없어라.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천 개의 손 下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다

아빠는 가구 공장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따뜻한 나라에서 이곳으로 일하러 왔는데, 연수 기간이 끝나고도 돌아가지 않았다. 엄마에게는 병에 걸린 아버지와 보살펴야 할 동생들이 많았다. 엄마는 사람들을 늘 조심스럽게 대했다고 한다. 아빠는 엄마의 큰 눈망울이 좋았다고 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와 흘러내린 머리칼을 귀 뒤로 쓸어 넘기는 가느다란 손가락과 크고 넓적한 앞니를 보이지 않으려고 입술을 다문 채 수줍게 웃는 모습이 좋았다고 했다.

아빠는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노래를 배워서 엄마에게 불러줬다. 엄마는 그 노래를 들을 때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난다며 자꾸만 아빠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 진호를 낳고 엄마는 엄마의 나라로 떠나야 했다. 다시 돌아와 아빠와 결혼하고 이곳에서 살기로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엄마가 다시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엄마는 꼭 돌아올 거야. 아빠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엄마와 아빠에게는 우리 진호가 있으니까. 진호가 열한 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빠와 진호는 믿고 있었다. 엄마는 곧 우리 곁에 있게 될 거라고.

"아빠, 그 알은 어떻게 됐을까? 아빠 펭귄이 그 알을 잡았을까? 아니면 너무 멀리 굴러가서 얼어 버렸을까? 아빠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너무 춥고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일어나요. 눈을 떠요. 아빠. 엄마는 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엄마가 돌아온대도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아빠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두고 떠나지 마요, 아빠."

비가 왔다. 모든 것이 젖어 버렸다. 진호의 책도, 밥솥도, 아빠와 진호의 옷들도, 이불도. 진호에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주었던 것들인데, 집 밖에 나와 있으니 무척 초라해 보였다. 내놓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았다. 사람들은 누군가 함부로 버려놓은 쓰레기더미처럼 진호의 물건을 보며 인상을 썼다.

집주인 할머니가 진호와 마주칠 때마다 집세를 내놓으라고 닦달을 해도 진호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밥을 지어 먹고 학교에 다녔다. 언젠가부터 할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갔다. 책도 가방도 모두 집에 있어서 진호는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아빠가 다시 건강해지면 저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진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첩은 꼭 가져와야 해. 거기엔 엄마의 사진과 주소가 있으니까. 사진 속에서 엄마는 늘 웃고 있었다. 커다란 진호의 눈은 엄마를 닮았다. 동글동글한 콧방울과 넓적한 앞니도.

아빠는 엄마가 적어놓고 간 주소로 편지를 썼다. 진호가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진호의 편지도 함께 부쳤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한 문장을 쓰고 나면 어떤 말을 더 써야 할지 몰라서 진호는 편지지를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엄마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엄마는 왜 답장을 한 통도 보내지 않았을까. 아빠는 주소가 잘못 되었거나, 어쩌면 엄마가 이사



그림 · 강병호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도 언젠가 편지가 엄마에게 전해질지도 모르니 계속 편지를 쓰자고 진호를 다독였다. 진호는 알고 있었다. 아빠가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건, 그것이 엄마를 위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수첩은 어디쯤 있을까. 책가방 안에? 아니면 책더미 속에?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 수첩을 가져오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호는 몇 시간째 골목 모퉁이에서 비를 맞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집주인 할머니가 창가에 서서 진호가 오는지 내다보고 있을 것 같았다. 마르고 주름진 갈퀴 같은 손으로 진호의 손목을 낚아채고는 집세를 내놓으라며 경찰서로 끌고 갈 것 같았다.

차가운 바람이 진호의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것은 바람만이 아니었다. 창문에 서서 진호를 보고 있을 것 같은 주인집 할머니의 눈빛과 사람들의 싸늘한 말투, 무심한 듯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서 다 냉기가 끼쳤다. 덜덜 떨리는 몸을 잔뜩 움츠렸다. 온몸이 꽁꽁 얼어버릴 것 같았다. 몸속에 흐르는 혈액까지도.

어디선가 향내가 고요하게 풍겨오고,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진호는 눈을 떴다. 향림 스님이 빙그레 웃고 계셨다. 여긴 어디일까.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병원까지는 어떻게 왔던 것 같은데 그 후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행이구나. 이렇게 깨어나서. 병원에서 쓰러졌단다. 온몸이 젖은 채로 열이 펄펄 났었지. 언제나 밝게 웃고 씩씩해서 진호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걸 몰랐네. 정말 미안하다."

향림 스님이 미음을 입속에 흘려 넣어 주었다. 따뜻한 기운이 입속으로 들어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스님, 저기 그림 속에 저분은 누구세요? 손이 왜 저렇게 많아요?"

진호는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다. 얼굴이 둥근 사람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커다란 꽃잎 위에 앉아 있었다. 반쯤 감은 눈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입가에는 미소가 잔잔하게 머물러 있었다. 뒤에는 무수히 많은 손이 그려져 있었는데, 손 하나하나가 찬란하게 빛나서 빛무리 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이시란다.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셨지. 천 개의 눈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세세하게 보시고, 천 개의 손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보살피신단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관세음보살님은 모두 알고 계시지. 나를 너에게로 이끈 것도 바로 저분이셔."

"눈이 천 개나 있으니 이 세상에 못 볼 것이 없겠네요. 그럼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계실까요?"

"물론이지. 진호가 다 나아서 씩씩하게 일어나면 같이 엄마를 찾아보자. 천수관세음보살님이 함께 하시니 엄마를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미음을 먹고 진호는 다시 까무룩 잠이 들었다. 잠결에 진호의 이마를 만지고 머리칼을 쓸어 넘기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 온기에 진호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단단한 얼음 조각까지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엄마?"

진호는 떠지지 않는 눈을 뜨려고 애썼다.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모습은 이마가 환하고 얼굴빛이 고운 향림 스님의 모습이었다가 까만 얼굴에 큰 눈을 가진 사진 속 엄마의 모습이었다가 이내 빛 무더기에 어른거리는 그림 속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되었다. 관세음보살님의 수많은 손 가운데 하나의 손이 진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다.

진호는 느낄 수 있었다. 아빠의 병상 위에도, 먼 나라에 있는 엄마에게도, 눈 위를 구르는 펭귄의 작은 알 위에도 따뜻한 손길이 머물고 있음을. 진호는 다시 눈을 감고, 달콤한 잠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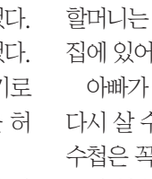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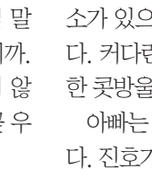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 수행 화두집〈平溫〉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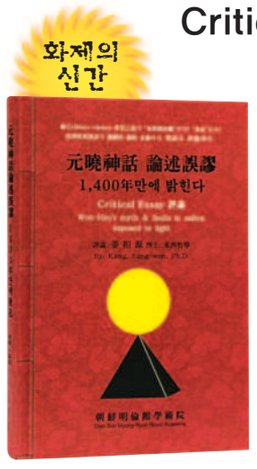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設한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論爭,鬪爭,戰爭,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택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를 건립 추진중 이다.

문의 1899-9532

元曉 神話 論述誤謬
1,400年만에 밝힌다
Critical Essay 評論



원효기신론소에 依據하여 한역경전오류를 그대로 인용 記述(기술)하여 대부분 한문불교용어를 직역하여 기술하였다.
예컨대 薰習(훈습)을 世間衣服(세간의복) 혹은 香氣(향기)라고 기술하였다.

훈습은 妄心이고 現妄境界이다. 즉 정각실체를 방해하는 작용이다.

如來藏(여래장) 思想(사상)에서 淸淨心如來藏(청정심여래장)과 識藏(식장) 如來藏(여래장) 즉 Alaya 識如來藏을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다. 元曉가 혼동 혹은 오류를 汎(범)한 부분을 2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評論하였다. 漢字佛敎用語 5,000字를 梵語(범어)와 漢文으로 정리하고 論述하여 評論하였다.

※ 目次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격 150,000원
■ 저자 직접 구입 : 강상원
010-9134-4505 / 010-5213-6677
■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朝鮮明倫館學術院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082호 현대불교
2016년 2월 3일 (12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그냥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공!

왜 삼독마저 둘로 보지 말라는지?

질문 탐진치 삼독을 끊고 소멸시켜야 내가 청정해지고 부처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스님께서는 탐진치 삼독마저도 둘로 보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옛날에 어떤 어른이 "쓰레기통이 돼 봐야 쓰레기의 이치를 아느니라. 금은보화 담은 창고가 되지 말고 쓰레기통이 돼라." 하셨는데, 예전 일입니다만 왜 그런 소릴 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쓰레기통에는 별의별 게 다 담깁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라는 건 고귀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아주 그냥 팽개쳐져 있죠. 그 쓰레기통 노릇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다면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쓰레기 같은 것은 자기가 갖고 좋은 것은 자식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은 부처님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죽는 것마저도 그렇죠. 자세히 말을 하자면 부모의 마음이 죽는 것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돼 있죠. 사는 것도 그저 고생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의 소망이 작고 클 뿐이지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생자부(四生慈父)로서, 알로 낳고 태로 낳고 습한 데서 낳고 화(化)해서 낳고 하는 그 사생들이 전부, 자기 몸 아님이 없고 자기 아픔 아님이 없고, 한 도량에 있지 않음이 하나도 없고, 죽고 사는 것도 자기 아니 됨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고로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 생각하는 것과 부처님이 사생자부로서 생각하는 바가 크고 작을 뿐입니다. 우물물과 바닷물이 크기만 다를 뿐 물은 같듯이.

우리가 생활할 때 항상 주인공, 나의 불성 뿌리에다가 모든 거를 놓으라고 하죠. 좋은 것은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거는 언짢지 않게 하는 것도 너라고 놓고, 그렇게 오신통을 잘 굴리라고 했습니다. 오신통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또 내가 어디서 나온 걸 아는 거 말입니다. 또 상대성을 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문제를 볼 때에 거기서 나오는 모두를 거기다 놓되,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게 놓고, 하나는 구정물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맑은 물로 대치할 수가 있다는 믿음으로 놓으라는 얘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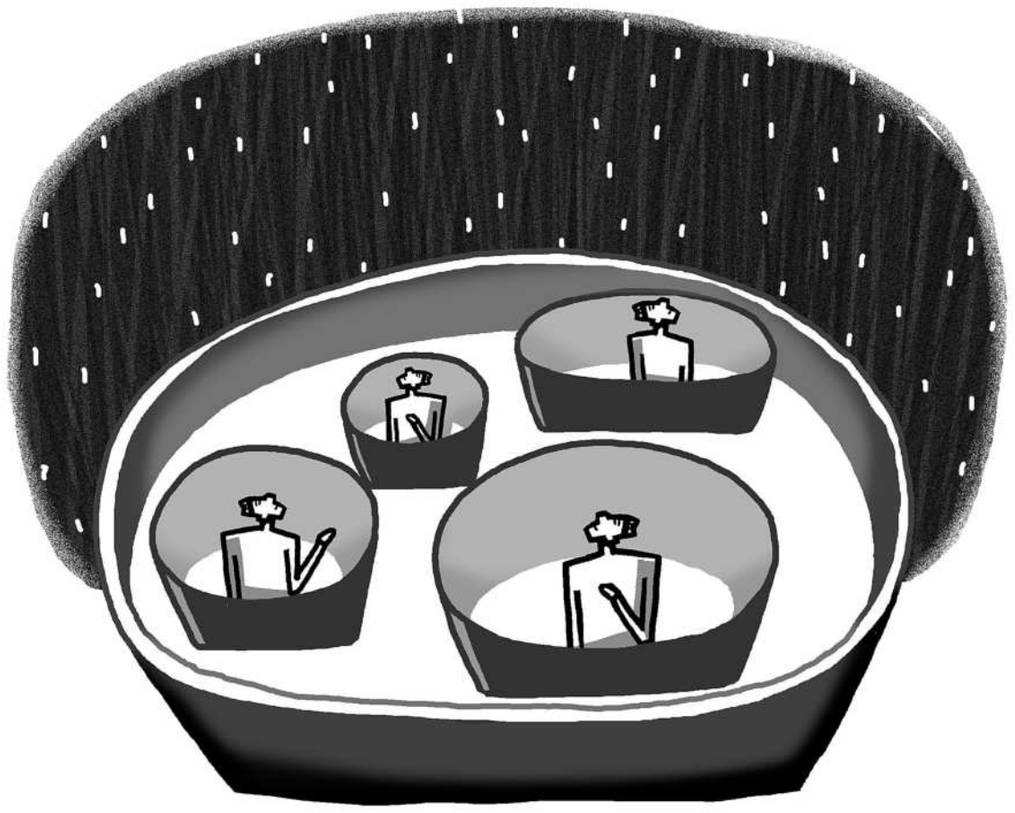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나는 이렇게 곧바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만 수많은 조사들이나 수많은 스님네들은 "탐진치(貪瞋癡)에 구르면 삼독(三毒)에 빠진다. 삼독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그것을 넘어선 얘깁니다. 고(苦) · 집(集) · 멸(滅) · 도(道), 이런다면은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고가 있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가 감사하게 놓고, 굴려서 놓고, 다 놓는다면 '멸'이 됩니다, '멸!' 일체, 일거수일투족이 다 '멸'이 됩니다. 그래서 삥삥 돌리지 않고 직선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을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놓게 되면 '멸'이 되는 이치에서, 자꾸 멸해 들어가면은 '도'다 이겁니다. '멸, 도' 아닙니까? '멸' 하면 '도'다 이거예요.

이 '멸'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실생활 속에서 감사하게 놓고,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 거기다 놓을 때에 바로 멸함이 생기면 도가 있고, 도심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넓게 볼 줄 알게 되고, 넓게 들을 줄 알게 되고, 넓게 말하게 되고, 지혜롭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둥글게 나온다는 얘기죠. 둥글게 나오고, 그 둥글게 나오는 반면에 우리는 '아, 이거 둘이 아닌 까닭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굴릴 수 있게끔 될 때에 비로소 웃물이나 바닷물이나 똥물이나 핏물이나 흙물이나, 어디에든 젖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물 저 물 따지지 않고 젖는 거. 젖는 이치! 어디든지 다 젖는다. 어떠한 물에도, 똥물에도 젖는 것은 마찬가집니다. 이 방편의 말을 안 하면 그 이치를 모르겠기에 방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젖는 이치만 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의 그 뿌리에 모든 것을 놓는다면 하나에 젖을 뿐이지 이것저것 가리는 게 없다. 가리는 게 없는 반면에 젖는 걸 알고, 젖는 걸 아는 반면에 그 젖는 거마저도 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최상승의 얘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해 나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득이 없다면 할 것도 없지요. 할 것도 없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이득이 충분하고 남과 나에게 다 이득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할 것이 없다' 할 때까지…. 우리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끝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거를 아신다면 젖는 도리마저도 공했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천차만별의 굴림이 있겠지만 단 한 군데서만이 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단 한 군데서만이 전체가 통할 수 있다는 사실! 그 한 군데서만이 상대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한 군데서만이 나투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든 산 사람의 영혼이든 찰나찰나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살았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고 죽었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쓰레기통이 되는 것도, 어떠한 거든지 막론해 놓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불로 가고, 물로 가고, 또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그렇게 정리를 잘해서 다시금 이 세상에 조립을 해서 내놓을 때 쓸모 있는 기계로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이죠. 그런데 재생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뭐냐 하면 끝없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진화돼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또 진화돼서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과정이 끝이 없으니까요. 다함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다함없는 그 속에서, 끝없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집착과 마음 내는 것에 대해서

질문 저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믿고 맡기면서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생활하는 과정에서 늘 어떤 대상, 인물이든지 사물이든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마음을 내야만 성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착이라는 것과 다소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글쎄, 자식들 때문에 안달을 하든 또는 사업 때문에 안달을 하든, 둑이 무너져서 안달을 하든 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해요?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었었나요? 닥치면 닥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 열 번 뛸 거 한 서너 번밖에 안 뛰거든요. 그렇게 뛰면서, 하는 것을 그대로 주인공이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서 '나는 이렇게 뛰고 이러는데….' 주인공 따로 또 두고. 그럼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되잖아.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습이 돼서 이렇게 뛰는구나! 이거 주인공한테 다 놓지 않고 이렇게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주인공이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애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또 사업을 위해서

☞ 26면으로 계속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福 謹賀新年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 승

부 종 정 인 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부의장 해산
총무부원장 혜관
총 무 부 장 성우
규 정 부 장 혜륜
종 회 의 장 지경
교 무 부 장 정현
사 회 부 장 불암
재 무 부 장 송광

사 정 원 장 명산
포 교 원 장 명재
문 화 원 장 지향
수 선 원 장 지화
기 획 원 장 성각
교 육 원 장 남륜
사정부원장 정산
포교부원장 보명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부원장 성덕

서울경기교구원장 보 명
충 북 교 구 원 장 지 허
전라남북교구원장 명 재
충 남 교 구 원 장 지 향
경남울산교구원장 해 산
대구경북교구원장 어 산

중앙종회
종회의원 명재 보명 일선 지향 성현 성각 일천 정연 어산 정산 보광 지화 지연 자원 성우 성덕 혜인 근혜

종도 일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전화 043)857-0108 / 팩스 043)847-0118

한국불교태고종

율 곡 사

주 지 혜 령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범음기능보유자

율곡범음대학 의식교육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269-4번지
TEL 062)263-4575

사람을 찾습니다

■ 성별 : 여자
■ 나이 : 32세 갑자생 1984년생

이름은 미상이고 헤어질 때 경주 이씨라는 쪽지만 품에 넣었다 함.

헤어질 때 출생 후 4개월 정도였음. 32년전, 아기 할머니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법수선원에 주석하시다 열반하신 성수 큰스님을 친견 하러온 비구니 스님을 만나 사전에 협의하고 몇일 후 만나 아기를 맞겼다 함. 꿈에도 잊지 못합니다.
아가를 넘겨줄 때 품속 쪽지에 생일은 음력 2월 1일이고, 아빠는 이씨라고 써서 넣었답니다.

아시는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엄마 010-7553-8463

내 마음이 밝혀지면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도 밝혀진다!

☞ 25면에서 계속

뛰는 것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공 놈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놈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 이렇게 지금 하고 가는 일,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 이끌어 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것은 자기더러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둘로 보질 말아요. 둘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뛰는데…. 주인공한테 이렇게 맡기지 않고 나는 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그렇게 뛰고 지금 가고 있잖아! 몸뚱이는 주인공 시자니까. 마음의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뚱이와 생명이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나는 착이 있고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뛴다고 생각질 말고 그대로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둘로 볼 것도 없고 말입니다.

백팔염주의 뜻이 무엇인지요?

질문 보통 불자들이나 스님들께서 목에다가 염주를 걸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 염주알이 108개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답변 백이라는 것은 이 큰 우주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 개라는 거는 사무 사유의 즉,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모두를 말하고요. 이 세상 팔도라고 비유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 사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의 반, 보이는 데 반입니다. 죽는 거 반 사는 거 반. 그럼 이렇게 따집시다. 죽은 사람이 반이라면 사는 사람이 반. 보이지 않는 데의 영령들이 반이라면 산 사람들이 반. 즉 말하자면 어느 사람이든지 정신계의 내 생명의 근본이 있다면 바로 육신 이 자체가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반반이.

그러니까 백팔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염(念)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백팔번뇌라고 하죠? 이 번뇌, 사람이 그렇게 죽고 살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번뇌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애고가 오고, 죽음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정말 여러 가지가 오니까 그게 찰나찰나 일어나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그러는 것도. 어떤 거든지 일어나는 그 자체를 두고 또 백팔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뇌, 이 망상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탐진치, 즉 이 삼독을 다 놓고 버려라. 놓고 돌려라. 이 지구 자체, 이 우주 전체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염주알 돌아가듯 하느니라. 빈틈이 없죠, 염주알 자체는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 표현, 표시입니다, 그게.

경을 읽고 절을 하는 의미

질문 『금강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의 수승한 공덕이 칠보로 수미산을 장식한 것보다 크다." 하고, "이 경의 사구게(四句偈) 하나만 일념으로 염송해도 윤회에서 벗어난다." 했습니다. 말하자면 염불문을 세우는 것이겠죠. 또, 다른 절에서는 백팔배, 삼천배를 시키면서 말하기를 "예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배를 빌려 타고 저 언덕에 이르는 길이라." 했습니다. 제 손으로 배를 만들기가 힘들어 아미타불 등 부처님과 제불 보살님의 배를 빌려 타고 싶은 게 중생심인데, 이런 경우에 타력에 의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답변 그 말을 나무로 비유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잎새가 헤아릴 수 없죠? 나무뿌리는 하나인데 가지들은 많고 그 잎새는 더 말할 거 없이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을 읽는다 하면 잎새를 세는 거와 같고, 또 백팔배를 한다면 바로 나무를 만져 주는 거와 같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무와 가지와 잎새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 거기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잎새를 아무리 세어도 센 사이가 없을 테고, 가지를 아무리 더듬어 줘도 더듬어 준 사이가 없을 겁니다. 공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이전에 역대 부처님과 조사들이 다 가르치시길 "얘야! 나뭇가지도 아니고 잎새도 아니니라. 뿌리에다 돌리거라. 마음을 일심으로 뿌리에 두어라.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봄이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그 과정은 뿌리로부터이니라. 그러니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은 뿌리에서 들이고 내는 것이니라.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모두 죽어 버리고 만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비유한다면, 무엇이든 뿌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뿌리에 물을 촉촉하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지를 쓰다듬지 않아도, 이파리를 세지 않아도 그 나무는 아주 싱싱하고 푸르르게 자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나무 잎새나 나뭇가지나, 나무 둥치나 이런 걸 무시한 게 아닙니다. '뿌리부터 알고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를 알아라. 그럼으로써 경을 읽되, 경이 나를 보지 않고 내가 경을 보지 않는 이치가 나오느니라. 절을 하되 절을 하는 사이가 없이 할 수 있느니라. 또 경을 보되 귀로 보고 모든 만물 만생의 소리를 듣되 바로 눈으로 듣는다. 그 도리를 알게 되면 눈으로 듣는다는 것도 없고 또 귀로 본다는 것도 없이, 바로 하나가 불끈, 하늘을 끼고 돌아가느니라.' 이런 뜻에 속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속에 수십억의 의식을 두고, 생명을 두고, 모습을 두고 있는 이 몸이 그 나무와 같이 아주 크다면…. 나무라는 것은 나무로 볼 수도 있지만 나무는 아주 크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없이 거듭거듭 태어나고 멸하고 이러는데 사람만이 이런 고초를 겪고 이런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행복이 엇갈린 세상 속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행복도 아니요 고통도 아닌 그 작용 속에서 바로 한생각 일어나는 것이 법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데로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으면서, 대천세계 모두 돌아가게 하는 이 하나의 마음을 탁 포착하는 그런 계기가 돼라, 이런 얘깁니다.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러면서도 역력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마음 내기 이전 불성 말입니다.

그거를 일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들이고 내느냐. 마음이 들이고 내는 거다. 그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끌고 가니, 그 양면을 다 작용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서 선(善)의 공덕길로 끌어들여라." 하고요. 이 세상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모든 물질, 개성, 마음들이 전부 우리가 있기 이전에도, 지수화풍이 있기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자기 개성을 톡톡히 두고 돌아갔던 시절이 있었겠죠. 개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개성이 한데 합쳐서 지수화풍을 이루었고, 지수화풍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이 이루어진 반면에 인간, 이 생물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근본에다 들여서 내는 이 공부를 진실하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촛불재의 깊은 뜻을 알고 싶어요

질문 저의 모친은 자주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성을 쏟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년이 되어서 친구 분의 권유로 용하다는 분한테 신년 운세를 보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당신 자손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조상님들이 다들 고마워하신다 하더라고 하시면서 "해년마다 촛불재를 하고 등을 달아 드리는 것이 그냥이 아닌가 보다." 하시더군요. 제가 선원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습관처럼 해 왔던 일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정말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래서 이번 촛불재는 더욱더 마음을 다해 올리고 싶어 촛불재의 깊은 뜻에 대해 다시 한 말씀 청합니다.

답변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귀중하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서 마음과 더불어 자신, 즉 '자(自)'는 이 몸이 되고 '신(神)'은 자기 불성(佛性)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다 둘 아니듯이 촛불재를 하는 것도 마음에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들질 않게 되죠. 마음에 있으니깐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그게. 모르는 사람은 전체가 가설이 돼 있다는 것도 모르니 한 가정이라도 그것을 알아야 전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는 거를 알고 넓고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혀지면은 그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도 밝혀진다는 얘깁니다. 자식을 둔 사람들은 또 자식이라는 가설이 돼 있습니다, 부모라는 가설이 돼 있고. 그것이 자연의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가 전기 가설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우리가 스스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도 가설이 돼 있는데 형제간에는 부모와 자식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 가는 겁니다. 친척도 '손바닥 다르고 손등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 데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만 밝아질 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밝아져서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촛불입니다. 더군다나 조상님들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습 쓰고 나온 대로 대접을 받게 돼 있거든. 여러분이 생각들을 잘해 보십시오. 항상 내가 얘기하죠. 개로 태어난다면 개 대접밖에 못 받고 짐승으로 태어난다면 짐승 대접밖엔 못 받는다. 돼지로 태어난다면 돼지 대접을 받을 거고 닭으로 태어난다면 닭 대접밖에 못 받는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천하게 태어나면 천한 대접밖에 못 받는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종자는 한 종자입니다. 참외씨를 심어서 씨를 받아서 또 참외씨를 심으니까 그 참외씨 그대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격으로요. 그러니까 자기 씨를 심어서 싹이 난 거니까 그 종자를 또 열리게 할 수밖엔 없죠. 그러니까 이 촛불 하나가 얼마만큼 귀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근본의 내가 탄생한 자리요, 나를 형성시킨 자리요, 또 우리 부모들을 형성시키는 그 에너지가 배출되는 장소입니다.

또 아래로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나가서 외박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박을 해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로 그렇게 부모들의 마음을 썩이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고발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지금은 이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 하나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얘깁니다. 촛불 하나가 그것을 다 대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의 능력입니다. 한생각에 찰나에 위성에도 가고, 우주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문지방 너머도 가고, 문지방 너머나 우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빛은 가다가도 중단이 되지만 이것은 물속이든지 흙 속이든지 어디든지 높고 낮음이 없이, 가고 옴이 없이 오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하나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아주 가긍하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믿고 하나를 들고 그렇게 위아래를 껴잡아서, 둥글게 껴잡아서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방에서 밝게 된다면 벌써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가서 그런 어지러운 일들을 저지르지 않게 돼요. 이런 얘기를 듣고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자기네들이 무시를 받게 되는 거니까 뭐 나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 이 촛불 하나가 얼마만큼 귀중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 근본의 내가 탄생한 자리요, 나를 형성시킨 자리요,
> 또 우리 부모들을 형성시키는 그 에너지가 배출되는 장소입니다.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는 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 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불자 세상보기

책 읽지 않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책은 지식의 창고다. 지혜의 심장이다. 책은 나의 마음을 지켜준다. 나를 비춰보는 내면의 거울이다. 좋은 책은 나의 인생을 바꿔 준다. 좋은 고전은 나를 깊게 하고 나를 넓게 한다. 책읽기로 우리의 앎을 확장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 사람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밥값을 하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의 지식을 습득하여 삶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책읽기는 나의 내면을 집중하게 해준다. 집중은 몸과 마음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선사의 깨침도 몰입과 집중에서 나온다. 몰입과 집중은 수행의 다른 이름이다. 2016년 벽두에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학도서관 연구소가 실시한 인간의 집중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인간은 8초, 금붕어는 9초란다. '금붕어보다 못한 인간의 집중력!' 이 연구소가 실시한 2000년 조사에서는 인간의 집중력이 12초였다. 이 연구소는 인간의 해독제로 '깊은 독서'를 제시하였다.

예로부터 사람은 태어나서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대략 50권이 든 20박스를 한 수레로 쳐 보자. 그러면 아마도 오천 권은 될 것이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어찌 오천 권을 읽지 못하랴!' 우리는 이렇게 화답해야 할 때다.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다. 이 말로 패러디 해 세태를 꼬집어보면 "하루라도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으면 손에 티눈이 생긴다"고 해야겠다. 우리 국민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상치 않다.

지난 22일에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 5천명과 초·중·고교생 3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독서인구)은 65.3%라고 한다. 이 통계는 문화부가 1994년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성인 10명 중 4명 가까이는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연평균 독서율은 1년간 종이책을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이다. 이것은 잡지, 만화, 교과서, 참고서, 수험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학생들의 연평균 독서율도 94.9%로 1.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1권으로 2013년보다 0.1권이 줄었다. 초등학생이 70.3권, 중학생이 19.4권, 고등학생이 8.9권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적다.

독서시간은 성인은 평일이 22.8분, 주말이 25.3분으로 2015년보다 각각 0.7분, 0.5분씩 줄어들었다. 초등학생이 54.7시간, 중학생이 45.8시간, 고등학생이 34.4시간에 견주어보면 너무 적다. 전체 성인들의 64.9%, 학생들의 51.9%가 '스스로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책을 읽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자 기준 평균 독서량'은 연 14권으로 12.9권이던 2013년보다 1권 이상 늘었다. 독서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읽어내는 양은 늘어난 것이다.

책을 충분히 읽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나 공부 탓에 시간이 없어서'라는 대답(34.6%)이 많았다. 또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스마트폰 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성인이나 학생이나 스파트 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통계 내어 보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넘을 것이다. 개인과 단체 카톡방, 문자메시지, 이메일 작성, 각종 뉴스, 스포츠, 연예, 쇼핑, 라이프, 남녀공감, 펀·웹툰, 댓글 등등을 보는 시간까지 치면 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 읽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가 스마트폰 삼매경에 들어있다. 물론 스마트폰 속에도 무궁무진한 정보가 들어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느리고 보다 더디게 다가가야 한다. 속도에 붙들리지 않고 속도를 끌고 와야 한다. 시간과 속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주위가 고요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책은 나를 집중하게 하고 책읽기는 나를 성찰하게 한다. 그러니 어찌 책을 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책을 읽지 않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기자수첩

연예 시상식 종교 발언은 '전파 낭비'



박아름
취재부 기자

지난해 연말 방송 시상식에도 어김없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등장했다. 15명 연예인이 무대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란 수상 소감을 남겼다. 너도 나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탓에 도리어 하나님이 걱정될 정도다.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가 1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방송 시상식에서(KBS 6명, MBC 2명, SBS 7명) 총 15명이 수상소감으로 종교적 신념을 표출했다.

그러나 1명이든 100명이든 그들의 종교적 신념 발언은 전파를 타고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퍼져나간다. 편안한 연말 저녁을 향유하던 시청자들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에 기습적으로 공격당하며 눈살을 찌푸린다. 이런 점에서 '여고 앞 바바리맨의 기습공격'이라 표현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방송에서 종교적 발언은 '배려와 존중'이란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숱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 "교회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에는 불특정 다수 시청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결핍돼 있다. 그들은 '불특정 다수 시청자' 범주에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가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등 수많은 종교인들이 포함돼 있단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또한 그들 중 대다수가 안방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듣길 원치 않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종교적 신념 발언은 일부 종교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바로 '선교'다. 선교를 위해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어필(appeal)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 신념을 가진 연예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방송 출연권'으로 국민 기본권, 즉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

MC이자 개그맨인 신동엽 씨는 2014년 MBC 연기대상 진행 중 한 연예인이 종교적 발언을 하자 이례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바로 "우리나라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신자도 참 많다. 하지만 불교신자들 중에선 한 명도 부처님께 감사하단 말을 한 사람이 없다."는 발언이다. 신 씨의 발언은 시상식 직후 '신동엽 소신발언'이란 수식어로 큰 화제가 됐다.

주목할 점은 여론이 이를 '소신발언'이라 평가한 것이다. 수십 년간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발언에 맥없이 노출돼 왔다. 그러나 특정 종교를 믿는 소수 연예인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시청자들은 면전(面前)이 아닌 브라운관 앞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타종교 신자, 무종교인들에겐 신 씨의 발언이 그야말로 속 시원한 '사이다'가 아니었을까?

무(無)배려와 무(無)존중은 '갈등'을 야기한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내 입으로 내 신념을 얘기한다"는 주장은 "내 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반론을 낳는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특정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 선을 만들고, 종교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하나님만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신념을 두고 옳다 그르다 왈가왈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만약 부처님, 알라신 등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방송'이란 일종의 공공물을 통해 종교적 신념을 표출한다면 이 역시 지탄의 대상이 돼야한다.

방송인은 '공인이냐, 아니냐'로 시비가 갈릴 만큼 한국사회에서 정치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방송인이 종교와 같은 개인적 신념이 아닌 사랑·배려·가족 등 인류보편의 가치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가뜩이나 여러 갈등이 산재한 한국사회에 평화의 씨앗 하나 심을 수 있지 않을까? 화두를 던져본다.

社說

세계적 선지식과 함께 할 행복찾기

선불교를 표방하는 선종은 개인적 깨달음을 중시한다. 선 수행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참선이 주로 이용된다. 가만히 앉아 화두를 붙잡고 몰입하거나, 번뇌와 잡념을 없애는 일종의 마음공부다. 이것이 요즘 흔히말하는 명상이다. 그 가치는 이미 입증됐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명상에 빠진 일은 유명하다. 빌 게이츠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명상을 한다.

긍정심리학에선 명상을 행복추구활동으로 본다. '몰입(flow)' 전문가인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어떤 일에 집중해 다른 생각 없이 몰입할 때 문득 행복해지는 순간이 온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템플스테이가 인기를 끌고 '힐링(치유)'이 시대의 코드가 되면서 명상인구는 더 많이 늘었다. 다만 명상이 개인적인 수양을 중요시하는 만큼 대중화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일종의 명상올림픽이 2월 정선서 열린다. 세계적인 불교 명상가들이 명상을 지도하는 '세계명상대전'이 그것이다. 2월 25~28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현대인의 심적 트라우마 치유를 통한 행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명상대전에는 태국의 영적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아잔 간하, 동양의 참선을 서양으로 전파한 아잔 브람(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불교의 대표적 간화선 수행자인 혜국 스님, 대만의 선승 심도 스님 등이 함께한다.

수천명이 한 군데 모여 명상을 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도 느껴지지만, 예전 같으면 수만리 길을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울 고승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이니 가슴 벅찬 이벤트이다. 세계적 명상 멘토들이 이 시대 한국 사회에 던질 화두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61주년에 부쳐

지난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당시 한국 사회는 광복 이후 근현대사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불교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잊고 있던 단체가 있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였다. 1955년 전국신도회 출범한 중앙신도회는 현재까지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도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한국불교 종단중흥을 위한 전국불교도대표자 결의대회'와 '불교근대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불교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행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사회 각계 분야별 신도들을 한데 모으고, 종교편향 및 사회문제에 나서 불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최근에는 '행복바라미'를 통해 기부문화에 앞장서고 있고,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신도회를 조직하면서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월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취소됐던 기념식을 다시 개최한 것이다.

60년. 사람이라면 환갑을 넘은 나이다. 다른 말로는 '이순(耳順)'이다. 이순은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되었다(六十而耳順)'는 공자의 술회에서 비롯된 말이다.

듣기만 해도 이치를 깨닫는 나이에 접어든 중앙신도회는 앞으로도 불법홍포·불교중흥·중생구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수행으로서 내 삶을 밝히고, 보살행으로 사회를 더욱 향기롭게 해나갈 때 불국토는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五千年의 기다림

彌勒大道經典 발간

용화세상의 주인공이신 미륵대성님의 말씀!

天地人, 仙佛儒, 性心身을 一合하여 바른 正의 九十八萬日月道德眞理로
만인류를 먹이고 입히어 살리시는 육불세존의 미륵대불님!

단군시조비님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탄강하신 민족의 성현이시고
前無後無한 금강연화 平等大運의 成婚聖이시며 三正의 신통력으로 道德 용화세상을 창조하시는 미륵대성현



清靜꽃 속에 鍊性의 열매가 달리고
慈悲꽃 속에 見性의 열매가 달리며
五倫꽃 속에 養性의 열매가 달리고
三正꽃 속에 道成의 열매가 달리는고나.

鍊性의 열매 속에서 一虛의 새싹이 트이고
見性의 열매 속에서 一空의 새싹이 나오며
養性의 열매 속에서 一無의 새싹이 올라오고
道成의 열매 속에서 一歸의 새싹이 돋아나는고나.

一虛의 영혼자리는 은하수별까지 오르고
一空의 영혼자리는 월화수목금토성까지 이르며
一無의 영혼자리는 만물의 초목까지 다다르고
一歸의 영혼자리는 지구촌에 인도환생을 하는고나.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인류도덕종교
미륵대도 금강연화종

홈페이지 http://idaedo.alltheway.kr http://www.idaedo.or.kr 문의 : 032) 832-0626